

석사학위논문

#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 협동과정

尹 奉 澤

지도교수 金大鉉

공동지도교수 宋日基

2007年 2月

#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 협동과정

尹 奉 澤

상기자의 문학석사 학위논문 을 인준 함

소 속 직 위 학 위 성 명

심 사 위 원 장 광주대학교 교 수 문학박사 金 重 權

심 사 위 원 중앙대학교 교 수 문학박사 宋 日 基

심 사 위 원 전남대학교 부교수 문학박사 金 大 鉉

2007年 2月

# 목 차

## 국문 초록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2
3. 선행 연구 .....	4
<b>II. 제주지방 출판문화의 환경 여건</b> .....	6
1. 제주의 출판 역사 .....	6
2. 제주의 출판 환경 .....	13
<b>III. 고려시대 妙蓮社의 敎藏 간행</b> .....	18
1. 妙蓮社의 연혁 .....	18
2. 『金光明經文句』의 간행 .....	20
<b>IV.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물 분석</b> .....	29
1. 『冊板目錄』의 분석 .....	29
2. 문헌자료의 「冊版庫 目錄」 분석 .....	32
3. 현존본 실물자료의 분석 .....	40
가. 現存 冊板類 .....	41
나. 現存 刊印本 .....	45

<b>V. 제주지방 출판물의 개관 시기 분석</b> .....	49
1. 제1기(15세기) .....	49
2. 제2기(16~17세기) .....	50
3. 제3기(18~19세기) .....	68
<b>VI.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 양상</b> .....	82
1. 經部 文獻 .....	82
2. 史部 文獻 .....	85
3. 子部 文獻 .....	87
4. 集部 文獻 .....	90
<b>VII. 결 론</b> .....	93
참고 문헌 .....	96
ABSTRACT .....	106

## 표 목 차

〈표 1〉 현존 책판 .....	45
〈표 2〉 제주목 개간 『冊板』 .....	47
〈표 3〉 제2기에 개간된 책판류(1435~1677) .....	50
〈표 4〉 제3기에 개간된 책판류(1678~19세기) .....	68
〈표 5〉 經部(17세기 개간) .....	83
〈표 6〉 經部(18세기 개간) .....	83
〈표 7〉 經部(19세기 개간) .....	84
〈표 8〉 史部(17세기 개간) .....	85
〈표 9〉 史部(18세기 개간) .....	86
〈표 10〉 史部(19세기 개간) .....	87
〈표 11〉 子部(17세기 개간) .....	88
〈표 12〉 子部(18세기 개간) .....	89
〈표 13〉 子部(19세기 개간) .....	89
〈표 14〉 集部(17세기 개간) .....	91
〈표 15〉 集部(18세기 개간) .....	91
〈표 16〉 集部(19세기 개간) .....	92

## 사 진 목 차

〈사 1〉 『금광명경문구』 권하, 권수제 1장(表) .....	99
〈사 2〉 『금광명경문구』 권하, 24장(裏) .....	99
〈사 3〉 『금광명경문구』 권하 권말제 31장(裏) .....	100
〈사 4〉 장서각 소장본 .....	100
〈사 5〉 『미상』 (6장 후면) .....	101
〈사 6〉 『맹자대전』 (17장) .....	101
〈사 7〉 『맹자언해』 .....	102
〈사 8〉 『미상』 .....	102
〈사 9〉 『논어대전』 (권17, 12장) .....	103
〈사 10〉 『삼국지연의』 (권11, 68장) .....	103
〈사 11〉 『미상(通)』 .....	104
〈사 12〉 『의례문해』 (권2, 23장) .....	104
〈사 13〉 『맹자언해』 (권9, 8장 후면, 마루널판으로 사용) .....	105

#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尹 奉 澤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協同科程

(指 導 教 授 : 金大鉉)

(共同指導教授 : 宋日基)

## <國文抄錄>

그동안 제주지역은 지리적으로 물과 떨어져 있어 과거부터 최근까지 제주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중앙으로부터 사실상 소외되어 왔으며, 학문분야라 하여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書誌學 분야에 있어서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다.

본 연구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류를 기록한 『冊板目錄』, 「冊版庫 目錄」, 그리고 현존 책판과 간인본을 중심으로,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대하여 분석·고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지방에서는 耽羅國 이후 고려와 元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조 충렬왕 22년(1296) 묘연사에서 『金光明經文句』를 개간하였다. 이 『金光明經文句』는 호국경전의 하나인 『金光明經』을 천태종의 開祖인 天台智者(陳, 538~598)가 번역한 주석서로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이다. 이러한 호국경전이 元의 지배 하에 있었던 시기에 개간되었다는 것은, 당시대의 출판문화에 대한 수준 뿐 만이 아니라, 제주인의 의식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제주지방에서 개간된 책판 판각은 제주목에서 이뤄졌고, 치목·연판·판각 등이 제주인들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지방의 출판문화 수준이 매우 뛰어났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제주지방에서 개간된 책판 사실을 기록한 문헌은 『曹溪山松廣寺史庫』

1종,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朝鮮王朝實錄』 등이며, 『冊板目錄』이 수록된 문헌은 『攷事撮要』 2종, 『古冊板有處攷』 35종,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15종, 『鏤板考』 16종이고, 「冊版庫 目錄」 사실이 기록된 자료는 『耽羅志』 41종, 『知瀛錄』 10종, 『耽羅誌草本』 36종, 『濟州邑誌』 35종,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29종, 『耽羅誌』 36종,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이며, 이를 통하여 동일 책판 명칭을 포함 256종의 책판목록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조, 임란 이전에 개간된 출판물은 현존본을 포함하여 『禮記淺見錄』, 『東國史畧』, 『牧民心鑑』, 『檢屍狀式』, 『赤壁賦』, 『浣花流水』 등 6종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선조 태종 18년(1418) 3월 제주목에서 『禮記淺見錄』이 가장 먼저 개간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를 포함하여 조선조에 개간된 책판 중 11종의 간인본이 현존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세종 17년(1435)과 숙종 3년(1677)에 발생한 두 차례 화재가 당시 제주목 관아 건물과 책판 등이 전부 소실될 만큼 大火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책판이 개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조 제주목에서 책판이 개간된 시기를 조선개국~1435년, 1436년~1677년, 1678~1899년까지 3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동일종의 판본 개간 절대 年代를 시기별로 구분 추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목에서 개간된 판본류를 시기별로 구분한 결과 제1기 조선조 개국~1435년 까지 『禮記淺見錄』 1종이 개간되었고, 제2기 1436~1677년까지 『赤壁賦』 등 47종이 개간되었으며, 1678~1899년까지 『諺解喪禮備要』 등 70종이 개간되어, 조선조 1418년 『禮記淺見錄』이 처음 개간된 이후 개간·복각을 포함하여, 經部 39종, 史部 15종, 子部 51종, 集部 13종 등 118종의 책판이 개간되었음이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를 四分法으로 분류하면서 출판문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동일 책판류를 제외한 經部 28종, 史部 14종, 子部 47종, 集部 10종 등 99 종의 책판이 개간되었다. 板種 數로는 子部·經部·史部·集部 순으로 子部에서도 藝術類가 27종이나 되고 있어, 당시 제주지방에서는 書學을 비롯한 藝術 문화 활동이 제주도로 流配된 선비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개간된 판본류에 대하여는 그 양과 질에 비하여 육지부와  
의 현격한 차이 때문인지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때  
문에 본 연구에서도 傳存本과 각종 사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유배지라는 절해고도에서 13세기 원의 지배 하에서도 『金光明經文句』  
가 개간되었고, 조선조 초 『禮記淺見錄』이 제주목에서 개간되었으며, 1677년(숙  
종 3년) 관아 대화재 이후에도 꾸준히 책판들이 개간된 사실은 앞으로 제주도  
의 板本史를 비교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책판이 개간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탐라국 시대인 상고시대부터 대륙과의 교통을 통해 많은 문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미 고려조에 와서는 13세기에 제주도에서 佛書가 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조 초부터 제주도에서도 지방자제들의 교육용으로 冊板이 개간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서도 책판이 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이나 板本類의 出版文化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되거나 보고된 바가 거의 없었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 중 현전하는 책판이나 刊印本이 매우 적어 사실상 관심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출판문화는 그 시대의 사상과 정체성을 가름하는 척도이다. 때문에 변방의 섬 제주목에서의 책판 개간은, 당시 제주도의 교육 환경과 시대사상 그리고 지방의 출판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도에서 개간된 冊板 관련 자료로는 『曹溪山松廣寺史庫』,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朝鮮王朝實錄』, 『攷事撮要』, 『耽羅志』, 『南槎日錄』, 『知瀛錄』,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조선시대 제주목에서 개간되었던 책판에 대하여 「冊板目錄」과 「冊版庫 目錄」으로 분류되어 기록된 자료로서, 제주지방의 출판문화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문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당한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이나 판본류에 대해 출판문화사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의 출판문화사를 정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을 수록한 『冊板目錄』과 「冊版庫 目錄」 등의 자료를 통하여 탐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방의 출판문화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주도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해 이미 고려조부터 조정에서 필요한 선박 건조나 사찰 건립 등에 사용될 목재를 반출해 갈 정도로 판재 자원이 되는 喬木들이 많았다. 따라서 제주도에서의 책판 개간은 당시 시대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간된 책판류들은 잣은 화마와 훼손으로 인하여 현전하는 것이 판각된 것에 비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를 연구하기에 앞서, 먼저 제주지방의 출판 역사와 환경 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서, 고려시대 13세기 제주 묘련사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의 간행 사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을 수록한 『冊板目錄』과 「冊版庫 目錄」의 자료를 통하여, 당시 제주지방의 出版物을 분석하고 나아가 제주지방 출판문화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 째, 제주지방 출판문화의 환경여건을 살피기 위하여, 제주 妙蓮社에서 1296년에 개간된 것으로 알려진 『金光明經文句』의 개간 시기인 13세기 탐라 대내외 정세와 板材 유통과정, 그리고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역사·문화·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 째,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의 刊印本 현전 여부가 확인<sup>1)</sup>되지 않고 있으나, 松廣寺<sup>2)</sup>와 藏書閣<sup>3)</sup>에 소장된 자료 실사를 통해 고려조 제주도에 개간된 목판 중 충렬왕 22년(1296) 妙蓮社<sup>4)</sup>에서 판각된 『金光明經文句』卷下の 寺刹板本

---

1) 2006년 3월 4일 : 순천시 소재 조계산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古鏡스님을 뵈고 이를 확인하였으나, 송광사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松廣寺, 『曹溪山松廣寺史庫』 권4, 4책, 稿本, 1934년, 송광사 소장, 「雜部」 32張 上:金光明經文句疏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3)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稿本, 1938년, 單券, 1책, 藏書閣 소장, 松廣寺(一三〇) ※ 당시 간인본을 촬영 인화한 사진 자료가 합철 되어 있음.

에 대한 형태적 특징과 판본 상태를 확인하고, 그동안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잘못 인용<sup>5)</sup>된 것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한다.

셋째, 제주목의 『冊板目錄』과 「冊版庫 目錄」에 기록된 책판·現存本 등 실물 자료를 통해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지방에는 육지부가 겪은 壬亂과 같은 병화는 없었으나, 책판 등이 火魔로 전소되어 새로 개간되거나 복각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이를 근거로 책판의 개간시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조선시대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과 판본 그리고 현존본 등을 중심으로 동양의 전통 분류법인 四分法에 따라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은 조선조 이래 여러 차례 화마로 제주목의 「冊版庫」 등이 소실되면서, 濟州島史는 물론이요 책판이나 판본류 등이 일시에 전소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사료나 책판류 등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화마로 인한 훼손은 지방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비슷하여 “조선조 전기에는 서적이 적지 않게 간행된 듯 하나 재난과 병난 등으로 인하여 散逸되었고, 소진되어 전래되는 도서가 매우 적은 편이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曹溪山松廣寺史庫』,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朝鮮王朝實錄』, 『攷事撮要』, 『古冊板有處攷』, 『耽羅志』, 『南槎日錄』, 『知瀛錄』,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을 참고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제주도의 板本史를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고려조 13세기 에서 부터 조선조 1899년까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과 판본류 그리고 현존본을 중심으로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를 분석 고찰하는데 국한시켰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제주도의 板本史와 제주목에

4)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1653년간), 單券, 一冊, 개인소장, 濟州 佛宇(條): 妙蓮寺 在州南二十里.

5) 藤田亮策, 「紙反古」, 『書物同好會會報』, 書物同好會(日本國 京城府:書物同好會 昭和 十三年) 第2號, p. 35~37. : ..... 同しく松廣寺藏の「金光明經文句疏」卷下 一冊は元貞二年濟州妙蓮社奉宣重修の刊記があり, 又天順の再印本かと思はれる.

6) 金致雨, 「조선조 전기 지방간본의 연구 -책판목록 소재의 전존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 1.

서 개간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필사본과 그리고 이 지역에 유입되어 현전하는 각종 판본류의 분석 조사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두었다.

### 3. 선행 연구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이나 판본류를 통하여 제주지방의 출판문화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제주도내에 소장된 판본류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한국전적종합조사계획」에 따라 1983. 8. 1~9. 10까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 의해 제주도내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 총 391종 1,204책이 확인된 바가 있다. 조사 당시에 도내에서 개간된 것으로 확인된 판본은 『耽羅志』(1653년), 『婚禮笏記』(1856년) 등 2종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소장된 전적 자료를 조사<sup>7)</sup>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1년에 발표된 南權熙의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sup>8)</sup>연구에서는 먼저 제주에서의 서적 간행기록을 임란전·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책판목록·地誌 등에 수록되어 있는 제주간행서적을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제주 간행 책판을 『攷事撮要』에서 2종, 『古冊板有處攷』에서 35종, 『林園十六志 - 京外鏤板』에서 10종, 『鏤板考』에서 10종, 『耽羅志』(李元鎮 編著)에서 34(책판)종, 『濟州大靜旌義邑誌』 22종 등 120종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책판이나 地誌의 「冊版庫」에 기록되지 않은 『中庸諺解』, 『吳子直解』 등 현존본을 새롭게 발굴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와 관련된 書籍類에 대해 논하면서, 제주도의 출판문화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연구에서는 이미 발굴된 제주도 관련 중 『曹溪山松廣寺史庫』,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南槎日錄』, 『知瀛錄』,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에 기록된 「冊版庫 目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林園十六志 - 京外鏤板』, 『鏤板考』, 『

7)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충청북도·제주도』 第9輯 (서울:敍成文化社, 1996), p. 231~254.

8)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第8輯, (청주 : 고인쇄박물관, 2001. 11), p. 219~251.

耽羅志』, 『濟州大靜旌義邑誌』를 조사하면서는 일부 책판목록 등이 누락되었다.

또한 尹奉澤이 「13세기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sup>9)</sup> 연구에서는 13세기 제주 묘련사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고려시대의 출판문화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그리고 윤봉택, 노기춘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sup>10)</sup>에서는 조선조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을 『耽羅志』와 『知瀛錄』 등의 책판과 현존본 등의 출판물을 통하여 당시대의 출판문화 현상에 대하여서만 논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제주지방의 출판문화에 대하여 개괄적 또는 13세기·17세기에만 국한시켰다.

---

9) 윤봉택, 「13세기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서울 : 보고사, 2006. 8), p.193~230.

10) 윤봉택, 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제34집, 서지학회 (서울 : 2006. 9), p. 251~271.

## II. 제주지방 출판문화의 환경 여건

제주도에서 어느 시기에 책판이 개간되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주에서 개간된 책판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탐라와 고려, 그리고 삼별초의 입도, 몽고와의 관계 등 시대상황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역사와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주의 출판 역사

상고시대 이후 제주지방에서 처음 개간된 책판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조 제주지방에서 처음 개간된 책판은, 관판이 아닌 사찰판이 먼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1296년 제주 묘련사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권하 1책의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으나, 다른 책판이 개간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상고시대의 “제주도는 高·梁·夫 삼성이 신라에 입조하여 耽羅國이라는 국호를 받은 이후, 숙종 10년(1105)에 탐라국이 사실상 폐지”<sup>11)</sup>되었고, 耽羅郡·縣·牧 등으로 강등되면서 탐라국이라는 국호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탐라국이 고려와의 관계는 신라가 망할 무렵, “태조 8년(925) 11월 탐라국에서 고려조에 사신을 보내어 方物”<sup>12)</sup>을 바치면서 시작되었다.

현종 3년(1012) 8월에는 “탐라국에서 대선 두 척”<sup>13)</sup>을 지어 바쳤고, 문종 6년(1052)에는 “해마다 橘 100包子”<sup>14)</sup>를 바치도록 했다. 문종 12년(1058) 8월에는 “왕이 탐라와 영암 지방에서 재목을 벌채하여 대선을 만들어 宋나라와 通交하려했으나, 문하성에서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오직 해산물과 배 타는 것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새로 사찰을 짓기 위하여 탐라에서 재목을 베어 바다를 건너 이송하느라 이미 그 노고와 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

11) 『高麗史』<地理志>, 全羅道, 耽羅縣 (條) : 太祖二十一年 耽羅國太子末老 來朝 賜星主王子爵 肅宗十年 改毛羅 爲耽羅郡.

12) \_\_\_\_\_, 世家, 太祖 乙酉 八年 十一月 己丑 (條) : 耽羅 貢方物.

13) \_\_\_\_\_, 世家, 顯宗 壬子 三年 八月 壬寅 (條) : 耽羅人 來獻大船二艘.

14) \_\_\_\_\_, 世家, 文宗 壬辰 六年 三月 壬申 (條) :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 從之.

금 다시 한다면 어려운 일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왕이 중단하도록 했다.”<sup>15)</sup> 문종 27년(1073) 11월에는 “탐라에서 팔관회에 참석하여 예물을 바쳤다.”<sup>16)</sup> 숙종 10년(1105) 탐라국이 폐지되고 탐라군으로 강등되면서 고려의 한 지방으로 편제되었다. 의종 7년(1153) 11월에는 탐라현에서 12명이 와서 방물을 바쳤으며, 이 시기에 탐라군에서 탐라현으로 강등되었다.

의종 16년(1162)에 고려조에서는 崔陟卿을 탐라현에 현령으로 파견하였고, 의종 22년(1168)에는 탐라에서 민란이 발생하자 탐라안무사 趙冬曦를 보내 선무하였다. 원종 1년(1260) 1월에는 “제주부사 判禮賓省事 羅得璜으로 방호사를 겸하게 하였다. 조정의 의론이 제주는 해외의 巨鎮이라 宋나라 상인과 섬의 왜가 무시로 왕래하니, 마땅히 특히 방호별감을 보내어 비상에 대비할 것이로되 그러나 구제에는 다만 守倅뿐이니 따로 방호별감을 두는 것이 가하지 못하다 하여, 드디어 羅得璜으로 겸임하게”<sup>17)</sup>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와 고려와의 관계는 고려 개국 초에는 상호 평등관계에서 출발한 것 같으나, 이때부터 사실상 주종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1105년 탐라국에서 탐라군 등으로 강등되면서 고려에 예속되었다.

탐라와 몽고와의 관계는 원종 7년(1266) 11월 “제주에서 星主가 고려조에 입조하자 正言 玄錫을 보내 성주와 같이 몽고”<sup>18)</sup>로 간 것이 처음이다. 이후 원종 9년(1268) 10월 원종은 배 천여 척 짓는 것과 관련하여 탐라에서 별도로 배 백 척을 건조하도록 하여 일본 정벌에 필요한 선박을 제주에서 건조하였다.

몽고가 명위장군 도통령 탈타아와 무덕장군 통령 王國昌과 무락장군 부통령 柳傑 등 14인을 보내왔는데 조에 이르기를, 경(원종)이 崔東秀를 보내와 아뢰바 병 1만을 갖추고 선 1천척을 만든다는 일로 이제 특히 脫朶兒 등을 보내어 거기 가서 군수를 정점하고 주함을 점시하게 하였으니 그 만드는 바 선척은 파견

15) 『高麗史』, 世家, 文宗 戊戌 十二年 八月 乙巳 (條) : 宋商黃文景等 來獻土物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 且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16) \_\_\_\_\_, 世家, 文宗 癸丑 二十七年 十一月 辛亥 (條) :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翼日大會 大宋 黑水 耽羅 日本等 諸國人 各獻禮物名馬.

17) \_\_\_\_\_, 世家, 元宗 庚申 元年 二月 庚子 (條).

18) \_\_\_\_\_, 世家, 元宗 丙寅 七年 十一月 丙辰 (條) : 濟州星主 來見 甲子 遣正言玄錫 以星主 如蒙古.



하는 관리의 지휘를 듣되 만일 탐라가 이미 조선의 역에 참여하였으면 번중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참여하지 아니하였거든 곧 1백 척을 별도로 건조하게 하라. 그 군병과 선척은 정점이 족비되면 혹은 南宋이나 혹은 일본이 명령을 거역하면 정도할 것이니, 때에 임하여 宜를 제하고 인하여 관리를 보내어 먼저 가서 흑산도와 일본의 도로를 상찰하게 하노니, 경도 또한 관리를 차출하여 호송하여 도달하게 하라.<sup>19)</sup>

충렬왕 6년(1280) 5월에는 탐라에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삼천 척 분량의 목재를 공출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몽고에서는 고려로 하여금 탐라에 주둔하는 達魯花赤에게 스스로 예하에 있는 철장을 시켜 배를 수리”<sup>20)</sup>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金光明經文句』 판각 시기까지 탐라는 고려의 한 지방으로서 몽고가 일본 등을 정벌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을 만드는데 사용될 목재 등을 공급하고 또한 선단을 수리하는 등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20년(1294) 5월에는 “고려조에서 元에게 탐라를 고려에 돌려 주도록 황제에게 요청하자 이에 황제가 돌려주었고,”<sup>21)</sup> 같은 해 7월에는 고려에서 대장군 吳仁永을 전라도 지휘자로 삼아 탐라에 파견하였으며, 11월에는 탐라왕자 文昌裕와 탐라성주 高仁杻이 고려조에 방물을 바치는 등 元의 귀속에서는 벗어났으나 말 등은 계속 元에 바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296년을 전후하여 탐라에서는 元의 요청에 의하여 선박 제조용 판재 등이 대량으로 공출되었음이 확인된다.

탐라와 삼별초와의 관계는 삼별초가 원종 11년(1270) 8월에 진도에 상륙한 후, 탐라에 입도한 시기는 원종 11년(1270) 11월<sup>22)</sup> 경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사전에 제주에 주둔한 고려군을 쉽게 제압하고 항거지를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제주에

19) 『高麗史』, 世家, 元宗 戊辰 九年 十月 庚寅 (條) : 蒙古 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等十四人來 詔曰 卿 遣崔東秀 來奏 備兵一萬 造船一千隻事 今特遣脫朶兒等就彼 整閱軍數 點視舟艦 其所造船隻 聽去官指畫 如耽羅 已與造船之役 不必煩重 如其不與 即令別造百艘 其 軍兵船隻 整點足備 或南宋 或日本 逆命征討 臨時制宜 仍差去官先行 相視黑山 日本道路 卿 亦差官 護 送道達 己亥 遣將朴臣甫 都兵馬錄事禹天錫 從國昌 劉傑等 往視黑山島.

20) \_\_\_\_\_, 世家, 忠烈王 庚辰 六年 八月 癸酉 (條) : 元卿 自元賫省旨來 令耽羅達魯花赤 自以其鐵匠 修 戰艦.

21) \_\_\_\_\_, 世家, 忠烈王 甲午 二十年 五月 甲寅 (條) : 太白晝見 翌日 亦如之 耽羅人曲怯大·蒙古大· 塔思拔都等 如元 獻馬四百匹 王 以四事 奏于帝 一 請歸耽羅 二 請歸被虜人民 三 請冊公主 四 請加爵 命 帝命耽羅 還隸高麗.

22) \_\_\_\_\_, 世家, 元宗 庚午 十一年 十一月 己亥 (條) : 賊 陷濟州.

부임했던 고려조의 관리들이 수탈로 인하여 탐라인들이 삼별초를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종 14년(1273) 4월 탐라에서 항거하던 삼별초가 고려와 元의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 토벌되자, 元나라는 탐라를 胡馬 키우는 방목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元의 통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탐라는 공민왕 23년(1374) 8월 崔瑩에 의하여 元의 牧子가 완전 섬멸될 때까지 고려와 元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金光明經文句』가 편각된 1296년은 탐라의 몽고 지배가 시작된 후 24년이 지난 시기로 몽고의 수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으나, 제주도에서 사찰관이 어떻게 개간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 문화 역사와 관련하여, 조선이 건국되고 난 후 조정에서는 지방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더불어 제주목에 대하여도 “태조 3년(1394)에 敎授官을 두어 土官의 자제를 교육시켜 上京 侍衛하게하고 千戶 등의 관직을 주도록 했다.”<sup>23)</sup> 이 후에도 계속하여 조정에서는 지방 감영에 醫書 등 서책을 내려 보내 교육에 힘쓰도록 하였고, 감영 등에서는 이러한 서책을 저본으로 하여 책판을 조성 인출하고 향교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하였다.

이렇게 개간된 간인본이나 책판에 대하여서 “조정에서는 전국의 書冊을 정비하고 脫簡·落字를 修補하며 판본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조사토록 하여,”<sup>24)</sup> “각 도 고을에 보관된 冊板은 신·구 수령이 교대할 때 무슨 책판이 몇 쪽임을 명백하게 기록 인계하되, 재임 중에 파손·유실된 판본에 대하여는 보충하여 인계”<sup>25)</sup>토록 하였다. 또한 각도 감사에게는 서로 다른 고을과 같은 서책이 간행되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음대로 서책을 간행하거나 타 도와 같은 책판을 개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26)</sup>

조선조의 “관판본은 중앙의 校書館 혹은 주자소에서 인출한 국가의 典章 · 史書 및 왕가의 기록 등과 같은 중요한 官撰書에 속한 것인데, 대개 중앙에서 먼저 활자

23) 『朝鮮王朝實錄』,太祖 三年 三月 二十七日 丙寅 (條) : 都評議使司上言 濟州 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敎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筭付上從之.

24) \_\_\_\_\_, 世宗 六年 三月 十四日 辛卯 (條).

25) \_\_\_\_\_, 世宗, 七年 九月 一日 丁酉 (條).

26) \_\_\_\_\_, 世宗 十四年 八月 三日 己丑 (條), 成宗 二年 一月 十四日 丁亥 (條).

판에 인쇄하여 관계의 관서 및 관원들에게頒賜하게 된다. 그러나 널리 반사의 필요가 있는 것이나 또는 후대에까지 널리 전해야 될 중요한 서책들은 그 활자본을 지방의 각 감영에 보내어 관명으로써 다시 각판케 하며, 때로는 서책의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교서관이나 감영에서 각판케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사가의 저술이라도 국가 사회의 발전과 교육문화의 향상에 중요한 것이라면 관명으로써 중앙이나 지방관서에서 각판하게 하는 예도 적지 않다.”<sup>27)</sup>

지방 자제들이 간혹 과거에 급제하면서 무예보다는 경서를 보아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하는 자제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감영에서는 學舍가 없고 판각으로 인출된 서책이 없어 자제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 그러자 해당 지역의 승려들을 징발하여 학사를 신축하고 판각에 필요한 자재를 모으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서를 간행하도록 하면서 많은 지방 관판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sup>28)</sup>

조선조에 간행된 주요 “官板은 태조 3년(1394) 鷄林府에서 重刊된 『三國史記』 등 太祖年間に 4종이 있고, 定宗 年間 2종, 太宗 年間 11종, 47종, 文宗 年間 1종, 端宗 年間 2종, 世祖 年間 30종, 成宗 年間 40종, 燕山君 年間 13종, 中宗 年間 72종, 明宗 年間 33종, 宣祖 年間 45종 등이 있다.”<sup>29)</sup> 이처럼 제주목에서도 적기에 필요한 서적들이 개간되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이와 같이 체계 있게 책판을 개간·관리·보전하려 하였으나, 책판을 관리·인출을 총괄하는 “校書館의 관리들이 冊板을 방치하거나 또는 유실·훼손·부패하여 못쓰게 될 때까지 방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sup>30)</sup>하여, 지방 감영의 冊版庫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판본의 보존과 관리 운영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중종 26년(1531) 제주 출신으로 여겨지는 高根孫이가 쓴 『大慧普覺禪師書

27)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探求堂, 1974), p. 231.

28) 『朝鮮王朝實錄』, 世宗 十年 五月 六日 丁巳 (條) : 咸吉道 監司 崔鑄 啓 本道地極北鄙 前此不設學校 識字者蓋寡 今文明之化廣被 大小州縣 各置教官 生徒之額 不減他道 登科第者 比比有之 人皆觀感 漸拋 馳馬試劍 咸願叩篋橫經 然或學舍未備 且無板刻經書 學者患之 伏望依各司營造例 募僧構學舍 啓聞賞職 又募僧刊行經書 姑將道內二三年濟用監納神稅布及犯罪人沒官財産 收贖錢布 換紙以印 分于各官 下禮曹 禮曹啓 請依所啓 但印書紙 則以道內公儲布物 量宜支給上曰 可給一年貢納神稅布.

29)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1974), p. 232~242.

30) 『朝鮮王朝實錄』, 世祖 四年 四月 二十八日 丙戌 (條).

』<sup>31)</sup>가 있다. 이는 “조선 초기의 독자적 판본 중에서도 당대의 명필가인 成達生과 成概 형제를 비롯하여 省琚·空菴·黃振孫 등 독특한 필법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힘 있게 쓴 것 등을”<sup>32)</sup> 들 수가 있는데, 『大慧普覺禪師書』는 승려들이 講院에서 四集 교재로 사용되는 『書狀』인바, 당시 제주에 거주하였던 板書者인 高根孫이 제주도에서 쓴 판각용 淨書本을 판각한 것이 있어, 당시 제주인들의 板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목에서 책판 조성은 조정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목민관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板書者들에 의해 정서본을 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694~6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李益泰는 당시 濟州牧에서의 冊版 조성과 보존·인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주에 있는 冊版은 일찍이 화마<sup>33)</sup>로 인하여 소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그 후에 『四書諺解』, 『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의 冊版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冊版을 보관할 藏閣이 없어서 제주향교 내에 있는 東齋에 보관하고 있다. 봄 가을 재를 모실 때, 여러 유생들이 齋에 머무르면 그 유생들로 하여금 冊版을 마당으로 꺼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구차하기 때문에 入番하는 下人으로 하여금 番을 면제하는 대신 藏閣의 재목을 구해 오도록 했다. 그래서 大木은 5~6명, 中木은 3~4명, 小木은 매 사람마다 나누어 모은 것을 가지고 冊版을 보관할 5칸의 藏閣을 지어 그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책을 印出할 때에는 齋任이 冊版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교생들이 각각 冊版 제작에 필요한 板材를 하나씩 준비하여와 『小學』, 『諺解喪禮備要』, 등의 冊版을 만들고 싶다하였다.

이에 營牧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刻手 70여명을 뽑아 각각 당번을 세워 板木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서 板刻을 잘하는 善手 10여명에게는 별도로 급료를 주고, 校正토록 하였는데, 3개월 후 板刻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또한 宣廟御筆인 『大字草書』 八帖을 板刻하였다.

그리고 새로 板刻한 『小學』 및 『喪禮』는 3帙을 찍어 내어 제본한 후, 濟州牧 ·

31) 『大慧普覺善師書』, 목판본, 단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소장, 刊記 : 順治四年丁亥(1647) 六月 慶尙道 靑松土普賢山普賢寺重刊, 嘉靖十年(1531)辛卯之春 有一道人請求曰大慧說文雖有舊本字細故老德對目前 欲觀其而未詳哉畫中則以謂視之而書于濟州上將在家居士高根孫.

32)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민음사, 2004), p. 151.

33) 李增 著 ; 金益洙 譯, 『南槎日錄』, 1680년, 부록(영인본), (제주:제주문화원, 2001), 公廨 (條) : 冊版 庫 丁巳(1677)失火諸冊板口燒云.

旌義縣 · 大靜縣에 있는 鄉校에 나누어 줬다.<sup>34)</sup>

이처럼 1695년 제주목에는 “官府의 화재(1677년. 丁巳)로 인하여 책판이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화재 이후에 판각된 『四書諺解』와 『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 책판만이 제주향교에 임시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후 1696년 鄉校의 校生들의 청에 의하여 당시 제주목사였던 李益泰에 의해 『小學』, 『喪禮備要』<sup>35)</sup> 등이 새롭게 판각되었고 책판을 보관할 藏閣도 건립하였다”<sup>36)</sup>. 이 가운데 『諺解喪禮備要』와 『小學』은 李益泰 목사가 지방 교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판각하였고, 또한 『宣廟御筆大字草書』 8첩을 판각하여 冊版庫에 보관하였다.

제주지역에서의 책판 조성은 당시 제주목에 거주하고 있는 刻手들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판각에 필요한 판재는 직접 수혜자인 향교의 교생들에 의하여 공급이 되었으며, 鍊板 처리는 각수들이 담당 하였다. 판각은 각수 중에서 새김이 뛰어난 善手들을 별도 선발하여 일정의 급료를 지불하였고 직접 교정을 하도록 하였다. 印出은 최소한의 필요한 부수로 한정하였다. 인출에 필요한 印紙는 도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북제주군 한림지역과 서귀포시 효돈동 지역에서 닥나무를 재배하여 종이를 제작하였다는 증언<sup>37)</sup>이 있다.

이와 같이 책판 개간은 19세기 까지 지역민의 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이뤄졌고 판각에 필요한 판재 수급과 연관 또한 지역민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판각이 이뤄지는 등 당시 제주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판 조성 과정

34)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695, 부록(영인본), (제주:濟州文化院, 1997), p. 121~122. 增減十事 (條) : 本州冊版曾因回祿之災蕩然無餘其後所備四書 俱諺解疑禮問解剪燈新話史略等板而無藏閣權置於鄉校東齋春秋釋采諸生齋宿時出板外庭罷 齋後還入置非但苟艱多有風雨致傷之弊故令入番下 人除番鳩村而大木則五六名中木則三四名小木 則每名分之收聚造成五間屋於校中以為藏置冊 板而印出時則齋任主管開閉且校生輩各備板材 一立欲刊小學及諺解喪禮備要等冊者抄女云出故營牧下 人中可合刻手者七十餘名各其當番使之刻役又 擇其善手數十名給料校正三閱月而畢功又得 宣廟御筆大字草書八帖入梓而新刊小學及喪禮印 出三件粧冊分上三邑鄉校.

35) 『喪禮備要』, 목판본, 1책,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康熙三十四年歲在乙亥(1695년)冬濟州鄉校開刊.

36)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997), p. 121~122. 增減十事 (條) : 本州冊版曾因回祿之災蕩然無餘其後所備四書 俱諺解疑禮問解剪燈新話史略等板而無藏閣權.

37) 康丁生, 1929년 11월 7일생.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166-5), 〈採錄日 2004. 6. 9. 서귀포시 향토사료전임연구원 尹奉澤〉.

등이 확인되었다.

## 2. 제주의 출판 환경

제주도의 출판에 따른 자연환경을 살펴 볼 때, 제주는 기후·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아열대 수종인 후박나무·담팔수나무·녹나무 등 목재나 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형성되어 있어 대형 선박이나 사찰 건립에 필요한 목재들이 강제로 몽고나 고려로 보내졌다. 이러한 목재들은 대장경 제조<sup>38)</sup> 등에도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에는 후박나무와 담팔수<sup>39)</sup>·녹나무<sup>40)</sup>·각종 난대림지대<sup>41)</sup> 등이 해안 가까이 까지 많이 자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선조 濟州島의 행정 구조에 따른 출판 환경은 濟州牧에 大靜縣·旌義縣 등이 설치되어 三邑 체제로 유지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행정 체계는 태종 16년(1416)5월에 都安撫使 吳滉이 제주목의 효율적인 행정적 관리 측면에서 한라산 중심 남쪽 지역에 대정현과 정의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濟州牧에도 지방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官學인 향교와 私學기관인 서원과 서당 등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태조 3년(1394) 濟州鄉校 설립을 시작으로 세종 2년(1420)에 旌義鄉校와 大靜鄉校가 각각 세워졌다. 서원은 선조 11년(1578년) 冲庵 金淨을 추모하기 위하여 橘林書院이 설립되었고, 중종 29년(1534) 서당으로서 처음으로 鄉學堂이 설립되었다. 이후 인종 원년(1545) 金寧精舍와 月溪精舍, 영조 12년(1736) 三泉書堂 등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지방 자제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가 제주목에서 자체적으로 판각하여 책판고에 보관하면서 인출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

38) 千惠鳳, 『韓國 書誌學』 (2004), p. 149.

39) 천연기념물 제163호, 『서귀포 담팔수나무 자생지』, 1966년 1월 31일(지정).

40)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1964년 1월 31일(지정).

41) 천연기념물 제375호, 『남읍난대림지대』, 1966년 1월 31일 (지정), 제주시 애월읍 소재.

이 가운데 제주목에서 관각되어 유통되었던 濟州牧藏本에 대한 책판 기록은, 조선조 제주목사로 임명된 목사 가운데 재임 중에 만들어진 私撰邑誌인 『耽羅志』의 「冊版庫」目錄과 『朝鮮王朝實錄』 그리고 기타 史料 등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邑誌에는 관찬읍지와 사찬읍지가 있는데 지방의 내용을 수록 발간한 地理誌이다.

제주도의 경우 관찬읍지 발간은 18세기에 와서야 이뤄졌으며, 正祖 年間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濟州邑誌』와 『濟州大靜旌義邑誌』가 있다. 그러나 私撰邑誌는 이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濟州牧民官으로서 私誌를 편찬한 牧使는 효종 4년(1653) 『耽羅志』를 편찬한 李元鎭과 헌종 9년(1843) 『耽羅誌草本』을 草稿 편찬한 李源祚가 있다.

이후에도 『耽羅誌』 2종이 추가로 편찬되는데, “일본 동경대학교 소장본 『耽羅誌』”<sup>42)</sup>는 1848년 제주방어사로 부임한 張寅植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하나는 “1902년경 南萬里가 편찬한 『耽羅誌』”<sup>43)</sup>라 여겨지고 있으나, 『耽羅誌』 2종 모두가 편찬 구성과 내용이 『耽羅志』의 것을 傳寫하였고 이후의 것만 보충하는 등,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邑誌의 편집구성은 해당 지역에 대해 沿革·姓氏·風俗·形勝·山川·土產·城郭·防護所·宮室·倉庫·學校·鄉約·軍兵 등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성종 18년(1487) 敬差官으로 제주를 探勝했던 崔溥는 “州에 소장된 옛날 역사를 찾고자 하였으나, 官府의 화재로 모두가 소실되었다고 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이 땅은 옛날에 나라로 삼고 星主·王子를 封한지가 천 여년이 되었는데, 지난 날의 沿革과 유적이 없어져서 들어볼 수가 없으니 참으로 한스러울 뿐이로다. 그리하여 野史를 찾아보고 父老에게 여쭙 보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추슬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내어 耽羅詩 35絶을 엮고 합쳐서 한 편을 만들어 뒤에 붙인다. 州人으로 하여금 정사하여 책을 만들어 이 邑에 보관케 함으로써 장래에 참고가 되는 文獻으로 삼고자한다.”<sup>44)</sup>하여 筆寫本을 만들어 濟州牧에 보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42)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編,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제주:경신인쇄사, 1989).

43) 濟州市 ; 濟州大學校博物館 共編, 『濟州牧 地誌總覽』 (제주:세림원색인쇄사, 2002), p. 23~24.

44) 李元鎭, 『耽羅志』, 목판본, 1653년, 題詠(條) : 崔溥三十五絶 渤海之南天接水 .....保我生平伊尹志. 崔溥는 1486년(성종 17년) 『東國輿地勝覽』 교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1487년(성종 18년) 9월에 敬差官으로 제주에 왔었다.

제주목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목판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읍성 내에 「冊版庫」를 짓거나, 화마 등으로 전소되었을 때는 향교 등 건물에 임시로 보존토록 하였다. 처음 책판고를 설치한 시기는 알 수가 없으나, 조선조에 와서 「책판고」에 대한 기록은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미 제주목에서 책판이 조성되면서부터 별도의 책판 보관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책판고」는 남만의 탐라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까지 존치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의 출판정책은 중앙의 校書館과 鑄字所에서는 국가의 典章, 史書 및 王家의 기록 등과 같은 중요한 官撰書들의 서적간행 사업을 전담하였으며, 그밖에 중앙의 특수기관, 예컨대 내의원에서는 『東醫寶鑑』 등의 의학서를, 正音廳에서는 諺文 관계서적을, 관상감에서는 曆書에 관련된 서적을 간행하였다. 한편 지방출판은 크게 府, 監, 營 중심의 官板本과 각 書院에서 간행된 書院板, 각 寺刹에서 開板印出된 寺刹板, 개인적으로 간행 비용을 마련하여 간행한 私家板, 그리고 17세기 이후 상업적 출판을 위해 간행된 坊刻本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자제들과 목민의 교육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 이로 인하여 지방 자제들이 간혹 과거에 급제하게 되자 무예보다는 경서를 보아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하는 자제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감영에서는 學舍가 없고 판각으로 인출된 서책이 없어 자제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자, 해당 지역의 승려들을 징발하여 학사와 판각에 필요한 자재를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경서를 간행하도록 하여 많은 지방 관판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sup>45)</sup> 제주도 역시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태조 3년(1394)에는 “제주목에 敎授官을 두어 土官의 子弟를 敎育시켜 上京 侍衛하게 하고 千戶 등의 관직을 주도록 했으며,”<sup>46)</sup> 태조 3년(1394) 濟州鄉校 설

45) 『朝鮮王朝實錄』世宗 十年 五月 六日 丁巳(條)：咸吉道監司崔鑄啓本道地極北鄙前此不設學校識字者蓋寡今文明之化廣被大小州縣各置敎官生徒之額不減他道登科第者比比有之人皆觀感漸拋馳馬試劍咸願叩篋橫經然或學舍未備且無板刻經書學者患之伏望依各司營造例募僧構學舍啓聞賞職又募僧刊行經書姑將道內二三年濟用監納神稅布及犯罪人沒官財産收贖錢布換紙以印分于各官下禮曹禮曹啓請依所啓但印書紙則以道內公儲布物量宜支給上曰可給一年貢納神稅布.

46) \_\_\_\_\_, 太祖 三年 三月 二十七日 丙寅(條)：都評議使司上言濟州未嘗置學校其子弟不入仕於國故不識字不知法制各所千戶率皆愚肆作弊乞自今置敎授官土官子弟十歲以上皆令入學養成其材許赴國試又以赴京侍衛從仕者許爲千戶百戶以給筭付上從之.



립을 시작으로 세종 2년(1420)에 旌義鄉校와 大靜鄉校가 각각 세워졌다. 書院은 선조 11년(1578) 冲庵 金淨을 추모하기 위하여 橘林書院이 설립되었고, 중종 29년(1534) 서당으로서는 처음으로 鄉學堂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인종 원년(1545) 金寧精舍와 月溪精舍, 영조 12년(1736) 三泉書堂 등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지방 자제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 자제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가 제주목에서 자체적으로 관각되는데, 태종 18년(1418) 3월에는 權近의 禮記 解說書인 『禮記淺見錄』이 복각되었고, 명종 10년(1555) 4월에는 제주목사 金秀文이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牧民書인 『牧民心鑑』을 중간하였으며, 선조 18년(1585)에는 역사서인 『東國史畧』 등이 간인되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는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崇儒右文政策을 실현하기 위하여 『論語(諺解)』,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등의 四書類와 일상생활의 예절에 관한 『家禮』, 『諺解喪禮備要』, 『疑禮問解』 등의 禮類, 『詩傳大文』과 『書傳大文』 등의 詩類와 書類,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부터 필수교과목으로 중시되어 통치사상과 윤리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孝에 대해 기술한 『孝經』, 초학자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한자를 韻에 따라 주석한 韻書인 『三韻通考』와 한자를 쉽게 배우기 위해 만든 敎本인 『類合』 및 『千字文』, 『童蒙先習』과 『童子習』 등의 小學類 등 주로 13경 중심의 經部 冊板이 개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 향교, 서원, 서당 등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 필수과목으로 다루어진 子部 儒家類의 『小學(諺解)』과 栗谷 李珣(1536~1584)가 初學者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擊蒙要訣』과 14세기 중엽 元의 逸庵王이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저술한 敎化書인 『正俗』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방 자제들의 歷史 교육을 위해서도 史部 서적의 冊板을 간인하였는데, 중국의 春秋戰國時代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기술한 『十九史略』과 태종 4년(1404) 明의 朱逢吉이 지은 牧民官 지침서인 『牧民心鑑』 등의 冊板이 소장되어 있었고, 1653년에는 제주목사인 李元鎮에 의해 제주도의 종합 지리서인 『耽羅志』가 간인되었다.

그리고 지역민의 의료를 위해 醫書인 『救急方』, 『經驗方』이 개간되었고, 牛馬 방제를 위해 『新編集成馬醫方』 등이 인출되어 보급되었다.

또한 제주지역이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에 대한 『將鑑博議』, 『兵學指南』등의 兵書를 개간 보급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이 이뤄졌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제주지역 자제들의 書學을 위해, 子部의 藝術類인 조맹부의 『赤壁賦』가 선조 7년(1574) 8월 7일 개간된 것을 비롯하여, 『藤王閣序』, 『草千字』, 『浣花流水』, 『春種』, 『退溪書』, 『聽蟬書』, 『宣廟御筆草書』, 『顏眞卿書』, 『雪峰書』, 『草書大字中字』, 『太公事筆』 등 다양한 書體를 판각 보급하여 書法을 익히도록 하였다.

한편 유학자들의 학문 활동 결과물인 시문집도 간인하였는데, 唐나라의 名詩를 모아 놓은 『唐詩絕句』와 우리나라의 名詩를 모아 비평을 가한 『續靑丘風雅抄』, 그리고 고려말의 문신인 圃隱 鄭夢周(1337~1392)의 시문집인 『圃隱集』과 조선 전기의 문신인 冲庵 金淨(1486~1521)의 문집인 『冲庵集』, 조선 중기의 학자인 金世濂(1593~1646)의 시문집인 『東溟集』이 있고, 소설류는 明의 瞿佑(1341~

1427)가 古今의 괴담기문을 엮어 만든 단편소설집 『剪燈新話』가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冊板들이 개간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는 비록 중앙 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崇儒右文政策을 실현하고, 지방 자제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鄉校, 書院, 書堂 등 官學과 私學의 교육기관을 設立하고, 이러한 교육기관의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經部 서적과 성리학자들의 유학교육 관련서들을 집중적으로 간인하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교육을 위해 역사서와 시문류·예술류 등의 서적도 간인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 III. 고려시대 妙蓮社의 敎藏 간행

이 장에서는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고려시대 제주에서 개간된 敎藏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제주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의 개간처인 妙蓮社의 연혁에 대하여 알아 보고나서 『曹溪山松廣寺史庫』와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중심으로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형태사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妙蓮社의 연혁

제주도에서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조 초에 이르기 까지 창건된 사찰 중, 뚜렷하게 창건 연대가 확인된 사찰은 없다.

중종 25년(1530) 제주도내의 사찰은 15개소로서, 제주목에는 尊者庵·月溪寺·水精寺·妙蓮寺·文殊庵·海輪寺·萬壽寺·江臨寺·普門寺·逝川庵·小林寺·觀音寺 등 12개소, 旌義縣에 靈泉寺·成佛庵 등 2개소, 大靜縣에 法華寺 등 1개소<sup>47)</sup>가 있었으나, 이미 폐사되거나 훼손된 사찰이 많았다.

1578년 林悌가 지은 『南溟小乘』 2월 15일 條에는 ‘백록담을 둘러 본 후 頭陀寺로 향하였다.’고하여 雙溪庵이라 불려졌던 頭陀寺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선조 35년(1602) 『南槎錄』<sup>48)</sup>의 기록에는 水精寺는 元나라의 願刹로 고려조에 지었다고 전하고 있다.

효종 4년(1653) 도내 사찰은 19개소로서, 제주목에는 尊者庵·月溪寺·水精寺·妙蓮寺·文殊庵·海輪寺·萬壽寺·江臨寺·普門寺·逝川庵·小林寺·觀音寺·安心寺·郭支寺·元堂寺·頓水庵 등 16개소, 旌義縣에는 靈泉寺·成佛庵 등 2개소, 大靜縣에는 尊者庵(濟州牧과 동일함)·法華寺·窟庵 등 1(2)개소<sup>49)</sup>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폐사된 사찰

47)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濟州牧·旌義縣·大靜縣 佛宇 (條).

48) 金相憲, 『南槎錄』, 木版本, 규장각 소장, 十八日 壬午 (條) : .....按水精寺 在郭支岳西距州十五里 卽元時皇后 所 翊願刹 制頗宏麗. ; 1601년 제주에서 일어난 길운절(吉雲節)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金相憲(金相憲)을 안무어사로 임명하여 8월 1일에 파견하였다. 10일 서울을 떠나 21일 해남을 출발 애월방 호소로 상륙하였다. 이듬해 1월 24일 조천관을 통해 제주를 떠날 때까지 제주도를 살펴보면서, 임금의 뜻을 전하며 보고 느낀 것을 일기 형식으로 쓴 자료가 『南槎錄』이다.

49) 李元鎮, 『耽羅志』, (1653년), 濟州牧, 旌義縣·大靜縣 佛宇 (條).

이 月溪寺·妙蓮寺·郭支寺·法華寺 등 4개소였다고 하여, 이미 1653년에는 妙蓮寺가 월계사·곽지사·법화사와 함께 폐사되어 겨우 사찰 명맥만 유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 언제 불교가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제주도내에 현존하는 사찰 중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은 妙蓮寺를 포함 法華寺·水精寺·尊者庵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정사는 元의 원찰로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이외의 사찰에 대하여는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법화사인 경우 중창불사가 원종 10년~충렬왕 5년(1269~79년)”<sup>50)</sup>까지 이뤄졌으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법화사 불상은 元나라 良工이 제작하였다하여 靑銅彌陀三尊佛像을 태종 6년(1406) 7월에 明나라로 강제 이운”<sup>51)</sup>해 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법화사는 비보사찰로서 태종 8년(1408)에는 노비가 280여명에 이를 만큼 사세가 컸었으나, 억불숭유 정책에 밀려 점차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水精寺에도 노비 130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妙蓮社와 동일하게 寺名이 法華社·精社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妙蓮社에서는 법화사 중창(1269~79) 후 17년이 지난 충렬왕 22년(1296)에 『金光明經文句』가 판각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법화사와 같은 사운을 맞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창건 시기에 대하여도 고려조에 많은 비보사찰들이 건립된 것으로 보아 고려조에 창건된 것으로 유추된다.

妙蓮社는 조선조에 와서 관찬기록에 妙蓮寺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여말선초에 ‘社’에서 ‘寺’로 사호가 변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530년에 간행된 이 지지에는 妙蓮寺는 제주목 서남쪽 25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려의 승려로 알려진 慧日이 妙蓮寺에서 지은 다음의 시 한수가 전한다.

南荒天氣喜頻陰 탐라의 일기는 참으로 알 수가 없네

50) 西歸浦市,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서울:大明企劃, 1998), p. 28. 至元六年己巳始.....始重創十六年己卯畢.(銘文瓦片).

51) 『朝鮮王朝實錄』, 太宗 六年 四月 二十日 庚辰(條): 上至館設宴 酒酣 儼 辭以醉 先入室 帖木兒 曰 濟州 法華寺 彌陀三尊 元 朝時良工所鑄也 某等當徑往取之 上戲曰 固當 但恐水入耳 帖木兒 等皆大笑.

此夕新晴洗客心 오늘 저녁에는 나그네 마음을 씻길 수 있을지  
 一夢人生榮與悴 인생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  
 中秋月色古猶今 한가위 달빛만 변함이 없네  
 迢臨渺渺煙汀闊 멀리 보이는 물가의 연기를 바라보며  
 斜影沈沈竹屋深 그림자 비껴 선 집을 찾아 가는 길  
 賞到夜闌清入思 난간에 기대인 마음을 기다리면서  
 不禁頭側動微吟 가만히 혼자서 法悅을 읊조리네<sup>52)</sup>

이 “시를 남긴 혜일 스님이 어느 시기에 묘련사를 찾았는지에 대하여는 미상이나, 도내 사찰 여러 곳을 순례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 문종 원년(1047) 6월에 국사가 된 같은 이름의 慧日(決凝 964~1053)<sup>53)</sup> 스님이 있으며, 또한 충숙왕 후8년(1339) 『三十分功德疏經』을 판각한 慧日<sup>54)</sup> 스님이 있었다.”<sup>55)</sup>

『耽羅志』에는 “妙蓮寺가 제주목 서남쪽 20리에 있으나 지금은 폐사되어 있다.”<sup>56)</sup>고 기록되어 있고, 숙종 29년(1703) 당시 제주목사 李源祚가 지은 『耽羅志草本』에는 “妙蓮寺가 ‘곽지악’(오름) 서쪽에 있다.”<sup>57)</sup>고 하였다. 이로 보아 제주목의 서남쪽 20여리는 지금의 제주시 서쪽 도근천 주변으로 보이며, 곽지악은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에 있다. 현재 妙蓮社址로 전해지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774번지 주변 大覺寺가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 2. 『金光明經文句』의 간행

52)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濟州牧 佛宇 (條) : 妙蓮寺 在州西南二十五里。僧 慧日 詩 南荒天氣喜頻陰 此夕新晴洗客心 一夢人生榮與悴 中秋月色古猶今 迢臨渺渺煙汀闊 斜影沈沈竹屋深 賞到夜闌清入思 不禁頭側動微吟。

53) 『高麗史』, 世家, 文宗 丁亥 元年 六月 乙卯 (條) : 王 率公卿大夫 如奉恩寺 以王師決凝 爲國師. 혜일의 法名은 決凝이다. 고려 초기의 僧侶로서 姓 은 金이며 字 慧日 시호는 圓融으로 溟州태생이다. 12살에 龍興寺에서 출가하여, 福興寺에서 具足戒를 받았으며, 991년(성종 8년)에 僧科에 합격하여 大德 법계를 받았다. 1041년(정종 7년)에 王師가 되었고 1047년 6월에 國師가 되었다.

54) 慧日 : 1339년(忠肅王 8년)에 晳時雨와 鄭公衍이 시주하여 南永臣의 글을 쓴 『三十分功德疏經』을 僧侶 慧日이 새겨서 간행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소장).

55) 윤봉택, 『耽羅文化』 제29호 (2006), p. 201~203.

56) 李元鎮, 『耽羅志』, (1653년), 濟州牧 佛宇 (條) : 妙蓮寺 在州西二十里.

57) \_\_\_\_\_, 濟州 佛宇 (條) : 妙蓮寺 在郭支岳西.

고려 충렬왕 22년(1296) 제주 묘련사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에서 개간된 판본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이다. 이 『金光明經文句』는 호국경전의 하나인 『金光明經』을 천태종의 開祖인 天台智者(陳, 538~598)대사가 번역한 주석서로서, 이러한 호국경전이 元의 지배 하에 있었던 시기에 탐라에서 개간된 것이다.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첫 기록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는 『曹溪山松廣寺史庫』이며, 금광명경문구에 대하여 형태적으로 기록하고 인본의 권수와 권말 등 3板을 인화·편집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이 있다.<sup>58)</sup>”

『曹溪山松廣寺史庫』는 韓紙 墨書로 筆寫된 淨書稿本이며 4권 4책으로 1934년에 편집되었고, “지금까지 확인된 寺刹 간행 史庫 중 편집과 내용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서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황지이며 紅絲로 6침 되어 있다. 표제는 曹溪山松廣寺史庫, 규격은 가로 29cm, 세로 48cm이다. 내용은 界板에서 찍어낸 인지에 목서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建物部·人物部·山林部·雜部 등으로 편집되었으나, 각 부별로 편집 연대가 다르다.

‘建物部’ 편집은 1928년 10월 처음으로 당시 송광사 監務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變大師가 書寫하였다. 본문 137장으로 반엽은 11행 21자이다. 주 내용은 序, 순천군 약도, 송광사 강역도, 송광사 건물 및 각 사암 위치·평면도·사적·권화문·상량문·기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人物部’ 편집은 1929년 5월 당시 송광사 講師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變大師가 서사하였다. 본문 146장으로 반엽은 11행 19자이다. 주 내용은 行狀·비문·疏·綸音·敎書·官誥·제문·表·事蹟·記文 등 43명에 대한 기록이다.

‘山林部’ 편집은 1931년 11월 당시 송광사 監務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變大師가 서사하였다. 본문 121장으로 반엽은 11행 19자이다. 주 내용은 林野圖·지리·卦山·벌채·紛爭·特別綠故林·施業案 등에 대한 기록이다.

‘雜部’ 편집은 1934년 3월 당시 송광사 주지였던 錫珍大師가 편집을 하였고 完

---

58) 윤봉택, 『耽羅文化』 제29호 (2006. 8), p. 207.

變大師가 서사하였다. 본문 171장으로 반엽은 11행 19자이다. 주 내용은 불상·탱화·刊板·藏經·식물·序·跋·等狀·節目·完文·傳令·建物·佛糧·法齋·官文·住持系譜·書家·遭難·盜難·雜錄·題詠 등에 대한 기록이다.

제주 묘련사관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事實 기록은 雜部 32張 上에 ‘金光明經文句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라고 명기하여 1934년 3월 까지 제주 묘련사관 『金光明經文句』 卷下가 송광사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이 판본은 元貞 二年 丙寅 충렬왕 22년(1296)에 제주 묘련사에서 판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은 펜으로 쓰여 진 필사본으로 소화 13년 (1938) 6월에 당시 경성에 있던 朝鮮古蹟研究會에서 조사 편집한 단권 1책으로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반양장이며 표지면의 표제는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규격은 46倍判型(세로 26cm)이고 지질은 두꺼운 모조지로 미리 규격을 맞추어 인쇄된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주 내용을 여러 단락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을 기록한 지면은 사전에 일정한 형식의 틀을 세 개로 만들어 인쇄하여 자료를 수록하였다.

첫 단락의 내용을 수록한 형식의 형태는 반곽 사주쌍변이며 상·하로 단을 구분하였다. 상단에는 해당되는 經의 전체 사항을 표기하였고, 바로 그 아랫단으로 그 經의 명칭과 권수·책수·간략한 간기·저자 등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둘 째 단락의 내용을 수록한 형식의 형태는 반곽 사주쌍변이며 상·하로 단을 구분하고 우변에 經의 명칭과 권수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판심제처럼 하여 놓았다. 상단에는 기록사항이 없으나, 반곽 우변의 上에 ‘金光明經文句’, 그 아래로 칸을 분류하여 ‘卷下 一’, 그 아래로 칸을 분류하여 공란으로 두었고, 그 아래의 칸에는 ‘松廣寺(一三〇)’라 하여 전체를 기록한 張을 표기하고 있다. 하단에는 좌우로 칸을 나누어 상하로 經에 대한 형태적인 서지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았으며, 우변 밖의 아래에 ‘(昭和 年다 月 日記)’라 하여 이 자료 조사가 昭和 연간에 이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 째 단락은 經을 사진으로 찍어 인화한 자료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 판형식의 형태는 반곽 사주단변이며 우변에 ‘17·18’이라 하여 17과 18장에 대한 사진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張數를 표시하고 있고, 그 아래로 ‘金光明經文句卷下’ 一·表, 二四 裏(雙行 표기)라 하여 17·18장의 사진이 금광명경문구 권하의 첫 장인 卷首題와 24장에 해당하는 사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아래로 ‘13년 6월 일 촬영’이라 하여 이 經에 대한 사진 촬영이 소화 13년(1938년) 6월에 이뤄졌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우단변 밖으로는 이 자료 조사가 당시 ‘朝鮮古蹟研究會’였음을 밝히는 단체명이 인쇄되어 있다. 사진은 3×4규격으로 인화하여 상·하로 각각 붙여 놓았다. 上에는 권하의 첫 장에 해당하는 1장을 붙여 놓아 책의 권수제와 저자 등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또한 經의 가로 규격을 사진 좌상변에 표기하여 22.4cm였음을 나타내었으며, 우하변에는 이 경의 첫 장임을 나타내는 ‘一·表’ 표기가 있다. 下의 사진 우하변에는 이 사진이 經의 24장이라는 ‘二十四裏’ 표기가 있다. 사진 좌에는 각각 ‘23.7 · 23.2’라고 표기하여 전곽의 가로 규격이 약간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19장은 ‘金光明經文句疏 卷下 三一·裏’ 그 아래로 ‘13年 6月 日 撮影’ 우변 밖 아래에는 ‘(朝鮮古蹟研究會)’라 하였다. 사진은 금광명경문구 권하의 卷末題와 刊記의 부분으로 卷末에 해당하는 31장을 싣고 있다. 사진의 우하변에 경의 31장을 나타내는 ‘三十一·裏’라 하였고, 사진 좌변 우에는 ‘23.0’라 하여 전곽의 가로 길이가 23.0cm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첫 단락은 順天松廣寺藏內典錄(上) 高麗板 天順印이라 하여, 송광사에 보존된 고려판 중 天順 년간에 인출된 인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서 大般涅槃經疏를 비롯하여 마지막으로 濟州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卷下를 소개하고 있다.

둘 째 단락은 順天松廣寺藏內典錄(中) 天順重刻이라 하여, 송광사에 보존된 판각 중 天順 년간에 판각된 華嚴經論 권51-56 등의 판본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셋 째 단락은 順天松廣寺藏內典(下)라 하여, 송광사에 보존된 瑜伽師地論義演 권 15~16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단락을 달리하면서 조사된 서지 사항에 근거되는 金光明經文句 간인본의 권수·권말·중간판 등을 각각 사진으로 촬영 인화(규격 9.5cm×12cm)하여 종이에 붙여 놓았으며<sup>59)</sup>, 금광명경문구의 서지사항에 대하여는 金光明經文句 卷下 松廣寺

59)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1938년, (사진 부분, p. 17~18).



(130)로 張을 분류<sup>60)</sup>하여 이 문구에 대해 형태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態裁〕冊子 朝鮮紙裝 麻糸五所綴 大サ. 縦四〇.四 横 三〇.〇  
表紙 朝鮮白紙貼分厚紙  
題箋 金光明經文句卷下 縦18.4(題의 좌면 상부 표기) 横3.9(하단 표기)

..... 墨書 左上部

〔刊印〕木板 卷子樣板式 二十七行~十七字  
界線 天地橫界 天地間 二二.〇 - 二二.九五 左右 五四  
用紙 白朝鮮紙 ヒヅ目横 帶淡黃色 文字モ紙質モ一様ナラズ  
板尾 「金光明經文句下 九 查 金全仁」  
查以下刻手が. 刻手ノ名ノアハテトナキテトア. 二七.二八.板櫛ア

〔内容〕卷下ノ 一冊ノミ. 三十一紙

(首) 金光明經文句卷下  ← 黒抹印

天台智者大師說

(尾) 金光明經文句疏卷下 三十一 查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

宣重彫

幹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

위와 같이 『金光明經文句』卷下の 형태적 특징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충렬왕 22년(1296) 제주 妙蓮社<sup>61)</sup>에서 판각된 『金光明經文句』의 사찰판본은 현재까지 현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용된 여러 일반자료<sup>62)</sup>

60)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1938년, 〈金光明經文句 卷下 一 松廣寺(一三〇)〉.

61) 李元鎮, 『耽羅志』, (1653), 濟州 佛宇 (條): 妙蓮寺 在州南二十里.

62) ① 藤田亮策, 『書物同好會會報』第2號 (昭和 十三年), p. 35~37.

② 千惠鳳, 『韓國 書誌學』, p. 204. 제주 妙蓮社에서 동왕 22년(1296)에 간행한 『金光明經』이다. .... 뒤의 것은 章疏의 重修本으로서 〈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修 幹善瀑布寺住持禪師安立〉과 같이 續藏의 原刊記를 본 받고 있음이 특징이다.

③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版目錄總覽』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48. 金光明經

들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간인본의 사실을 형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934년에 편집된 『曹溪山松廣寺史庫』와 1938년에 편집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 근거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한 첫 기록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는 『曹溪山松廣寺史庫』이다. 『曹溪山松廣寺史庫』는 1934년에 송광사에서 작성된 稿本으로서 현전하는 사찰 사고 중 매우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하여는 ‘金光明經文句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라 하여, 송광사 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전적 중 『金光明經文句』卷下는 충렬왕 22년(元貞二年) 丙寅年(1296)에 高麗國 濟州 妙蓮社에서 重彫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sup>63)</sup>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에 대하여 형태적 특징을 설명한 자료는 1938년에 편집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이다. 이러한 자료의 근거는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편집 시에 당시 확인한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卷下에 대하여 卷首題의 1장과 24장 그리고 마지막 卷末題 등 3장의 사진 자료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형태적 특징까지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卷下는 목판본으로 전 3권(上·中·下)중 1책으로서 1296년에 판각되었으나, 현전하는 간본의 소장처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간인자료<sup>64)</sup>에 의하여 판본 상태<sup>65)</sup>를 살펴보면 卷首題의 1張은 온전하나 24張과 마지막 31張은 많이 마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 1張인 경우 당초 판본을 저본으로

---

文句疏. 卷下末 刊記：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 宣重彫.

④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1974), p. 109. 『金光明經文句解』.

⑤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曹溪山松廣寺史庫』(서울:아세아문화사, 1983), p. 777. 金光明經文句 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⑥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汎友社, 2001), p. 91. 元貞二年丙申歲(忠烈王 22, 1296)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修 幹善瀑布寺住持禪師安立과 같이 그 형식이 續藏의 元刊記를 본 받고 있음이 특징이다.

63) 윤봉택, 『耽羅文化』 제29호 (2006), p. 219.

64)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1938년, (사진 부분, p.17~18).

65) 사진자료 참조(사 1~4)

하여 補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형태적 특징<sup>66)</sup>을 살펴보면 표지는 白紙이며 麻絲로 5針되어 있고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40.4cm이다. 판식은 板首題와 板尾題 다음으로 卷次 · 張數 · 千字函次表示 순으로 되어 있어 敎藏의 예를 따르고 있다. 판식은 상하 단변 全郭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22~23cm, 세로 54cm이고 계선은 없으며 全郭은 27행으로 行字數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卷首題는 金光明經文句卷下이고 다음 향으로 論疏者를 밝히는 天台智者大師說이 있고, 다음 향으로 科文을 나타내는 釋四天王品이 있으며, 다음 향으로는 文句의 본문인 四天王者上升之元首下界之初天居半須.....라 하여 金光明經文句가 천태지자대사가 말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板尾題는 金光明經文句下이고 그 아래로 查字를 새겨 넣어 천자합차를 표시하였으며, 그 아래로 장수를 표시하고 있고 卷下の 전체 장수는 31장이다. 九張의 板尾에는 查 다음으로 金全仁이라는 人名이 각인되어 있으며, 24張의 板尾와 27~28張의 板尾에도 각수의 銘<sup>67)</sup>이 있다.

卷末에는 ..... 成無六亦無三此之謂也此大好甚廣云云이라하였고 다음 향으로 金光明經文句疏卷下라 하여 金光明經文句卷下가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아래로 三十一이라 하여 장수를 표시하였으며, 그 아래로 천자합 표시인 查字를 새겨 넣었다. 다음 향으로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라 하였고 다음 행으로 宣重彫라 하여 『金光明經文句』 卷下가 충렬왕 22년(1296) 고려국 제주 묘련사에 판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향으로는 幹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이라 하여, 당시 판각불사의 幹善<sup>68)</sup>은 瀑布寺<sup>69)</sup>의 주지였던 安立이 맡아서 주도적으로 金光明經文句가 묘련사에서 판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송광사 소장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卷下の 간인 시기는 天順 연간(1457~63년)으로 이 때에 인출<sup>70)</sup>되었고, 또한 조선조의 간경도감에서도 금광명경문구소 권3이

66)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1938년 (사진 부분 p.17~18).

67) 24張, 板尾 刻手는 守玄임.

68) 幹善 : 절에서 佛事 등을 할 때의 所任(供養主, 三綱, 書記, 持殿, 別座, 維那, 都監, 幹善主, 刻工 등)임

69) 瀑布庵(寺)로 의심됨(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용계리 금강산 내 鉢淵洞 ‘鉢淵寺’ 위에 있던 절이며 瀑布庵이라고도 함)

70) 藤田亮策,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 (昭和 十三年), p. 35~37. < .....又天順の再印本かと思はれる.

인출<sup>71)</sup>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선행 연구과정에서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의 명칭과 刊記(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 宣重彫 幹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를 인용<sup>72)</sup>하면서 내용과 다르게 표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 1934년에 편집된 『曹溪山松廣寺史庫』와 1938년에 편집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근거로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卷下는 충렬왕 22년(1296)에 고려국 제주 묘련사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로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卷下는 지금까지 고려조 제주에서 개간된 板本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金光明經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나라가 어렵거나 민심이 불안할 때 조정에서는 金光道場의 법석을 만들어 고승을 청해 법문을 들었을 정도로 매우 소중하게 여겨온 경이다. 이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변방 도서에서 護國 三部經의 하나인 金光明經을 文句한 『金光明經文句』가 판각되었다.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 卷下가 어떠한 사유로 제주에서 판각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金光明經文句』 卷下가 제주에서 판각될 시기는, 원종 14년(1273) 4월 탐라에서 항거하던 삼별초가 고려와 元의 연합군에 의하여 섬멸된 지 24년이 지난 후로서 元의 수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였다.

일반적으로 寺庵에서 佛經 등을 판각할 때에는 당시 해당 사암의 宗風이나 또

---

71) 김무봉,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제23집 (2004. 1), p. 380.

72) ① 藤田亮策,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 (昭和 十三年), p. 35~37.

② 千惠鳳, 『韓國 書誌學』 (2004), p. 204. 제주 妙蓮社에서 동왕 22년(1296)에 간행한 『金光明經』이다. .... 뒤의 것은 章疏의 重修本으로서 〈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修 幹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과 같이 續藏의 原刊記를 본 받고 있음이 특징이다.

③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版目錄總覽』 (1979), p.48. 金光明經 文句疏. 卷下末: 刊記「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 宣重彫」.

④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1974), p. 109. 『金光明經文句解』.

⑤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曹溪山松廣寺史庫』 (1983), p. 777. 金光明經文句 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⑥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2001), p. 91. 元貞二年丙申歲(忠烈王 22, 1296)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修 幹善瀑布寺住持禪師安立과 같이 그 형식이 續藏의 元刊記를 본 받고 있음이 특징이다.

는 宗徒들의 信仰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佛經의 開板은 먼저 그 사찰 주변에 풍부한 板材와 그 판재를 연관할 인적 자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당시 제주 묘련사의 『金光明經文句』판각은 13세기에 元과 고려에 궁궐·선박 건조에 필요한 많은 양의 판재를 공출한 것으로 보아 풍부한 板材 자원이 많았음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1296년 제주 묘련사에서 『金光明經文句』 판각 의미는 元의 지배 하에 있던 당시의 妙蓮社의 宗風과 제주인의 信仰觀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제주에서 판본을 연관할 정도의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제주사회의 출판문화와 지식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 IV.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물 분석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현전본을 중심으로 할 때, 태종 18년(1418) 3월에 관각된 『禮記淺見錄』<sup>73)</sup>을 시작으로 19세기까지 제주목에서는 꾸준히 책판이 개간·인출되어 지방 자제들의 교육용으로 쓰여 졌고, 또한 중앙에 보내지거나 타 지역으로 이송되었다. 본 장에서는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 『冊板目錄』과 문헌자료의 『冊版庫 目錄』 등에 나타난 출판물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현존본 실물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冊板目錄』의 분석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목록이 기록된 자료로는 『攷事撮要』,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鏤板攷』 등이 있다.

『攷事撮要』는 명종 9년(1554)에 魚叔權이 편찬한 類書이다. 본서는 原撰된 후, 영조47년(1771) 徐明膺에 의해 攷事新書로 대폭 개정증보 되기 이전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이뤄<sup>74)</sup>졌다. 현재 원찬본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선조18년(1585)에 간행된 목판본<sup>75)</sup>을 영인한 자료를 인용하고자 한다.

본 『攷事撮要』의 八道程途 全羅道 十一日半程 濟州(條)에서는 “제주목의 책판에 대하여는 『東國史畧』, 『浣花流水』”<sup>76)</sup> 등 2종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古冊板有處攷』는 “1책 29장에 7개 도를 다시 고을 별로 나눈 다음 책판을 기록한 것으로 편자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책이 첫 머리에 ‘海東地志三十五冊中記載 姜世晃豹庵時代寫本’이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海東地志』에 수록된 책판에 관한 기록을 간추려 모은 것임을 알 수 있다. 『海東地志』는 豹庵 姜世晃(1713~17

73)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板本(癸未字覆刻) 26卷, 1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四周單邊 半郭 22.8 ×14.4 cm, 有界, 8行17字, 小字雙行, 間混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7 ×17.7 cm, 序 : 淺見錄序 ; 永樂五年(1407)…河崙, 集說序 : 至治壬戌(1322)…陳澹, 跋 : 永樂十六年(1418)戊戌…河澹. 濟州.

74) 金致雨, 『攷事撮要의 冊板目錄 研究』 (부산:도서출판 민족문화, 1983), p. 7.

75) 『攷事撮要』, 木版本, 2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8개도 119지방 989종의 책판이 기록되어 있다.).

76)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1995) (上), p. 105. 『攷事撮要』 : 八道程途 全羅道 十一日半程 濟州 (條) ; .....冊板東國史畧 浣花流水.

76)시대의 필사본으로 내용이 各人各筆이고 題簽은 豹庵의 親筆임을 宋錫夏 舊藏本인 原鈔本이 밝혀 주고 있다.”<sup>77)</sup> 그러므로 이 地志에서 傳載한 冊板은 姜世晃의 생존한 英祖代까지의 것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책판목록의 傳寫本은 尹炳泰도 소장하고 있다.<sup>78)</sup> 이로 미루어 『古冊板有處攷』는 姜世晃(1713~1776)이 죽은 영조 52년(1776)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sup>79)</sup>된다. 본 고에서는 정형우·윤병태가 편찬한 『韓國의冊板目錄』<sup>80)</sup>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인용하였다. 『古冊板有處攷』에는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濟州島), 慶尙道, 江原道, 黃海道, 咸鏡道 등 전국 7도에 보관되어 있는 책판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濟州島에 관한 책판목록 수록은 全羅道の 羅州郡·光州郡의 다음으로 濟州島에 대한 책판목록을 기록하였다. 全羅道 濟州島(條)에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具諺解板各一秩, 宣廟御筆草書板,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板, 新增類合, 春種書類, 顏眞卿書, 敬齋箴書, 石峰書, 雪峰書, 篆字板, 太公事筆板, 出師表, 草書大字中字, 板地圖, 馬醫,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板各一秩具, 大靜縣(條) 史略 初板一件 등 35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林園十六志』는 113권 52책 필사본으로 조선 후기에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이다. 전체 열여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林園十六志』 또는 『林園經濟志』라 한다. 순조 때의 실학자 徐有渠(1764~1845)가 만년에 저술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긴요한 일을 살펴보고 이를 알리고자 하여 『山林經濟』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저서 900여 종을 참고 인용하여 엮어낸 농업 위주의 백과사전으로서, 정조 20년(1796) 이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용은 本利志 13권, 灌畦志 4권, 藝畹志 5권, 晚學志 5권, 展功志 5권, 魏鮮志 4권, 佃漁志 4권, 鼎俎志 7권, 贍用志 4권, 葆養志 8권, 仁濟志 28권, 鄉禮志 5권, 游藝志 6권, 怡雲志 8권, 相宅志 2권, 倪圭志 5권 등 16부분으로 되어

77) 千慧鳳 解題, 「古冊板所在攷 寫本 舊石南藏」, 『古書目錄集成』 (서울:동국대학교도서관, 1962), p. 333~334.

78) 安美璟, 「朝鮮時代 千字文 刊印本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28.

79) 南權熙, 『古印刷文化』 8집 (2001), p. 226.

80)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冊板目錄』 下 (1995), p. 769~770. 『古冊板有處攷』: 全羅道 濟州島(條).

있다. 이 방대한 저술은 농업기술과 농업경제의 양면에서 종전의 농업이 크게 개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향촌에서의 생활 전반을 시대적 조건과 관련시켜 정연하게 정리한 실학서이다. 책판목록은 『林園十六志』 卷百五 怡雲志 卷七에 수록되어 있다.<sup>81)</sup> 〈經類〉 三經四書大全(九十卷), 禮記淺見錄(二十六卷), 喪禮備要(二卷), 疑禮問解(四卷), 疑禮問解續解(一卷), 增補三韻通考(一卷), 〈史類〉 三國誌(六十五卷), 通鑑節要(五十卷), 十九史略通考(八卷), 耽羅志(一卷), 〈子類〉 小學集說(六卷), 擊蒙要訣(二卷), 三略直解(三卷), 兵學指南(五卷), 〈集類〉 密山世稿(二卷) 등 15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經類〉 三經四書大全(九十卷), 疑禮問解(四卷), 疑禮問解續解(一卷), 增補三韻通考(一卷), 三略直解(三卷) 등 5책이 누락되었다.

『鏤板考』<sup>82)</sup>는 필사본으로 7권 3책이다. 정조 2년(1778) 전국 관아를 비롯 관가, 사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의 판본을 중앙에 보고토록 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규장각에서 정리한 것이며, 정조 20년(1796) 규장각 관원이었던 徐有渠에 의하여 종합 분류 목록화한 책이다. 『鏤板考』의 제주목 책판에 관한 기록은 卷二 經部 禮類 條에 禮記淺見錄 二十六卷, 喪禮備要 二卷, 疑禮問解四卷 續解, 小學類 條에 增補三韻通考 一卷, 卷三 史部 通史類에 三國誌六十五卷, 通鑑節要 五十卷, 十九史略通考 八卷, 耽羅志 一卷, 卷四, 子部 上 儒家類 條에 小學集說 六卷, 童蒙先習 一卷, 擊蒙要訣 二卷, 兵家類에 三略三卷, 兵學指南 五卷, 雜纂類에 千字文 一卷, 卷六, 集部 總集類 條에 密山世稿, 嶺海唱酬錄 등이 있으며, 이 중 『嶺海唱酬錄』<sup>83)</sup>의 간인본이 남아 있다. 책판목록은 鏤板考券第二(經部 上) 禮類 雜禮書 17部 中 禮記淺見錄 二十六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二十三牒八張, 喪禮備要 二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二牒十二張, 疑禮問解 四卷 · 續解 一卷 : 濟州牧藏 印紙七牒一張, 小學類 5部 中 增補三韻通考 一卷 : 濟州牧藏 印紙二牒一張. 鏤板考券第三(史部) 通史類 11部 中 三國志 六十五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二十五牒一張, 通鑑節要 五十卷 : 濟州牧

81) 정형우, 윤병태가 편찬한 『한국의책판목록』의 『林園十六志』를 인용하였다.

82) 徐有渠 著, 李鍾萬 編, 洪命喜, 『鏤板考』, 영인본(필사본), 전7권 3책, (서울:大同出版社, 1941).

83) 朴星錫(朝鮮)編, 李世成(朝鮮)監, 高福星(朝鮮) 校, 『嶺海唱酬錄』, 木版本, 규장각 소장, 1701년(肅宗 27年), 序, 後刷, 1冊(63張) : 四周單邊, 半葉匡郭: 22.2×17 cm, 有界, 10行18字, 版心 : 上下內向花紋魚尾 ; 34×22 cm. 序 : 歲在辛巳(1701)…南九萬. 刊記 : 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 附錄 : 濯白唱酬錄.



藏 刊缺 印紙三十牒二張, 十九史略通考 八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十七牒十張, 掌故類 地理 등 12部 中 耽羅志 一卷 : 濟州牧藏 印紙二牒一片(李翊漢). 鏤板考券第四(子部 上) 儒家類 41部 中 小學集說 六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八牒八張, 童蒙先習 一卷 : 濟州牧藏 印紙八張, 擊蒙要訣 二卷 : 濟州牧藏 印紙一牒六張, 兵家類 15部 中 三略 三卷 : 濟州牧藏 印紙一牒七張, 兵學指南 五卷 : 濟州牧藏 印紙二牒七張, 雜纂類 3部 中 千字文 一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一牒一張. 鏤板考券第六(集部 上) 總集類 密山世稿 : 濟州牧藏印紙一牒十二張(朴忠元 卷6-5전), 嶺海唱酬錄 : 濟州牧藏印紙一牒十六張(朴忠元 권6-5후) 등 16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17종이라 하였다.

## 2. 문헌자료의 「冊版庫 目錄」 분석

조선조 제주목의 「冊版庫」에 보존되었던 「冊板目錄」 및 書板目錄 자료가 수록된 문헌으로는 『耽羅志』, 『南槎日錄』, 『知瀛錄』,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이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南槎日錄』,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의 「冊版庫 目錄」에 대한 자료가 없다.

『耽羅志』는 목판본으로 단권 1책의 지리지이며 1653년에 간행되었다. 간본은 국내 여러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耽羅志』의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黃紙紅絲로 되어 있고 表題는 耽羅志, 규격은 가로 23cm, 세로 35.4cm이다. 변란은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으며, 半郭의 크기는 가로 16.9cm, 세로 25cm이고, 界線이 있다. 半葉은 8行으로 行字數는 20字씩 배자되어 있다. 版心題는 耽羅志이며 그 아래로 張數 표시가 있고, 魚尾는 上下內向二葉花紋黑魚尾이다. 卷首題는 耽羅志이고 다음 行으로 三邑의 표시를 알리는 '濟州' 세 번째 行에는 建置沿革 條로 이어지며, 張數는 81張이다. 卷末에는 '耽羅志 終, 이며 다음으로 '耽羅一域僻處海外三姓神人之耽羅一域 .....尾遂不敢辭敬爲之跋' 다음 行으로 '癸巳季秋上澣 平城後人申纘謹跋'이라 하여 『耽羅志』가 1653년 가을에 李元鎮에 의해 제주목에서 판각 인출되었다는 申纘의 발문이 있다. 『耽羅志』의 저자 李元鎮(1594~1665)은 문신으로서, 본은 驪州, 자는 昇卿, 호는 太湖·漁隱이다. 광해군 4년(1612)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15년 인목대비의 폐모론과 관련하여 귀양 갔다가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인조 11년(1633) 홍문관 수찬이 되었고, 1635년 순천부사, 인조 22년(1644) 동래부사, 1649년 강원감사, 효종 2년(1651) 6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653년 10월에 이임하였다. 재임 시에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표류해 오기도 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었다. 『耽羅志』는 李元鎮이 이임하던 1653년 『東國輿地勝覽』을 참고로 하여 찬술되었다. 발문은 당시 濟州鄉校 教授였던 申纘이 썼다. 발문에서 申纘은 『耽羅志』의 자료 정리는 冲庵의 『風土錄』에서 중요한 것을 취하고 각기 문헌 등 자료를 인용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고 했다. 다음은 발문 중 관련 내용이다.

지금 李太湖 漁隱공이 제주목에 부임한 이래 民風을 상고하고 俗情을 살핀 다음 圖籍을 보니 嚮당무계함을 개탄하고 고을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근심하였다. 이에 『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하여 고을의 자취를 살피고 또한 본 기록에 누락된 것을 모아 한편의 책으로 엮어 내었다. 그러면서 冲庵의 『風土錄』에서는 중요한 것을 취하였다. 使客의 樓觀에 대한 題詠은 그 화려한 것은 수집하되, 번잡한 것은 추스리고 간명한 것은 헤아려 이것을 길이 전하고자 匠人들을 모아 판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士人 高弘盡<sup>84)</sup>에게 명하여 감독과 교정을 맞게 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목판이 완성되었다. 목판이 완성되자 初印한 후 冊版은 校宮에 비치하여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이후로부터 이 고을의 일을 알고자한다면 이 『耽羅志』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고금의 사실을 널리 수집하여 가려낸 후 미미한 것 까지 살폈으니, 이 고을의 인물과 旌義縣 · 大靜縣의 산천을 비롯하여 명승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1653년(癸巳) 9월 상순에 平城 後人 申纘<sup>85)</sup>이 삼가 跋을 쓰다.<sup>86)</sup>

84) 高弘進은 제주 출신이다. 선조 35년(1602)에 태어났다. 본관은 濟州, 字는 退而이다. 현종 7년(1666)에 丙科에 급제하였다. 濟州牧의 教授와 성균관 典籍을 지냈다.

85) 申纘 (1613~?)의 본관은 平山, 字는 子述, 효종 2년(1651)에 式年試에 丙科2로 합격하였으며 察訪을 지냈다.

86)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耽羅志 終 耽羅一域僻處海外三姓神人之前遯矣不可詳已 自羅迄麗千有餘年間偉人碩士往往間出蜚英藝 花接武昭代而類占遷喬之進率爲揚庭之臣故若 人苗裔之璫紳者鮮有居士厥後聞人之作漸不逮 於古此邦文獻之無徵者蓋以是也前此州府雖有 耽羅之記而撰焉不精略焉不詳者舊無所傳後生 無所考豈非斯州之一大欠乎今者李太湖漁隱公 刺州以來考民風察俗情慨圖籍之無稽愍鄉氓之 營識於是取輿地勝覽究其往蹟又采本記之闕遺 者述爲一編之書而冲庵風土之錄撮其要者使客 樓觀之詠掇其華者刪煩就簡謀壽其傳鳩工鉅梓 而受命士 高弘進監校其役閱旬月而告訖頒印 之後置板於學宮以爲鄉人之傳覽自茲以後欲知 是州之事者觀此志足矣蒐羅今古剔抉眇微一州 人物之衆二縣山川之勝無不備述不惟爲士者得 稽往古之事跡抑亦爲後來觀風之一助然則公之 述是記者其有惠於遐壤而開牖於輿俗者不亦大 矣乎于斯時也公以秩滿解歸而徵余不肖口贊卷 尾遂不敢辭敬爲之跋 癸巳季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耽羅志』는 李元鎮이 1651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 후 제주목을 순력하고 난 후, 『東國輿地勝覽』을 참고로 하여 제주목의 제반 자료를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임 26개월여 동안 자료를 정리한 것임이 나타난다. 그 후 도내 장인을 모아 책판을 판각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감독 및 교정은 제주 선비였던 高弘進<sup>87)</sup>이 담당하였다. 목판의 판각은 한달 여 만에 완성이 되었다. 완성된 책판으로 初印本을 인출한 李元鎮은 책판을 제주향교 내에 보관하게 하여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耽羅志』의 책판은 숙종 3년(1677)에 화마<sup>88)</sup>로 일부 소실이 되었다. 『耽羅志』의 濟州牧 倉庫 條에는 司倉, 東別倉, 西別倉, 常平倉, 歸厚倉, 紫電庫, 淸霜庫, 息波庫, 朝天庫, 別防庫, 涯月庫, 明月庫, 火藥庫, 戶籍庫, 州司, 營繕, 氷庫, 冊版庫, 旗幟庫, 獄 등 20개의 창고가 있고, 이 ‘倉庫’ 條에 ‘冊版庫’가 있다. 당시 ‘冊版庫’는 제주목 내에 있는 濟州鄉校에 있었으며,<sup>89)</sup> 冊版庫에 보존되어 있는 冊板類는 34종, 書板類는 7종 등 총 41종이다.

『耽羅志』‘冊版庫’에서 특이한 것은 책판을 책판류와 서판류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책판목록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구분된 서판류는 子部 중 藝術類에 속하는 것을 서판류로 분류하였음을 볼 수가 있으며, 책판목록 중 冊板類는 書傳大文, 詩傳大文,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孝經, 中庸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十九史略, 唐詩絕句, 三韻通考, 將鑑博議, 玉壺冰, 牧民心鑑, 兵學指南, 剪燈新話, 千字, 圃隱集, 冲庵集, 東溟集, 續青丘風雅抄, 家禮, 童子習, 童蒙先習, 類合, 正俗, 擊蒙要訣, 救急方, 經驗方, 馬牛方, 耽羅志(1653년간). 書板類는 春種, 赤壁賦, 藤王閣序, 浣花流水, 草千字, 退溪書, 聽蟬書 등 34종의 책판과 7종의 서판 등 총 41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秋上瀚平城後人申繼謹跋.

87) 高弘進은 1602~1682 조선조 문신, 자는 退而, 본관은 제주, 제주시 이호동에서 고정순(高定舜)의 셋째 아들로 출생하여 어려서 학문을 쌓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주목사 李元鎮과 함께 靈洲誌·고려사·탐라사기 등 각종 문헌을 탐구 고증하였고, 효종 4년(1653) 8월에 목판으로 탐라지를 편찬 간행에 감독 및 교정을 맡았다. 1664년 문과에 급제하여 1666년 성균관의 式年榜에, 다시 문과 급제하여 성균관 진적이 되었다가 수년 후 귀향하였다.

88)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997), 公廨 (條) : 冊版庫 丁巳(1677)失火諸冊板燒云.

89) 李元鎮, 『耽羅志』, (1653년), 倉庫 (條) : 冊版庫 在鄉校 …… 聽蟬書.

『南槎日錄』은 稿本으로서 단권 1책이며 1680년대에 筆寫되었다. 개인소장이다. 책의 첫 장에는 서문 없이 바로 卷首題로 이어지고 있다. 卷首題는 南槎日錄으로 되어 있고, 다음 행으로는 己未八月濟州牧使 ...으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張數는 136張이며, 卷末에는 義州府尹李公碣銘으로 噫噫奈何로 마치고 있다. 『南槎日錄』의 저자인 李增(1628~1686)은 문신으로서, 본은 全州, 자는 成大이며 양녕대군의 8세손이다. 현종 3년(1662) 생진과에 급제하였고, 숙종 5년(1679) 8월에 제주목에서 前목사와 정의현감의 비행이 드러나 조정에서는 李增을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임명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南槎日錄』은 李增이 1679년 9월 16일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임명되어 1680년 4월 4일 이도할 때 까지 5개월 동안 행적을 청음의 『南槎錄』에 따라 일기체 형식으로 엮어낸 고본이다.

李增은 제주목을 순력하면서 1680. 2. 7일 제주목의 관아 건물을 용도별로 기록하였다. 책판고에 대하여는 “丁巳年(숙종 3년, 1677) 화재 때에 모든 冊板이 소실”<sup>90)</sup>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耽羅志』에 수록된 책판고 소장 판본 41종은 丁巳年 화재 때 대부분 소실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知瀛錄』은 筆寫本으로 단권 1책이며 1696년에 筆寫되었다. 본서는 국립제주박물관에 있다. 『知瀛錄』의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黃紙紅絲로 線裝되어 있으며, 表題는 知瀛錄, 규격은 가로 17.6cm, 세로 26.4cm이다. 첫장에는 지영록 서문이 있고, 다음 행으로는 圓嶠一域卽海中 ....丙子(1696년)暮春 行節制使延安後人書于臥仙閣으로 되어 있다. 卷首題는 知瀛錄으로 되어 있고, 다음 행으로는 甲戌五月余在韓山 ...으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후에 부록 형식으로 숙종대의 외국인 漂流關聯記錄이 수록 되어 있으며, 張數는 111張이다. 卷末에는 표류기의 기록으로 同年十月二十七日防船也로 마치고 있다. 『知瀛錄』의 저자인 李益泰(1633~1704)는 문신으로서, 본은 延安, 자는 大裕, 호는 治溪이다. 현종 1년(1600) 司馬試의 초시·복시에 합격하였으며, 1770년 吏曹佐郎, 현종 12년(1671)에 외직인 함경도 高山察訪에 임명되었다. 숙종 7년(1681)에 공주목사, 1687년에 서산 郡守, 숙종 20년(1694) 同副承旨, 62세가 되던 같은 해 5월 26일에 제주목사로 임명되어 숙종 22년(1696) 2월에 遞去되고, 1703년 병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2년간

90)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997), 公廨 (條) : 冊版庫 丁巳失火諸冊板□燒云.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한라산에 두 번 등정할 만큼 巡歷을 하였다. 관덕정과 운주당 등을 중창하였고, 耽羅十景을 선정하여 畫屏으로 耽羅十景圖를 남겼다. 『知瀛錄』은 이익태가 제주목사에 제수를 받고 난 후 임기를 다하고 체거될 때까지 2년 동안 기록한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冲庵의 『風土記』, 청음의 『南槎錄』, 임제의 『南溟小乘』, 이원진의 『耽羅志』를 살펴보면서 재임기간 동안 기록하여 놓은 일기에 謄錄을 첨삭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여 편집하고 書名을 『知瀛錄』이라 하였다. 처음에 한 책으로 2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주목에 비치하고 하나는 이임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지금의 『知瀛錄』은 후자의 것으로 판단되며, 그의 9대손(完熙)이 보존하여 오다가 2002년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李益泰 목사에 의하여 당시 제주목에서 새롭게 조성한 책판류는 『小學』, 『諺解喪禮備要』 등이다. 이 중 『諺解喪禮備要』와 『小學』은 지방 교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또한 『宣廟御筆大字草書』 8첩을 판각 보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당시 화재 이후 四書와 『諺解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 일부 책판만이 새롭게 판각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耽羅志』의 冊版庫나 『知瀛錄』의 기록에는 없으나,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冊版類는 4冊이 확인되었으며 『知瀛錄』에 수록된 冊板類는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諺解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小學, 諺解喪禮備要, 宣廟御筆大字草書 등 10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耽羅誌草本』<sup>91)</sup>은 稿本으로 전4권 1책으로 1841년에 편찬되었다. 耽羅誌草本의 卷首題는 耽羅誌卷之一이고 다음 行으로 三邑의 표시를 알리는 ‘濟州’ 세 번째 行에는 建置沿革 條로 이어지고 있다. 卷二의 分卷은 자세하지가 않다. 卷三은 奇聞 條에서 시작된다. 卷四는 旌義 條부터 시작되며 卷末題 없이 官案 條의 마지막으로 高性奎에서 마치고 있으며 발문 등은 없다. 『耽羅誌草本』을 남긴 李源祚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1792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星山, 초명은 李永祚, 자는 周賢, 호는 毫宇, 凝窩이며 시호는 定憲으로 1871년에 사망하였다. 순조 9년(1809)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1812년 권지 승문원 정자에 임명된 이후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예부 감찰, 예조·병조 좌랑, 정언 등을 거쳐, 1840년 강릉 부사, 1841년 제주 목사가 되었다. 그 이후 형조 참의와 춘추관 편수관, 우부승지

91) 李源祚 編纂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편집, 『耽羅誌草本』, 筆寫本(영인본), 1841년간,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p. 140.

· 좌승지, 대사간, 좌승지 겸 상의원 부제조, 경연 참찬관, 병조참판, 한성부 판윤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용양위 대호군 겸 지의금부사·지춘추관사, 공조 판서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凝窩文集』, 『性經』, 『凝窩雜錄』, 『布川誌』, 『布川圖誌』, 『武夷圖誌』, 『耽羅錄』, 『耽羅誌草本』, 『耽羅關報錄』, 『耽羅啓錄』 등이 있다. 『耽羅誌草本』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헌종 7년(1841) 3월 부임하여 1843년 6월 이임할 때 까지 제주도의 역사·지리·인물 등에 대하여 이원진의 『耽羅志』(1653년)를 저본으로 하여 기록한 초고본이다. 『耽羅誌草本』의 濟州牧 倉庫 條에는 賑恤倉, 補民倉, 雇馬庫, 牧子庫, 鑄役庫, 覃恩庫, 司倉, 萬戶倉, 平役庫, 場稅庫, 戶籍庫, 營繕庫, 火藥庫, 紫電庫, 息波庫, 朝天庫, 明月庫, 旗幟庫, 冊版庫 등 19개의 창고가 있고, 이 ‘倉庫’ 條에 冊版庫가 있다. 당시 “冊版庫는 제주목의 城 남쪽”<sup>92)</sup>에 있었으며, 冊版庫에 보존되어 있는 冊版類는 37종으로서,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sup>93)</sup> 密山世稿 玉壺冰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峰帖 雪峰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책판이 훼손되어 찍어 낼 수 있는 판이 얼마 되지 않았다.”<sup>94)</sup>하였다. 冊板目錄은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sup>95)</sup>, 密山世稿, 玉壺冰,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峰帖, 雪峰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등 36종의 책판 목록 사실과 소장된 책판 대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濟州邑誌』는 단권 1책이며 필사본으로 편찬 시기는 미상이나 正祖 연간에 조사된 읍지의 後寫本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규장각 소장본으로 실사하였다. 형태적 특

92) 李源祚 編纂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편집), 『耽羅誌草本』, 筆寫本(영인본), 1841년간, (1989), p. 140. 倉庫 (條) : 冊版庫 在南城內.

93) 『嶺海唱酬錄』,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濟州營, 肅宗27年(1701), 刊記: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 附錄:濯白唱酬錄.

94) 李源祚 編纂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편집), 『耽羅誌草本』, 筆寫本(영인본), 1841년간, (1989), p. 140. 倉庫 (條) : 冊版庫 在南城內 論語 .... 捷解新語 諸板太半朽剝又多口失可印者少.

95) 『嶺海唱酬錄』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濟州營, 肅宗27年(1701).

정으로는 表題는 濟州邑誌, 규격은 가로 18.5cm, 세로 29.8cm이다. 卷首題는 濟州邑誌이고 다음 행으로 濟州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張數는 38張이다. 내용은 濟州邑誌, 大靜縣誌, 旌義縣誌 순으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卷末題 없이 정의현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데, ‘冊板 無’이다. 본 邑誌에는 다른 자료와는 달리 三邑(濟州·大靜·旌義)에 대해 각각 책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제주읍의 冊版庫<sup>96)</sup>는 관덕정 동쪽에 있었다. 冊板에 대한 기록은 濟州邑의 내용 말미에 冊板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주읍에 보관된 책판으로는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具諺解 板各一秩 宣廟御筆草書板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板 新增類合 春種書 顏眞卿書 敬齊箴書 石峯書 雪峯書 篆字板 太公口筆板 出師表 草書大字中字板 地圖 馬醫 兵學指南 三略 焰焰新方 捷解新語<sup>97)</sup>’ 등 36종이 있었으나, 모두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大靜縣에는 책판이 “史略 初卷板 일건<sup>98)</sup>이 있었으며, “旌義縣에는 冊板<sup>99)</sup>이 없었다. 책판목록은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 新增類合, 春種書, 顏眞卿書, 敬齊箴書, 石峯書, 雪峯書, 篆字板, 太公口筆, 出師表, 草書大字中字, 地圖, 馬醫, 兵學指南, 三略, 焰焰新方, 捷解新語. 大靜縣 冊版庫 史略(初卷板) 등 36종의 책판 목록 사실과 소장되어 있는 책판 대부분이 훼손되어 인출하기가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고, 대정현 책판고에 史略 初卷板이 보존된 것으로 보아 현에서도 책판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는 단권 1책이며 필사본으로 “편찬 시기는 미상이나 1793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sup>100)</sup>되고 있으며 규장각 소장본으로 실사하였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表題는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규격은 가로 22cm, 세로 31.8cm이다. 표지 다음으로 내지에는 濟州大靜旌義라 하였고, 다음 장으로 卷首題

96)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濟州邑 倉庫 冊版庫 (條) : 在觀德亭東.

97)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濟州邑 冊版 (條).

98)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大靜縣, 冊版 (條) : 冊板 史略初卷板一件.

99)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旌義縣, 冊版 (條) : 冊板 無.

10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검색, 해제검색, <http://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2.jsp>/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4. 4.

는 濟州邑誌이며 같은 장에 제주읍지의 지도가 있고, 다음 장으로 建置沿革이 이어지고 있다. 張數는 46張이다. 내용은 濟州邑, 大靜縣, 旌義縣 순으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卷末題 없이 정의현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데 冊板 無이다. 본 邑誌에는 『濟州邑誌』와 같이 三邑(濟州·大靜·旌義)에 대해 각각 책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冊板에 대한 기록은 濟州邑의 내용 말미에 冊板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제주읍에 보관된 책판으로는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三略 焰焔新方 捷解新語”<sup>101)</sup> 등이 있었으나 책판 상태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大靜縣에는 “책판 史略”<sup>102)</sup>이 있었으며, 旌義縣에는 “冊板”<sup>103)</sup>이 없었다. 확인된 책판목록은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三略, 焰焔新方, 捷解新語 등 29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耽羅誌』<sup>104)</sup>는 1책이며 영인본(활자본)으로서 편찬 시기와 저자가 미상이다. 일본 동경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表題는 耽羅誌이다. 卷首題는 耽羅志卷之一이며 다음으로 濟州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濟州邑, 大靜縣, 旌義縣 순으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卷末題 없이 정의현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데, “冊板 無”이다. 당시 冊板<sup>105)</sup>에 대한 기록은 濟州邑 冊版庫<sup>106)</sup>에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성의 남성 안에 있다고 하였다. 당시 제주읍에 보관된 책판으로는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畧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玉壺冰 牧民心鑑

101)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濟州邑 冊版 (條).

102)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大靜縣, 冊版 (條) : 冊板 史略.

103)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旌義縣, 冊版 (條) : 冊板 無.

104)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編),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105) \_\_\_\_\_,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耽羅誌卷之一 濟州 倉庫 (條) : 冊版庫 在南城內.

106) \_\_\_\_\_,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耽羅誌卷之一 濟州 倉庫 (條) : 冊版庫.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畧 焰硝新方 捷解新語 諸板太半 朽剝又多□失可印者少<sup>107)</sup>"라 하여 대부분의 책판이 훼손 또는 마모되어 있었으며, 책판목록은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畧,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玉壺冰,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畧, 焰硝新方, 捷解新語 등 36종의 책판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光武三年五月日邑誌』는 단권 1책이며 필사본으로서 광무 3년(1899)에 편찬되었고 규장각 소장본으로 실사하였다. 형태적 특징으로 표제는 濟州邑誌, 表題는 규격은 가로 18.7cm, 세로 26.5cm이다. 표지 다음으로 채색지도가 있다. 다음 장으로 내지에는 第一七號 다음 항으로 光武三年五月日邑誌이고 다음 장으로 卷首題는 光武三年五月日邑誌이고 다음 항으로 濟州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張數는 26張이다. 卷末에는 遮歸鎮西距一百里 다음 항으로 濟州郡守 金熙胃라 하여 당시 제주 군수가 조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光武三年五月日邑誌』의 倉庫(條) 冊版庫<sup>108)</sup>는 구 교동에 있다고만 하였을 뿐, 책판에 대한 기록은 없다.

### 3. 현존본 실물자료의 분석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현전하는 책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현전 책판류는 제주대학교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木板 11종이다. 제주대학교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목판에 대하여 濟州牧에서 개관한 사실 여부는 證言<sup>109)</sup>을 통하여

107)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編),『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p. 110.

108) 『光武三年五月日邑誌濟州邑誌』, 필사본, 1899년(광무3년, 5월), 규장각 소장본. 冊版庫(條): 舊校洞.

109) 吳文福, 金益洙, 증언(2006. 3. 9. 채록 윤봉택), ‘당시 판재들을 관리했던 관원들이 제주목 「책판고」에 보존되어 있던 책판들을 마루 판재나 건축 자재용으로 처분했고, 당시 시민들은 이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마루 판재로 사용을 하였다. 현재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판본들은 마루 판재로 사용되다가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채집된 판각들이기 때문에 마루판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다.’

분석하였다. 아울러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현존 간인본은 11종으로 파악되었다. 현존 冊板에 대한 형태적 특징과 현존 간인본은 다음과 같다.

### 가. 現存 冊板類

#### 〈1〉 『판독미상』 권2, 1종, 5~6張.

板式：四周單邊，全郭 18.3×24.3cm，有界，半葉 8行20字，無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판독미상』의 목판은 권(미상) 중 5~6 등 여러 판이 있으나 알 수가 없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5~6張을 기준으로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24.3cm 세로 18.3cm이며 앞 뒤면으로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8행으로 한 행은 20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위의 어미만 하향되어 있고 아래는 없는 흑어미이다. 版心題는 없으며 어미 아래로 卷二라는 卷數 표기와 五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의 전곽을 제외한 부분이 여유가 없을 만큼 제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 『孟子大全』 권6, 1판.

板式：四周單邊，全郭 20.6×33cm，有界，半葉 10行 미상，上下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孟子大全』의 목판은 권6 중 17장 1板 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3cm 세로 20.6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이나 배자 상태는 알 수가 없다. 어미가 없다. 版心題인 ‘孟子大全’과 그 아래로 卷六이라는 卷數 표기와 十七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卷末의 마지막 행에 ‘孟子大全 卷六之□’라고 되어 있다. 권말판이라 行의 자수를 알 수가 없지만,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제주목에 보존되었던 목판들이 한일합방을 거치면서 대부분 마루나 건축 자재용 등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3〉 『孟子諺解』 권9·14, 4판.

板式：四周雙邊，全郭 21×33cm，有界，半葉 10行 18字，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孟子諺解』의 목판은 권(미상), 권(미상) 중 25장, 권9 중 8장과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孟子諺解』의 목판 권 14 중 19장 등 4판 뿐이다. 권九의 八張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8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 흑어미이다. 그러나 二十五張의 상어미는 평어미로 되어 있으며, 권 14의 19장 어미는 상 일엽, 하 이엽어미로 되어 있다. 版心題인 ‘孟子諺解’와 그 아래로 卷九이라는 卷數 표기와 二十五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4〉 『未詳』 권6, 1판.

板式：四周單邊，半郭 21.4×18.5cm，有界，半葉 10行 18字，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판독미상』의 목판은 권(미상) 중 1판이 있으나 판심 부분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알 수가 없다. 또한 마루 판재로 사용하면서 좌측 변란이 인위적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전곽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반곽의 크기는 가로 18.5cm 세로 21.4cm이며 단면으로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8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이다. 版心題는 마모되어 있어 확인할 수가 없으나 卷을 나타내는 六이라는 卷數 표기와 十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5〉 『□通』 권32, 1판.

板式：四周單邊，全郭 21×36.7cm，有界，半葉 10行 17字，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판독미상』의 목판은 □□ 32 중 1판이나 판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6.7cm 세로 21cm이며 단면으로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 이엽이다. 版心題는 마모되어 있어 확인할 수가 없으나 상어미 위에 文□澄이라 되어 있고 그 아래로 상어미가 있으며 다음으로 판심제인 ‘□鑑’가 있고 그 아래로 卷을 나타내는 三十二라는 卷數 표기와 六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編年類인 듯 하다.

〈6〉 『論語大全』 권17, 1판.

板式：四周雙邊，全郭 21×33.2cm，有界，半葉 10行 20字，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論語大全』의 목판은 권 17 중 12장 1板 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3.2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20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 이엽어미이다. 版心題인 ‘論語大全’은 상어미 위에 있고 어미 아래로 卷 十七이라는 卷數 표기와 그 아래로 十二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7〉 『三國演義』 권11, 3판.

板式：四周雙邊，全郭 21×37cm，有界，半葉 13行 23字，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三國演義』의 목판은 권 11 중 42장·43장·68장 등 3판뿐이다. 권11의 43張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3행으로 한 행은 23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평형 흑어미이나, 목판 68장은 상하 내향 일엽 흑어미이다. 版心題인 ‘三國演義’는

상어미 위에 있고, 어미 아래로 卷 十一이라는 卷數 표기와 四十三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8〉 『通□』 권19, 1판.

板式：四周單邊，全郭 21×37cm，有界，半葉 10行 17字，上 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通□』의 목판은 권 19 중 9장 1판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어미만 내향 二魚尾이고 하어미는 평어미이다. 版心題인 ‘通□’ 아래로 十九라는 卷數 표기와 九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編年類인 듯 하다.

〈9〉 『疑禮問解』 권2, 1판.

板式：四周單邊，全郭 ?×30cm，有界，半葉 10行 19字，上下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疑禮問解』의 목판은 권 2 중 23장 1판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0cm이고, 세로 규격은 마루판으로 사용 시 훼손되어 있어 확인이 불확실하다.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9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二魚尾이다. 版心題인 ‘疑禮問解’ 아래로 卷之二라는 卷數 표기와 二十三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 제주대학교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된 목판은 11종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 중 판독미상 1종, 『孟子大全』 1종, 『孟子諺解』 1종, 판독미상 1종, 『□通』 1종, 『論語大

全』1종, 『三國演義』1종, 『通□』1종, 『疑禮問解』1종 등 9종이 濟州牧藏本으로 추정됐으며, 나머지 『拓菴先生文集』과 『龍山世稿』는 濟州牧冊板이 아니며 외지에서 반입된 것이다. (사 5~14, 참조) 현존 책판의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현존 책판

분류 \ 판류	판 식	전곽규격(㎢) 가로×세로	계선	행 자 수	어 미	판심제	비 고
미상	사주단변	24.3×18.3	유	반엽8행20자	상어미 하향	무	5~6張 외
孟子大全(권6)	사주단변	33×20.6	유	반엽10행(불상)	무	孟子大全	17張
孟子諺解(권9)	사주쌍변	36×21	유	반엽10행18자	상하내향 흑	孟子諺解	8張 외
미상(권6)	사주단변	반곽 18.5×21.4	유	반엽10행18자	상하내향		10張
‘□鑑’(권32)	사주단변	36.7×21	유	반엽10행17자	상하내향	文□澄 / □鑑	6張
論語大全(권17)	사주쌍변	33.2×21	유	반엽10행20자	상하내향	論語大全	12張
通□(권19)	사주단변	37×21	유	반엽10행17자	상어미 하향	通□	9張
疑禮問解(권2)	사주단변	30×?	유	반엽10행19자	상하 二어미	疑禮問解	23張

현전하는 목판은 당시 관리했던 관원들이 목판이 훼손 등이 사유로 인해 새로 조성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가구의 마루 등 판재용으로 사용되면서 거의 남아 있지 못하고 현전하는 것조차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 나. 現存 刊印本

15~16세기 제주목에서 간인된 판본류 중 현전하는 판본류는 개간된 책판에 비하여 많지가 않다. 세종 17년(1435) 안무사 崔海山 때 官府의 실화<sup>110)</sup>로 일시에 소실되는 화마를 겪게 되자, 世宗은 같은 해 9월 제주향교에 교생들이 교재

110) 李元鎮, 『耽羅志』, (1653년), 建置沿革 (條) : 世宗十七年按撫使崔海山時官府失火文籍盡爲灰□惜哉.

로 사용할 수 있도록 『大學』·『中庸』·『論語』·『孟子』·『詩經』·『書經』·『禮記』·『易經』·『春秋』·『性理大全』 각 2帙과 小學 10秩 등 각종 書冊을 하사하였다. 111)

15세기에 개간된 책판류 중 자료를 통해 『禮記淺見錄』, 『檢屍狀式』 등 2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전 판본류로는 태종 18년(1418) 3월 『禮記淺見錄』이 있다.

16세기에 개간된 책판류 중 자료를 통해 『東國史畧』, 『牧民心鑑』, 『浣花流水』, 『赤壁賦』 등 4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전하는 판본류로는 선조 7년(1574) 8월 7일에 제주목에서 개간되어 간인된 『赤壁賦』<sup>112)</sup>가 있다.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耽羅志』 冊版庫에 41종, 『知瀛錄』에 10종, 책판목록에는 없으나, 현전 간본을 통해 확인된 『吳子直解』, 『性理大全書』, 『喪禮備要』 3종 등 총 54종이 나타나 있다.

현전하는 판본류는 인조 11년(1633) 1월 제주목에서 개간된 『新編集成馬醫方』과 『新編牛醫方』<sup>113)</sup>, 인조 18년(1640) 『吳子直解』<sup>114)</sup>, 인조 22년(1644) 『性理大全書』<sup>115)</sup>, 『耽羅志』(1653년간)가 개간 되었다. 이 가운데 冊版庫의 목록에는 없으나, 간인본으로 확인된 17세기 판본류는 『吳子直解』(1640년간), 『性理大全書』(1644년간), 제주향교에서 개간된 『喪禮備要』(1695년) 등 3종 등 5종이 현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古冊板有處攷』 35종, 『林園十六志』 15종, 『鏤板考』 16종 등 66종과 책판목록에는 없으나 현전 간본을 통해 확인된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謹齋先生集』 2종 등 총 68종이 나타나 있다.

현전하는 판본류는 숙종 27년(1702)에 개간된 『嶺海唱酬錄』<sup>116)</sup>, 숙종 44년

111) 『朝鮮王朝實錄』, 世宗 十七年 九月 二十一日 己丑 (條) : 賜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 書 禮記 易 春秋 性理大全 各二件、小學 十件于 濟州 鄕校.

112) 蘇軾(宋) 著, 趙孟頫(元) 書, 『赤壁賦』, 木板本, 1冊(46張), 藏書閣所藏, 刊記 : 萬曆二年(1574)八月初七日濟州開刊.

113) 趙浚(朝鮮) 等 撰集, 『新編集成馬醫方』, 1책, 木版本,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刊記 ;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

114) 南權熙, 『古印刷文化』 8집 (2001), p. 232.

115) 胡廣(明)等 命編, 『性理大全書』, 木版本, 1644년간(인조 22年) 70卷 35冊:四周雙邊, 半葉匡郭:25×17 cm, 有界, 10行16字, 版心:上下黑魚尾:35.7×22 cm.卷首: 御製序…永樂十三年(1415)…[太宗] 奉勅纂修翰林院學士…胡廣[等諸臣銜名] 卷末:濟州牧使…元肅羽[等].

116) 『嶺海唱酬錄』,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濟州營, 肅宗27年(1701), 後刷, 1冊(63張), 刊記 : 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 附錄:濯白唱酬錄.

(1718년) 5월 제주에서 개간된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영조 16년(1740)에 개간된 『謹齋先生集』의 판본 등 3종이다.

규장각 소장본 『嶺海唱酬錄』의 간기는 1680년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南九萬(1629~1711)이 辛巳年(1701)에 쓴 서문과 朴星錫의 생몰년인 1650~1709년을 고려해 볼 때, 刊記는 '崇禎紀元後再壬午(1702)'의 誤記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집은 숙종 27년(1701)에 편찬되고 이듬해인 숙종 28년(1702)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謹齋先生集』은 高麗末의 문신인 安軸(1282~1347?)과 그의 아들 宗源(1325~1394), 宗源의 孫 純(1371~1440), 그리고 純의 아들 崇善(1392~1451) 등 先祖 四代의 유고 및 傳, 碑碣文 등을 합쳐 후손인 安慶運이 펴낸 책으로, 跋文은 '崇禎紀元後庚申(1680) … 慶運', 刊記는 '庚申(1680)冬刊于濟州移藏板本於羅州'라고 하여 庚申年을 모두 1680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순흥안씨 삼과중회에 의하면 安慶運은 安軸(6世)의 14대 후손으로 字는 善餘, 號는 感齋이며, 1683년 癸亥에 태어나 1749년 己巳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117)</sup>

그러므로 "安慶運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謹齋先生集』에 쓰여진 庚申은 1680년이 아닌 174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謹齋先生集』은 1740년 庚申에 제주에서 간인하여 장판과 인본을 모두 전라도 나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sup>118)</sup> 이상과 같이 18세기의 판본류로는 『嶺海唱酬錄』(1702년간),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1718년간), 『謹齋先生集』(1740년간)의 현전본을 통하여 이상 3종의 판본류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9세기, 현전하는 판본류는 1856년에 개간된 『婚禮笏記』가 있다. 이상 현전하는 간인본은 15세기 1종, 16세기 1종, 17세기 5종, 18세기 3종, 19세기 1종 등, 11종이다.

이상 조사한 바와 같이 조선조에 개간된 책판류 중 동일 서명이 아닌 책판류는 99종이나, 각종 자료와 간인본 등에 수록된 것은 동일 책판류 포함 276종으로 자료별로 분류하여 <표 2>로 제시하였다.

#### <표 2> 제주목 개간 『冊板』

117) <http://www.shahn3.com/3/17.pdf>

118) 윤봉택, 노기춘, 『書誌學研究』 제34집 (2006. 9), p. 263~264.



資 料 名	編 纂 時 期	冊板 種數	備 考
계		276	
刊印本(現傳)		11종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소화13년(1938)	1종	金光明經文句
攷事撮要(木版本日本寫本)	선조 18년(1585)	2종	
耽羅志(木版本)	효종 4년(1653)	41종	
南槎日錄(筆寫本,影印本)	1680년대		1677년 화재
知瀛錄(筆寫本, 影印本)	숙종 22년(1696)	10종	
古冊板有處攷	영조 52년(1776) 이전	35종	
林園十六志(京外鏤板)	정조 20년(1796) 이전	15종	
鏤板考	정조 20년(1796)	16종	
耽羅誌草本(筆寫本)	헌종 7년(1841)	36종	
濟州邑誌(筆寫本)	19세기	35종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筆寫本)	19세기	29종	
耽羅誌(影印本)	19세기	36종	
光武三年五月日邑誌	광무 3년(1899)		‘冊板 無’
板本(濟州大學校 · 濟州道教育博物館所藏)		9종	교육박물관 1종

## V. 제주지방 출판물의 개판 시기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조부터 19세기까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 및 판본류는, 책판 명칭이 같은 것을 제외한 결과 고려조 1종, 조선조 99종 등 100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판본류는 육지의 兵火와는 달리 제주지방에서는 세종 17년(1435)과 숙종 3년(1677) 등 두 차례의 火魔를 겪으면서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이후에 大火災 사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다. 119)

그러나 제주목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화재는 제주목에서 개간된 판본류의 개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 때 책판고 등에 보관되었던 책판들이 모두 소실됨에 따라 새롭게 판본이 만들어지거나 개간 또는 복각이 이뤄지게 되었고, 이러한 화재 시점으로 인하여 개간 추정 연대를 각각 시기별로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1435년과 1677년 화재를 기점으로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를 1기는 조선조 개국부터 1차 화재 시까지인 1435년, 제2기는 1차 화재 이후부터 2차 화재 시까지인 1677년, 제3기는 제2차 화재 이후부터 『耽羅誌』(19세기)까지 3기로 분류하여 시기별로 개간된 책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1기(15세기)

조선조 개국부터 1차 화재가 발생한 1435년까지 각종 기록물이나 현전본을 통해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는 『禮記淺見錄』이다. 본서는 1418년 제주목에서 개간되었으며, 간인본은 현재 고려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1585년에 간행된 『攷事撮要』의 책판목록과 1653년 편찬된 『耽羅志』 책판고 목록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종 17년(1435) 화재 때 판본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

119) 李增 著 ; 金益洙 譯, 『南槎日錄』, 1680년, 부록(영인본), (2001), 公廨 (條) : 冊版庫 丁巳(숙종 3년, 1677)失火諸冊板口燒云.

『禮記淺見錄』, 이 책에 대한 책판 기록은 1418년 濟州牧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濟州牧藏板類 가운데 현전하는 간인본 중 시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木版本(癸未字覆刻本)이며, 주 내용은 禮記의 내용에서 글의 뜻에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해석을 한 註釋書이다.

서지사항으로는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板本(癸未字覆刻), 26卷, 1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四周單邊 半郭 22.8 ×14.4 cm, 有界, 8行17字 小字雙行, 間混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7 ×17.7 cm, 序: 淺見錄序: 永樂五年(1407)…河崙. 集說序: 至治壬戌(1322)…陳澹, 跋: 永樂十六年(1418)戊戌…河澹. 濟州이다.

본서는 태종 5년(1405) 어명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다. 권근의 自序와 권1에 1407년 河崙이 쓴 序文이 있으며, 권말에는 태종 18년(1418) 河澹이 쓴 발문이 있다. 권근의 자서에 의하면, 권근은 李穡의 뜻을 이어 받아 이 책의 編成을 완결하였고, 1407년 黃禧의 추천으로 경연에서 이 책을 進講하게 되었는데, 태종은 교서관에 명하여 주자로 인쇄하여 유포하게 하였다. 그 후 1418년 河澹의 아들 河蹈가 얻어온 초간본을 제주목사 李暎이 覆刻本을 냈고, 숙종 31년(1705) 宋廷奎가 濟州牧藏本에 약간의 補訂을 가하여 간행하였다.

『禮記淺見錄』에 대한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 등의 책판고에 있다.

## 2. 제2기(16~17세기)

제주목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한 1435년 이후부터 2차 화재가 일어난 1677년까지 각종 기록이나, 현전본을 통해 확인된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는 47종으로 이를 분류하면 經部 15종, 史部 4종, 子部 20종, 集部 8종이며, 개간 연대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제2기에 개간된 책판류(1435~1677)

분류 판류		現 傳 本(記錄)		耽 羅 志	
		書 名	刊行 時期	書 名	刊行 時期
經部	書 類			書傳大文	1653년 이전
	詩 類			詩傳大文	1653년 이전
	禮 類			家禮	1653년 이전
	孝經類			孝經	1653년 이전
	大學類			大學	1653년 이전
				大學諺解	1653년 이전
	中庸類			中庸	1653년 이전
				中庸諺解	1608년(現)
	論語類			論語	1653년 이전
	孟子類			孟子	1653년 이전
	小學類			三韻通考	1653년 이전
				童蒙先習	1653년 이전
				類合	1653년 이전
				千字	1653년 이전
				童子習	1653년 이전
	계			15	
史部	別史類			十九史略	1653년 이전
	職官類			牧民心鑑	1555년(記)
	刑獄詞訟	檢屍狀式	1439년(記)		
	地理類	耽羅志	1653년	耽羅志	1653년
	계	2		3(1)	
子部	儒家類	性理大全書	1644년	小學	1653년 이전
				小學諺解	1653년 이전
				正俗	1653년 이전
				擊蒙要訣	1653년 이전
	兵家類	吳子直解	1640년	將鑑博議	1653년 이전
				兵學指南	1653년 이전
	醫家類	新編集成馬醫方	1633년	救急方	1653년 이전
		新編牛醫方	1633년	經驗方	1653년 이전
				馬牛方	1653년 이전
	藝術類			春種	1653년 이전
				赤壁賦	1574년(現)
				藤王閣序	1653년 이전
				草千字	1653년 이전
				浣花流水	1653년 이전
				退溪書	1653년 이전
				聽蟬書	1653년 이전
	계	4		16	
集部	總集類	嶺海唱酬錄	1642년	唐詩絕句	1653년 이전
				玉壺冰	1653년 이전
				續青丘風雅抄	1653년 이전

	別集類			圃隱集	1653년 이전
				冲庵集	1653년 이전
				東溟集	1653년 이전
	小說類			剪燈新話	1653년 이전
	계	1		7	

이 시기에 제주지방에서 개관된 책판 47종의 대략적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書傳大文』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書傳大文』은 宋의 朱熹 제자인 蔡沈가 「書經」에 集傳하고 明의 胡廣(1370~1418)이 編輯한 것으로 『五經大全』 중 하나이며<sup>120)</sup>,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全10卷10冊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으로서는 蘇軾의 書傳, 林之奇의 尚書全解, 蔡沈의 書集傳, 金履祥의 尚書表注, 王栢의 書疑, 元代 오징의 書纂言, 陳櫟의 尚書集傳纂疏, 陳師凱의 書蔡傳旁通, 明代 胡廣 등이 勅撰한 書傳大全, 梅鷟의 尚書考異, 清代 胡渭의 禹貢錐指, 蔣廷錫 尚書地理今釋, 王引之의 經義述聞, 俞樾의 群經平義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書經』이 전래된 것은 일찍이 삼국시대 무렵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壬申誓記石에는 『尚書』를 배울 것을 기약하는 내용이 있다.

〈2〉『詩傳大文』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詩傳大文』은 『詩經』에 註解를 단 책이다. 『詩經』의 해설서로 가장 오래된 것은 前漢 초기 毛氏가 지은 『毛詩』로서, 宋代에 이르러 주희의 『詩集傳』과 『詩經』에 관한 연구로서는 前漢의 申培公의 『魯詩』, 轅固生の 『齊詩』, 韓嬰의 『韓詩』와 『韓詩外傳』이 있다. 『毛傳』을 중심으로 한 저술로는 胡承珙의 『毛詩後傳』등과 삼가시에 관한 연구로는 魏源의 『詩古微』, 陳喬樞의 『三家詩遺說考』, 『齊詩益氏學疏證』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詩經』은 일찍부터 읽혀졌으며, 『詩集傳』, 『詩傳大全』, 『詩經諺解』, 『詩經講義』등이 간행되었다.

〈3〉『家禮』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120)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주 지식산업사, 2003), p. 59~464.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周나라 때 周公이 국가 통치의 방편으로서 예법을 제정하면서 만든 것으로서, 그 후 역대의 왕조가 이것을 보강하였다. 그러나 이 예법은 治國에 필요한 것일 뿐, 국가 성립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齊家를 위한 예법이 필요하여 가례를 제정하였다. 주나라 이후 많은 학자들이 가례를 저술하였는데, 宋나라 때 朱熹가 집대성한 것이 『朱子家禮』이다.

〈4〉『孝經』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5〉『大學』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知瀛錄』(16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6〉『大學諺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서는 宣祖의 명에 의하여 『大學』의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풀어 놓은 책으로 校正廳에서 간행하였다. 원문인 한문을 앞에 싣고 이어서 언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조선조의 태조 원년(1392)에 확정된 과거법 이후 계속 과거에서 시험 과목으로 중시되었으며, 성균관에서의 교육 과목에서도 사서·삼경은 가장 중요한 교과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역대 임금들도 사서·오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여러 기록으로 미루어 사서·오경은 임금과 태자로부터 모든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있어 오던 口訣 또는 吐를 달아 원문을 읽는 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서의 諺解가 시도되었다

〈7〉『中庸』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知瀛錄』(16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8〉『中庸諺解』<sup>121)</sup>에 에 대한 서지사항은 1608년 濟州牧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으며 개인소장본이다.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

121)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第8輯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11), p.

231. 卷末題: 中庸諺解 行牧判官李 等開刊 萬曆三十六年戊申十二月 日 濟州.

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다. 선조 23년(1590) 왕명으로 校正廳에서 간행하였다.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풀어 놓았다. 원문인 한문을 앞에 싣고 이어서 언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주목에서는 선조 41년(1608) 12월에 당시 판관 李 等에 의하여 개간되었다.

〈9〉『論語』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知瀛錄』(16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10〉『孟子』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知瀛錄』(16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11〉『三韻通考』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편자 미상이다. 『三韻通考』는 한자를韻에 따라 주석한 韻書로서 과거 응시과목 중 하나였다. 주 내용은 四聲 순으로 배열된 중국의 106운계 『禮部韻略』을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平·上·去聲을 한데 모아 3계단으로 표시하고 入聲字만 책 끝에 따로 모아 간단한 해설을 붙였다. 수록된 한자는 약 1만 자이며, 한글에 의한 表音은 없고, 字解도 불과 23자씩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다. 여러 판본이 있는데, 조금씩 字數를 증보한 것이다. 후에 상세한 註解를 덧붙인 것이 朴斗世의 『三韻補遺』(1702년)이다. 이를 재 증보한 것이 金濟謙과 成孝基가 엮은 『增補三韻通考』이다. 이 『增補三韻通考』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두고 처음으로 한글로 중국 字音과 한국식 漢字音을 표시한 책이 朴性源의 『華東正音通釋韻考』로 약 1만자를 수록하였다.

〈12〉『童蒙先習』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童蒙先習』은 朴世茂(1487~1554)가 글을 처음 배우는 아동들을 위해 교재로 지은 책이다. 주 내용은 오륜을 나누어 각각 설명하고 다음으로 중국의 삼황오제에서부터 명나라까지의 역대 사

실과 우리나라의 단군에서부터 조선왕조까지의 역사를 약술하였다. 한문 또는 차자로 구결한 『童子習口訣』이 있다.

〈13〉『類合』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千字文』이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입문서라면, 『類合』은 우리나라 학자에 의하여 편집된 아동용 한자입문서로서, 조선 초기부터 널리 읽혀 왔다. 편저자와 편찬연대가 미상이나,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져 통용되는 속자 ‘甥’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책으로 추정된다. 편집은 한자를 의미 내용에 따른 항목별로 배우게 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 학습자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22)</sup>. 후에 미진한 것을 보완하면서 柳希春(1513-1577)이 재편집하여 선조 9년(1576)에 서문을 곁들여서 『新增類合』이라는 이름으로 官板을 냈다<sup>123)</sup>. 선조 7년(1574) 황해도 해주에서 처음 간행되었으나 잘못된 부분이 많아 이를 수정하여 1576년에 교서관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이 책의 서문과 발문에는 종래의 『類合』이 중요한 한자를 충분히 신지 못하였고 불교를 숭상하며 유교를 배척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는 편찬의 동기가 밝혀져 있다. 『類合』의 1512字의 한자에 대해 약 2배에 가까운 증보가 이루어져 총 3000字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권 상에 1000字, 권 하에 2000字를 수록하고 있다.

〈14〉『千字』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千字』는 『千字文』을 말한다. 『千字文』은 6세기 중국 梁나라의 周興嗣가 지은 『千字文』에 한글로 새김과 음을 단 한자교본이다. 한글로 새김과 음을 단 『千字文』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 동경대학 小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책으로 선조 8년(1575) 광주에서 간행된 책이다. 흔히 ‘광주판 千字文’이라 부른다. 이후 선조 16년(1583) 『石峯千字文』, 숙종 17년(1691) 韓濩의 『御製千字文』, 구양순의 楷書を 臨模하여 千字文을 쓰고, 이를 판각한 『楷書千字文』등 수종이 있다.

122) 李榮基,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 113.

123) 前問恭作 著; 安春根 譯, 『韓國板本學』 (서울:범우사, 1985), p. 168.



〈15〉『童子習』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童子習』은 명나라 朱逢吉이 편찬한 初學者用 敎化書이다. 영락 2년(1404)에 『童子習』의 서문을 쓴 명나라 朱子治는 서문에서, 朱子가 『小學』을 편찬하여 『大學』의 기본을 삼은 수백 년 뒤에 명나라의 선비 주봉길이 『童子習』 1편을 편찬하여 다시 『小學』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16〉『十九史略』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考』와 같은 사서인 듯 하다.

〈17〉『牧民心鑑』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耽羅誌草本』(1841년),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명종 10년(1555) 4월에 제주목사 金秀文이 중간한 嘉靖本(木版本)<sup>124)</sup> 『牧民心鑑』이 있다고 전하나, 현전 여부가 불명이다. 『牧民心鑑』은 명나라 朱逢吉이 明 永樂 2년(1404)에 간행하였으며, 지방관의 정신자세와 牧民活動의 원칙을 제시한 책이다. 조선에서는 태종 12년(1412)에 權緩(?-1417)과 金明理가 간행하였다. 본문은 上·下 2권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지방관이 처음 관직을 제수받았을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 갖추어야 할 소양, 부임 초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및 風俗敎化, 소송처리, 賦稅 및 力役의 동원 등 재직 중 행해야 하는 治民업무의 원칙과 근무 태도, 上司와의 관계 유지, 기근대책, 인수인계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10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술하였다.

〈18〉『檢屍狀式』에 대한 책판 기록은, 세종 21년(1439) 2월 6일<sup>125)</sup>에 세종의 명에 따라 한성부에서 『檢屍狀式』을 간행하게하고, 또 각도 관찰사와 제주 안무사에게 전지하여 板을 새겨서 인쇄하여 도내 각 고을에 반포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제주목에서도 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檢屍狀式』은 사체의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간인본의 현전 여부가 불명하여,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124) 金成俊, 『동방학지』 제62호 (1988).

125) 『朝鮮王朝實錄』, 世宗 二十一年 二月 六日 乙卯(條) : 命 漢城府 刊行檢屍狀式 又傳旨各道觀察使 及 濟州 安撫使, 刊板摸印 頒諸道內各官.

〈19〉『耽羅志』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耽羅誌』(19세기)에 있다. 『耽羅志』는 목판본으로 단권 1책의 지리지이며 1653년에 간행되었다. 간본은 국내 여러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耽羅志』의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黃紙紅絲로 되어 있고 表題는 耽羅志, 규격은 가로 23cm, 세로 35.4cm이다. 변란은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으며, 半郭의 크기는 가로16.9cm, 세로 25cm이고, 界線이 있다. 半葉은 8行으로 行字數는 20字씩 배자되어 있다. 版心題는 耽羅志이며 그 아래로 張數 표시가 있고, 魚尾는 上下內向二葉花紋黑魚尾이다. 卷首題는 耽羅志이고 다음 行으로 三邑의 표시를 알리는 ‘濟州’ 세 번째 行에는 建置沿革 條로 이어지며, 張數는 81張이다. 卷末에는 ‘耽羅志 終, 이며 다음으로 ’耽羅一域僻處海外三姓神人之耽羅一域 .....尾遂不敢辭敬爲之跋‘ 다음 行으로 ’癸巳季秋上澣 平城後人申纘謹跋‘이라 하여 『耽羅志』가 1653년 가을에 李元鎮에 의해 제주목에서 판각 인출되었다는 申纘의 발문이 있다.

〈20〉『小學』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知瀛錄』(16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다.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으나, 1696년 당시 제주목사 이익태에 의하여 개간되었다.

〈21〉『小學諺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선조 19년(1586) 校正廳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고, 이를 저본으로 하여 몇 차례의 재간행이 이루어졌다. 16세기士林에서는 자기 수양의 실천적 가치규범으로서 성리학을 체득하기 시작하였는데, 『小學』의 규범과 윤리를 몸에 익혀 실천함으로써 학문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종종 때 사람에서는 『小學』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고 『口訣小學』, 『小學便覽』 등을 만들었으며, 또한 번역이 이루어져 종종 19년(1518년) 『翻譯小學』이 간행되었고 후에 다시 직역한 『小學諺解』가 간행되었다. 본서는 『小學』의 윤리가 서민의 생활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성리학의 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126)</sup>

〈22〉『性理大全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인조 22년(1644) 제주목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으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서지사항으로는 性理大全書, 胡廣(明)等受命編, 70卷 35冊 木板本이다. 四周雙邊 半郭:25×17cm, 有界 10行 1行 16字, 版心 : 上下黑魚尾이며, 卷首 : 御製序…永樂十三年(1415)…(太宗) 奉勅纂修翰林院學士…胡廣(等諸臣銜名), 卷末 : 濟州牧使…元肅羽(等), 刊記 : 順治元年(1644)…濟州開刊이다. 본서는 宋儒의 諸書에서 類輯한 性理學의 大事典類로서, 明成祖가 胡廣 등 40여명에게 命해서 편찬한 것으로 총70권의 巨帙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본서는 濟州牧使 元肅羽, 濟州牧 判官 邊楹, 監校官 姜廷元 등이 인조 22년 (1644)에 濟州에서 木板으로 開刊한 것으로 35冊으로 되어 있다. 앞에는 成祖의 序文이 있고 이어서 胡廣 등의 進書表가 있는데 수록된 宋儒의 姓氏가 백명이 넘는다. 朝鮮시대에 性理學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짐에 따라 본서 같은 것이 출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나라에서의 출판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다.

〈23〉『正俗』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正俗』은 元나라 王逸菴이 지은 正俗篇을, 세종 21년(1345) 松江郡에 부임한 王至和가 정치의 근본을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두고 교화용으로 간행한 것이다. 주 내용은 孝父母, 友兄弟, 和室家, 訓子孫, 睦宗族, 厚親誼, 恤隣里, 慎交友, 待幹僕, 謹喪祭, 重墳墓, 遠淫祀, 務本業, 收田租, 崇儉朴, 懲忿怒, 賑飢荒, 積陰德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조의 金安國(1478~1543)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정치와 교화에 관련되는 서적을 간행하면서 『正俗』을 諺解하여 『正俗諺解』라고 이름하여 중종 13년(1518)에 간행하였다.

〈24〉『擊蒙要訣』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擊蒙要訣』은 선조 10년(1557) 李珣가 아동용 학습을 위해 지은 책이다.

〈25〉『吳子直解』는 沈演(1587~1646)이 제주목사로 재임(1638.6~1640 .9)

12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검색, 해제검색, <http://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2.jsp>/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년 4월 4일.

중에 개간되었으며 개인소장본<sup>127)</sup>이다. 刊本の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卷上의 卷頭題面을 기준으로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다. 半葉은 10行으로 한 행은 20字씩 배자되어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板心題인 ‘五子’와 그 밑으로 ‘上’이라는 卷數와 ‘一’이라는 張數 표시가 보이고 있다. 어미는 상하 내향 二魚尾이다. 卷上의 卷頭題는 ‘吳子直解卷上’으로 되어 있고, 다음 행에 ‘前辛亥科進士大’□□□□解’라 하여 저자를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행에 ‘圖國第一’이라는 科目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 행으로부터 ‘圖國者.....’로 註解가 있다. 1~32장으로 상권이 마무리되며 卷末題는 ‘吳子直解卷之上’이다. 다음으로 卷頭題는 ‘吳子直解卷之下’로 되어 있고, 다음 행에 ‘論將第四’라는 科目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 행으로부터 ‘論將자.....’로 註解가 있다. 1~18장으로 하권이 마무리되며 卷末題는 ‘吳子直解卷之下終’이다.

다음 장으로

通政大夫 行濟州牧使兼 兵馬水軍節制使 守防禦使 沈 演

通政大夫 行濟州牧判官 濟州鎮兵馬節制都尉兼 監牧官 金 凜

監牧官 通政大夫 行濟州審藥 韓忠敏

監校官 軍官前司果 沈 滄

監校官 軍官前司果 柳昌三

監刻鎮撫 金尙吉

庚辰□月 上澣濟州開刊 라고 간기하여, 『吳子直解』가 인조 18년(1640)에 通政大夫 行濟州牧使兼 兵馬水軍節制使 守防禦使 沈演에 의해 제주목에서 개간되었고, 軍官前司果 沈滄과 軍官前司果 柳昌三이 감교를 하였으며, 鎮撫 金尙吉이 監刻하였음을 알 수 있다. 沈演(1587~1646)의 본은 靑松, 자는 潤甫, 호는 圭峰, 인조 2년(1624)에 李适의 난 때 內侍敎官이 되고, 1627년 丁卯胡亂 때 義禁府都事를 지냈다. 인조13년(1635) 경상도 관찰사, 1638년 濟州牧使로 부임, 선정을 베풀어 備邊司堂上이 되었다. 이어 漢城府判尹을 거쳐 평안도와 경기도의 관찰사 등을 역임, 인조 22년(1644)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임지에서 병사했다.

127) 南權熙, 『古印刷文化』 8집 (2001), p. 210~246.

『吳子直解』는 吳起가 지은 『吳子』를 직해한 兵家書로, 明 初年 洪武연간에 劉寅이 주해한 것이다. 목차는 圖國 제1, 科獻 제2, 治兵 제3, 論將 제4, 應變 제5, 勵士 제6 등이다. 저자 吳起는 전국시대의 衛人(BC 300년대)이다. 曾子에게서 배우고 후에 魯나라에 가서 병법을 배워서 進仕하다가 魏 文侯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서 魯에서 魏로 갔다. 魏 文侯에 登用되어 대장이 된 뒤에는 士卒과 노고를 같이하여 士卒의 환심을 얻었고 用兵을 잘해서 秦의 五城을 함락, 威名을 떨쳐 西河의 太守가 되었다. 그 後 楚로 도피하여 悼公의 相이 되었다. 『吳子』는 孫武의 『孫子』와 같이 『武經七書』에 수록되었다. 주해자인 劉寅은 武經의 연구자로서, 『三略直解』 및 武經의 7書を 모두 直解하였다.

〈26〉『將鑑博議』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무과응시과목 중 하나였다. 본 명칭은 『歷代將鑑博議』이다. 戰國시대의 孫武에서 五대의 郭崇韜에 이르는 94명의 中國歷代 名將의 인품과 행적 등 그들에 대한 후인의 평가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宋나라 戴溪(1141년)가 저술하였고, 張預가 교정·간행하였다고 한다. 張預는 이 책을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周齊 太公에서 五代시대 梁의 劉에 이르는 총 백명의 장수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百將傳』을 편찬한 바가 있다.

〈27〉『兵學指南』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兵學指南』은 明나라의 名將 戚繼光이 지은 『紀效新書』 18편 중에서 操鍊法을 간추려 엮은 책이다. 본 책은 軍事에 관해 조련·부대 배치·진법·행군·호령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圖面이 첨부되어 있다.

〈28〉『救急方』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래의 명칭은 『救急方諺解』이다. 세종이 醫官에게 명하여 의원이 없는 시골백성들이 급한 병에 걸렸을 때, 이들을 應急治療하기 위하여 편찬한 『救急方』을, 한문에 능통하지 못한 일반 백성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주 내용은 응급조치를 해야 할 위급환자의 병명과 그 치료법이 36개 항목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상권은 주로 內科에 속하

는 것으로 中風·中寒·中暑·中氣·토혈·하혈·대소변불통·溺水 등 19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은 주로 外科에 속하는 것으로 刺傷·咬傷·火傷·毒蟲傷 및 解産婦의 응급치료법 등 17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세조 12년(1466)에 편집되어 8도에 救急方 각 2건 씩을 하사<sup>128)</sup>하였다. 이후에 세종조에 판각된 刊印本이 있으며, 성종 10년(1479)에는 鄉藥의 醫方을 찬집하여 민간에 널리 보급<sup>129)</sup>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고종 23년(1236)에 간행한 『鄉藥救急方』이 있다. 우리나라의 醫書로서 약재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1236년에 崔宗峻(?~1246)이 집필하고 大藏都監에서 간행하였다. 이 초간본은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으나 重刊本이 전하며 전체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9〉『經驗方』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태조 2년(1393) ‘外方에는 의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원컨대 각도에 醫學教授 한 사람을 보내어 界首官 마다 하나의 醫院을 설치하고, 양반의 子弟들을 뽑아 모아 生徒로 삼고, 그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敎導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鄉藥으로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經驗方』을 익히게 하고, 敎授官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약을 採取하는 丁夫를 정속시켜 때때로 藥材를 채취하여 處方에 따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救療하게 해야 한다.<sup>130)</sup>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종종 때의 무신으로 의술에도 능했던 朴英(1471~1540)이 지은 『經驗方活人方』이 있었다하는데, 후에 남겨진 手蹟本 『活人心方』으로 여겨지고 있다.

〈30〉『馬牛方』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馬牛方』은 소와 말 등에 나타나는 가축 질병의 처방책이다. 1427년 세종은 『牛馬方書』를 典醫監의 醫員으로 하여금 모두 익히게 하고, 司僕寺의 馬方을 혁파하고 習讀하던 權知直長은 각 官司의 權知로 나누어 소속시키도록 하여 馬方을 혁파<sup>131)</sup>하도록 하였다. 『馬

128) 『朝鮮王朝實錄』, 世祖 十二年 六月 十三日 壬子 (條).

129) \_\_\_\_\_, 成宗 十年 二月 十三日 庚子 (條).

130) \_\_\_\_\_, 太祖 二年 一月 二十九日 乙亥 (條).

131) \_\_\_\_\_, 世宗 九年 二月 六日 甲子 (條).

牛方』은 醫科의 시험과목 중 하나였으며, 이후 濟州牧에서 『新編集成馬醫方』과 『新編牛醫方』<sup>132)</sup>이 개간되기도 하였다.

〈31〉『新編集成馬醫方』<sup>133)</sup>에 대한 책판 기록은 1633년 濟州牧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말의 질병 등에 대한 치료 방법을 서술한 의학서이다. 서지사항으로는 趙浚(朝鮮)等 撰集, 『新編集成馬醫方』, 1책, 木版本,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圖, 四周單邊 半郭 24.6 × 16.7 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黑口魚尾數不定: 34.4 × 21.9 cm, 序: 建文元年蒼龍己卯(1399)仲呂既望…房士良序, 刊記: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이다. 房士良(고려말 ~?)의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趙浚(1346~1405)·金士衡·權仲和·韓尙敬에 의해 宋나라 관련 의서의 처방을 참고하여 정종 원년(1399) 濟生院에서 『鄉藥濟生集成方』 30권이 간행될 때 곁들여서 개간되었으며, 제주목에서는 인조 11년(1633)에 개간되었다. 주내용은 양마 선택과 말의 각 부위·연령과 말의 오장 등의 치료법에 대해 鄉藥名을 주석으로 달아 놓았다.

〈32〉『新編牛醫方』에 대한 책판 기록은 1633년 濟州牧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소의 相牛法·養牛法·溫疫門 등 諸病理門에 대하여 서술하고 圖相까지 곁들여져 있으나 『馬醫方』에 비하여는 내용이 간소하다. 서지사항으로는 趙浚(朝鮮)等 撰集, 『新編牛醫方』, 1책, 木版本,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四周單邊 半郭 24.6 × 16.7 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黑口魚尾數不定; 34.4 × 21.9 cm, 序: 金衡體, 房士良, 刊記: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이다. 房士良(고려말 ~?)의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周禮』의 ‘牛人’條에는 祭亨이라든가 犒軍·讌饗用으로서만의 소가 등장할 뿐이고, ‘遂人’條에 농사 관계 기록에는 千夫나 萬夫가 澮·川을 다스린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의 편찬 당시로서는 그 보다도 특히 農耕用으로서의 ‘소’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에 고금의 醫方에다가 『經驗方』을 중합하여 이 책을 新編하게 되었다.”<sup>134)</sup>고 하고 있다.

〈33〉『春種』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

132) 趙浚(朝鮮)等 撰集, 『新編集成馬醫方』, 木版本, 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刊記: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

133) \_\_\_\_\_, 『新編集成馬醫方』, 刊記: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

134) 李佑成 篇, 『古本 鷹鵠方 外 二種』(서울:아세아문화사, 1990), p. 6.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耽羅志』의 冊版庫에는 書板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書帖이다. 봄에 씨 뿌리는 것을 ‘春種’, 여름에 자라나는 것을 ‘夏盛’,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을 ‘秋收’, 겨울에 다시 봄을 기다리는 것을 ‘冬藏’이라 하는데, ‘春種’은 봄에 농부들이 씨앗 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 서판은 雪菴의 필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雪菴은 원나라 말기의 승려로 법명은 傳光, 자는 玄暉이다. 독특한 筆法을 통해 당대에 이미 명서가로 이름이 높았고, 우리나라의 서가들도 그의 大字筆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韓石峯도 그 중의 한사람이다. 설암의 大字는 투박하면서도 힘이 있어 조선후기에는 扁額 글씨의 대표적인 서체로 자리 잡았다. 설암의 글씨로는 동잠 외에도 『春種帖』 등이 우리나라에 널리 유행되었다. 설암체는 당시 松雪體·晉體와 더불어 글씨공부의 서첩으로 인출되어 유행하였는데, 世祖는 1455년 校書館에 소장한 『集古帖』 중에서, 趙孟頫의 『證道謨』, 『眞草千字』, 『東西銘』과, 王羲之의 『東方朔傳』, 『蘭亭記』, 『雪菴頭陀帖』, 永膺大君인 李琰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조맹부의 『赤壁賦』 등의 書本을 인쇄하여 이를 成均館으로 보내어 학생들로 하여금 楷範<sup>135)</sup>으로 삼도록 하였고 지방에서도 이러한 書帖을 판각하여 楷範으로 삼았다.

〈34〉 『赤壁賦』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책판목록에 있다. 선조 7년(1574) 8월 7일에 개간된 濟州牧藏本類로서 목판본, 단권 1책의 書帖이며, 1574년에 간행되었다. 간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赤壁賦』의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5침, 규격은 가로 26.6cm, 세로 38cm이다. 서판은 반곽이며, 半葉은 2행으로 行字數는 3字씩 大字로 배자되어 있다. 版心題는 赤壁賦이며 그 아래로 張數 표시가 있고, 魚尾는 없다. 卷首題 없이 첫 장에는 赤壁賦 壬戌之이고, 張數는 46張이다. 卷末에는 ‘不知東方之既白’이라 하고 다음으로 ‘吳興<sup>136)</sup>趙孟頫子昂書’라 하였고, 다음 행으로 ‘萬曆二年八月初七日濟州開刊’이라 하여 선조 7년(1574)에 제주목에서 개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후면에는 소장자가 自意로 그린 그림이 있다.

〈35〉 『藤王閣序』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

135) 『朝鮮王朝實錄』, 世祖 元年 十月 二十一日 癸亥 (條).

136) 吳興은 조맹부의 고향이다. (浙江省 吳興縣).



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耽羅志』의 冊版庫에는 書板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書帖인 듯 하다. 현재 목판본류가 있고, 선조 24년(1529) 한석봉(1543~1605)이 쓴 서첩이 따로 전하고 있다. 『藤王閣序』는 唐나라 王勃(649~676)이 지은 四六駢儷文으로서 원 제목은 ‘秋日登洪符王閣錢別序’ 또는 ‘王閣詩序’라고도 한다. 등왕각은 지금의 江西省 南昌市에 있었다. 당 高宗(676년 중앙절)에 홍주도독 閻公이 등왕각에서 주연을 열고 손님들을 청했는데 마침 왕발이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에 난창을 지나다가 이 연회에 참석하여 즉석에서 이 시와 서를 지었다.

〈36〉『草千字』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耽羅志』의 冊版庫에는 書板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書帖인 듯 하다. 草書로 쓰여진 천자문이다. 선조 16년(1583) 『石峯千字文』, 숙종 17년(1691) 韓濩의 『御製千字文』, 구양순의 楷書를 臨模하여 千字文을 쓰고, 이를 판각한 『楷書千字文』등 수종이 있다.

〈37〉『浣花流水』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攷事撮要』(1585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耽羅志』에는 서판으로 분류되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浣花流水帖』로서 1帖(2折 3面) 拓本(木板筆帖) 筆者未詳, 규격은 36.3×24.3cm이며 일부만 製帖한 것이다. 내용은 ‘航怡受兩三人’에 계속하여 ‘白沙翠竹江村夢……朝朝流翰侍君王’으로 끝났으며, 2折 3面に 불과한 行草書이다. 내용의 시는 杜甫의 7언시 「与朱山人」등 이다.

〈38〉『退溪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耽羅志』에는 서판으로 분류되었으며 퇴계가 쓴 書帖이다.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退溪書帖』은 退溪 李滉(1501~1570)이 그의 제자인 權好文(1532~1587)에게 글씨를 가르치기 위하여 體本으로 전해오고 있는 『退溪書帖』이다. 크기는 가로 33.5cm, 세로 57.5cm로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수록된 글자는 大·中·小字 등 크고 작은 체와 楷·行·草의 各體를 따로 구별하여 썼다.

〈39〉『聽蟬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

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耽羅志』에는 서판으로 분류되었으며,李志定(1588~1650)의 서체를 판각한 서첩이다. 이지정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글씨를 매우 잘 썼다. 본관은 驪州, 자는 靜吾, 호는 聽蟬이다. 광해군 8년(1616)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현감·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이지정은 신라 金生부터 17세기 전기까지 모두 51인의 글씨를 수록한 『大東書法』을 엮었다. 그가 편찬한 『大東書法』에는 金生, 崔致遠, 柳公權, 李齊賢 등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으며, 49번째에 본서의 편자라고 전하는 李聽蟬(志定)의 글씨가 실려 있다. 서체는 해서·행서·초서이며, 내용은 대부분 詩文類이다. 조선조에 이루어진 刻帖으로 우리나라 역대 명가의 필적을 살필 수 있는 서예사의 자료이다.

〈40〉『唐詩絕句』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唐詩絕句』는 唐詩에서 絕句만을 가려 편집한 책이다. 律詩가 사대부의 문학이라면 絕句는 民間歌謠에 해당된다. 刊記未詳의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木版本 『唐詩絕句』<sup>137)</sup>와 『宣祖御筆』서첩이 있다.

〈41〉『嶺海唱酬錄』에 대한 책판 기록은 인조 20년(1642) 濟州牧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서지사항으로는 嶺海唱酬錄, 朴星錫 編, 李世成 監, 高福星 校, 木版本, 1冊. 63장이다. 四周單邊, 半葉匡郭 : 22.2×17 cm, 有界, 10行18字, 版心 : 上下內向花紋魚尾 ; 34×22 cm, 序 : 歲在辛巳(1701)…南九萬, 刊記 : 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이며, 본서는 숙종 27년(1701) 後刷되었다. 본서의 내용은 朴忠元(1507~1581)<sup>138)</sup>과 趙士秀(1502~1558)<sup>139)</sup>가 서로 주고 받은 시이다. 부록으로는 박충원의 아들인 朴啓賢과 林悌

137) 『唐詩絕句』, 木版本, 零本 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 四周雙邊 半郭 23.6 ×16.6 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 29.2 ×20.2 cm.

138) 박충원, 본관 밀양, 자 仲初, 호 駱村·靜觀齋, 시호 文景이다. 1528년(중종 23)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1년 문과에 급제, 정자(正字)를 지냈다. 1545년 중국사신 영접사로 활약한 뒤, 1550년(명종 5) 同副承旨 등을 거쳐 1553년 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76년 이조판서·중추부지사를 역임하고 密原君에 봉해졌다. 문집 『駱村集』이 있다.

139) 조사수, 본관 楊州, 자 季任, 호 松岡, 시호 文貞, 문신이다. 1531년(중종 26년) 式年文科에 甲科로 급제한 후 정언 등을 지낸 뒤 1539년 敬差官으로서 전소된 星州史庫의 화재원인을 조사했다. 그 후 제주 목사(1540년), 이조 참판,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경상도 관찰사 등을 거쳐 이조·호조·형조

(1549~1587)<sup>140)</sup>가 서로 주고 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嶺海唱酬錄』에 대한 책판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등에 있다.

〈42〉『玉壺氷』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耽羅誌草本』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玉壺氷』은 명나라의 都穆이 1515년에 지은 책이다. 선조 13년(1580)에 開板된 木版本 『玉壺氷』<sup>141)</sup> 등이 있다.

〈43〉『續靑丘風雅抄』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續靑丘風雅』는 柳根(1549~1627)이 편찬한 시선집이다. 김종직이 편찬한 『靑丘風雅』의 속편이며, 세조~선조 연간의 176명에 이르는 문사들의 작품 562수를 각체별로 뽑아 엮어 각 시마다 주를 달아 비평을 가하고 있다.

〈44〉『圃隱集』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圃隱集』은 고려 말기 학자 鄭夢周(1337~1392)의 시문집이다. 아들 宗誠·宗本이 유실된 시와 글을 수집 편찬하여 세종 21년(1439) 처음 간행하였다. 그 뒤 중종 때 鄭世臣, 선조 때 柳成龍이 재 편찬하였으며,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선조 40년(1607) 黃汝一이 예문관에서 개간하였는데, 이것이 원집의 定本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후 숙종 45(1719) 鄭纘輝가 속집 3권을 원집에 더하여 편찬하였다.

〈45〉『冲庵集』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冲庵集』은 金淨(1486

· 공조 판서를 지낸 뒤 지중추부사 등을 거쳐 1557년( 명종 12년) 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는 청렴하고 근신했으며 문장에 뛰어났다.

140) 임제, 조선 중기의 시인. 본관은 羅州, 자는 子順, 호 白湖·楓江·嘯癡·碧山·謙齋이다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자유분방하여 스승이 따로 없다가 20세가 넘어서야 成運을 사사하였다. 1576년 28세에 속리산에서 성운을 하직하고, 생원·진사에 합격, 이듬 해 알성시에 급제한 뒤 홍양현감·서도병마사·북도병마사·예조정랑을 거쳐 홍문관지제교를 지냈다. 문집으로는 『임백호집』이 있다.

141) 『玉壺氷』, 木版本, (庚辰, 1580년), 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四周單邊 半郭 19.4 x 13.2 cm, 有界, 9行18字 小字單行, 上向2葉花紋魚尾: 25.2 x 16.7 cm ‘卷末; 正德(1515)夏六月吳郡都穆去敬文 刊記; 庚辰(1580)?十月日務安顯刊.

~1520)<sup>142)</sup>의 문집으로서 堂姪인 金天宇가 명종 원년(1549)에 유고를 모아 企齋 申光漢에게 校正과 刪定을 부탁하였으나, 金天宇의 사망으로 인하여 간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公州牧使 許伯琦가 별도로 수습한 遺稿를 企齋가 소장하고 있던 원고와 합하여 本集과 外集으로 나누고, 1552년 공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속리산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던 판목이 임진왜란으로 일부 刊缺되자 1600년에 완결된 부분을 改補하여 후쇄한바 있으며<sup>143)</sup>, 이 후에도 보완하면서 중간되었다.

〈46〉『東溟集』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東溟集』은 鄭斗卿(1597~1673)<sup>144)</sup>의 문집이다. 인조 24년(1646)에 초간된 『東溟先生集』이 있으나, 濟州牧에서의 刊行 시기는 알 수가 없다.

〈47〉『剪燈新話』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등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원래 『剪燈錄』 40卷으로 엮였으나 후에 잃어버리고, 胡子印이 보관하였던 4卷을 瞿祐(1347~1433)가 校正하여 永樂 18년(1418)에 『剪燈新話』 4卷으로 간행한 傳奇小說集이다. 조선조 明宗 때 尹春年(1514~1567)이 訂正하고 垂胡子·林芭가 集釋한 句解本이 있다. 한국 전기체 소설의

142) 김정(金淨 1486~1520) 조선 중기 문신·화가. 본관은 慶州, 자는 元沖, 호는 沖菴. 1507년(중종 2)에 增廣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弘文館修撰·兵曹佐郎을 거쳐 正言에 제수되었으며, 淳昌郡守·副提學·都承旨·대사헌·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趙光祖와 더불어 至治主義와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미신 타파, 鄉約 실시, 정국공신의 위훈삭제 등을 곡진하였다. 1519년 己卯土禍 때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그 뒤 辛巳誣獄에 연루되어 賜死되었다. 저서에는『沖菴集』,『濟州風土記』 등이 있고,「二鳥和鳴圖」,「翎毛折枝圖」 등 꽃·새·짐승 그림이 있다. 報恩의 象賢書院, 淸州의 莘菴書院, 제주의 橘林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처음에 文貞이었으나 뒤에 文簡으로 고쳐졌다.

143)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解題 1』, (서울:경인문화사, 2003), p. 350.

144) 鄭斗卿(1597~167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溫陽, 자 君平, 호 東溟, 李恒福의 문인이다.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부수찬·정언·直講 등을 지내고, 1636년 병자호란 때 禦敵十難을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50년(효종 1년) 교리로서 諷詩 20편을 撰進하여 왕으로부터 虎皮를 하사받았다. 1669년(현종 10년) 용문관제학에서 예조참판·공조참판 겸 승문원 提調 등에 임명되었으나 노환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고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저서와 작품으로는 『東溟集』, 『法篇』, 『徵篇』 등이 있다.

효시로 불려지는 金時習의 『金鰲新話』는 이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濟州牧에서의 刊行 시기는 알 수가 없다.

### 3. 제3기(18~19세기)

제3기는 1677년 화재 이후부터 『知瀛錄』(1696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 京外鏤板』(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19세기)』까지 나타난 책판류이다. 이는 1677년 화재 때 책판고에 소장되어 있던 책판류 등이 모두 소실되어 이후부터 새롭게 책판이 개간·복각되었기 때문이다. 1677년부터 1899년까지 체무목에서 새롭게 개간되거나 복각된 책판류는 70종으로, 이를 분류하면 經部 23종, 史部 11종, 子部 31종, 集部 5종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제3기에 개간된 책판류(1678~19세기)

분 류	판 류	書 名		수록 · 책판
		판본류	간행시기	
經部	禮 類	喪禮備要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諺解喪禮備要	1696년	知
		疑禮問解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諺解疑禮問解	1696년 이전	知
		疑禮問解續解	1796년 이전	林
		禮記淺見錄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婚禮笏記	1856년	現
	大學類	大學	1696년 이전	知·草·島·羅
		大學諺解	1776년 이전	古·草
		三經四書大典	1796년 이전	林
	中庸類	中庸	1696년 이전	知·草·島·羅
		中庸諺解	1776년 이전	古·州
	論語類	論語	1696년 이전	知·草·州·島·羅
		論語諺解	1776년 이전	古·州
	孟子類	孟子	1696년 이전	知·草·島·羅
		孟子諺解	1776년 이전	古·州
	小學類	三韻通考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增補三韻通考	1796년 이전	林·鏤
		玉堂釐正字義韻律 海篇心鏡	1718년 간	現

		千字 板	1776년 이전	古
		千字文	1796년 이전	鏤·草·島·羅
		童蒙先習	1776년 이전	古·鏤·草·州·島·羅
		新增類合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b>계</b>	<b>23</b>		
史部	正史類	三國誌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別史類	史略	1696년 이전	知·古·草·州·島·羅
		十九史略通考	1796년 이전	林·鏤
	編年類	通鑑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通鑑節要	1796년 이전	林·鏤
	職官類	牧民心鑑	1841년 이전	草·羅
	地理類	耽羅志	1796년 이전	林·鏤
		耽羅誌	1841년 이전	草·羅
		板地圖	1776년 이전	古
		耽羅地圖	1841년 이전	草·羅
		地圖	1841년 이전	州
	<b>계</b>	<b>11</b>		
子部	儒家類	小學	1696년	知·草·島·羅
		小學諺解	1776년 이전	古·州
		小學集說	1796년 이전	林·鏤
		擊蒙要訣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敬齊箴書	1776년 이전	古·州
	兵家類	兵學指南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羅
		三略	1776년 이전	古·鏤·草·州·島·羅
		三略直解	1796년 이전	林
		炤硝新方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醫家類	馬醫	1776년 이전	古·州
		馬醫方	1841년 이전	草·羅
	藝術類	宣廟御筆大字草書	1696년	知
		宣廟御筆草書 板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春種書類	1776년 이전	古
		春種帖	1841년 이전	草·島·羅
		春種書	1841년 이전	州
		顏眞卿書	1776년 이전	古·州
		顏眞卿帖	1841년 이전	草·島·羅
		朱子筆敬齊箴	1841년 이전	草·島·羅
		石峰書	1776년 이전	古·州
		石峰帖	1841년 이전	草·島·羅
		雪峰書	1776년 이전	古·州
		雪峰帖	1841년 이전	草·島
		篆字板	1776년 이전	古·州
		篆千字文	1841년 이전	草·島·羅
		千字	1841년 이전	州

		太史公筆	1841년 이전	草·羅
		太公事筆 板	1776년 이전	古·州
		草書大字中字	1776년 이전	古·州
		出師表	1776년 이전	古·州
	譯學類	捷解新語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集部	계	31		
	總集類	嶺海唱酬錄	1776년 이전	古·鏤·草·州·島·羅
		謹齋先生集	1740년	現
		玉壺冰	1841년 이전	草·羅
	別集類	密山世稿	1776년 이전	林·鏤·草·州·島·羅
	小說類	剪燈新話	1696년 이전	知·古·草·州·島·羅
	계	5		

- ‘刊印本’으로 확인된 것은 ‘刊’ - 『史料(實錄)』으로 확인된 것은 ‘史’
- 『攷事撮要』는 ‘攷’ - 『古冊板有處攷』는 ‘古’ - 『林園十六志』는 ‘林’
- 『耽羅志』는 ‘耽’, - 『知瀛錄』은 ‘知’ - 『鏤板考』는 ‘鏤’ - 『耽羅誌草本』은 ‘草’
- 『濟州邑誌』는 ‘州’ -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는 ‘島’ - 『耽羅誌』는 ‘羅’로 표기.

이 시기에 제주지방에서 개판된 책판 70종의 대략적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喪禮備要』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다. 제주목에서는 1695년에 제주향교에서 개간되었으며 간인본이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表題는 喪禮備要, 가로 23.7cm, 세로 34.8cm, 백지홍사로 5침 되어 있으나 표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 刊本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卷頭題面을 기준으로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으며, 그 半郭의 크기는 가로 20.5cm, 세로 25.7cm로 되어 있다. 界線이 있으며, 半葉은 10行으로 한 행이 23字씩 배자되어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쌍주이다. 板心題인 ‘喪禮備要’와 그 밑으로 ‘一’이라는 張數 표시가 보이고 있다. 어미는 상하 내향 二魚尾이다. 卷首에는 상례에 대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喪禮備要圖’가 있고, 다음으로 卷首題面이 있다. 卷首題는 ‘喪禮備要’로 되어 있고 다음 행으로 ‘初終之具’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喪禮備要 終’ 다음 행으로는 刊記로서 ‘康熙三十四年歲在乙亥冬濟州鄉校開刊’이라 하여 『喪禮備要』가 1695년(숙종

21년) 겨울에 제주향교에서 개간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다음 장으로 발문이 있으나 낙장·훼손되어 있다. 『喪禮備要』는 申義慶이 저술하였고 金長生이 교정 증보하였으며, 다시 그의 아들인 金集이 교정하여 1648년(인조 26)에 간행하였다. 金長生의 서문(1620)과 金集의 서문(1648년)이 있으며, 申欽(1566~1628)의 발문(1621년)이 있다.

〈2〉『諺解喪禮備要』에 대한 책판 기록은 『知瀛錄』(1696년)에 있으며, 이 책판은 1696년 당시 제주목사 이익태가 지역 교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하였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서는 『喪禮備要』를 언해한 것이다. 『喪禮備要』는 申義慶이 저술하였고 金長生이 교정 증보하였으며, 다시 그의 아들인 金集이 교정하여 인조 26년(1648)에 간행하였다. 金長生의 서문(1620)과 金集의 서문(1648년)이 있으며, 申欽(1566~1628)의 발문(1621년)이 있다.

〈3〉『疑禮問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金長生이 지었다.

〈4〉『諺解疑禮問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知瀛錄』(16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서는 『疑禮問解』를 언해한 것이다. 『疑禮問解』의 저자는 金長生(1548~1631)으로, 문인 또는 벼들과 禮에 대해 문답한 것과, 또한 禮書를 널리 참작하여 여러 사람의 예론을 분류 편찬(家禮·宗法·喪禮·祭禮)한 것이다. 金尙憲의 서문이 있고, 李植과 申翊聖의 발문이 있다.

〈5〉『疑禮問解續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서는 金長生의 아들인 金集(1574~1656)이 孝宗 때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간 시기는 미상이다.

〈6〉『婚禮笏記』에 대한 책판 기록은 1856년에 개간 인출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으며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지사항은 저자 裕軒, 목판본, 四周雙邊 : 반곽 23.6×17.4cm, 有界, 半葉 10행 22자, 註 雙行, 內向二葉花



紋魚尾, 序 : 歲丙辰五月 裕軒書. 이 혼례홀기의 저자는 제주도의 婚俗이 너무나 번잡하여 혼속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각 마을에 배포하였다.라고 하고 있어, 혼례의 통일을 위해 만들어진 홀기로 여겨지며, 附錄으로 「諺文婚禮笄記」가 있다.

〈7〉『三經四書大全』에 대한 책판 기록은 『林園十六志』(1796년), 附 京外鏤板(條)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 서는 明나라의 永樂 연간에 편찬되었다.

〈8〉『論語諺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四書의 하나인 「論語」의 원문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이다. 선조의 명에 따라 校正廳에서 사서삼경의 언해사업으로 『大學諺解』, 『中庸諺解』, 『孟子諺解』, 『小學諺解』 등과 함께 간행되었다. 선조 23년(1590)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9〉『孟子諺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선조의 명에 따라 校正廳에서 한 사서삼경의 언해사업으로 『大學諺解』, 『中庸諺解』, 『孟子諺解』, 『小學諺解』 등과 함께 간행되었다. 선조 23년(1590)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0〉『增補三韻通考』에 대한 책판 기록은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11〉『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 大篆書義秦漢篆文』의 千字文에 대한 책판 기록은 숙종 44년(1718) 5월 제주목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2〉『千字文』에 대한 책판 기록은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앞의 『千字』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이나 동일본인지는 알 수가 없다.

〈13〉『新增類合』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

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類合』의 미진한 것을 보완하면서 柳希春(1513-1577)이 재편집하여 선조 9년(1576)에 서문을 곁들여서 『新增類合』이라는 이름으로 官板을 냈다.<sup>145)</sup> 『類合』의 1512字의 한자에 대해 약 2배에 가까운 증보가 이루어져 총 3000字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권상에 1000字, 권 하에 2000字를 수록하고 있다.

〈14〉『三國志』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 없다. 晉나라의 陳壽(233~297)가 편찬한 것으로 紀傳體 歷史書이다.

〈15〉『史略』에 대한 책판 기록은 『知瀛錄』(1696년), 『古冊板有處攷』(177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같은 책판이 大靜縣에도 보존되어 있었으며, 『十九史略』과 같은 역사서인 듯 하다.

〈16〉『十九史略通考』에 대한 책판 기록은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十九史略通考』의 본래 명칭은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考』이다. 元의 曾先之가 편찬한 『十八史略』에 明의 余進이 『元史』를 합하여 만든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考』를 줄여서 『十九史略通考』라 한다. 우리나라의 鄭昌順(1727-?)이 撰한 『明史』를 합하여 간행한 9권 8책의 한문본이 있다. 이 『十九史略通考』는 방대한 중국 역사를 적절하게 간추린 중국 역사 입문서로서 일찍부터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영조 48년(1772)에는 『十九史略諺解』로 번역되기까지 하였다.

〈17〉『通鑑』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通鑑」은 宋에서 출간한 책을 그대로 조선에서 증간한 것이다. 이 책은 『資治通鑑』이 삼국 중에 魏를 정통으로 본 것에 반해, 이 책은 蜀漢을 정통으로 세

145) 前間恭作 著; 安春根 譯, 『韓國板本學』, (1985), p. 168.

우는 등 몇 가지 사항에서 주자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資治通鑑』이 정통에서 어긋난다 하여 점차 소외되었고, 대신 이 책이 존중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사서를 편찬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혹은 일상의 문장을 작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通鑑節要』에 대한 책판 기록은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通鑑節要』의 본래 명칭은 『少微家塾點校附音資治通鑑節要』로서 編年體 역사서이다. 江贊가 撰한 『少微通鑑節要』를 眉山 史炤가 音釋하고, 鄱陽王逢이 輯義하였으며 京兆 劉刻이 增校하여 明 宣德 3년(1428)에 간행하였다.

〈19〉『板地圖』에 대한 도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20〉『耽羅地圖』에 대한 도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耽羅誌』(19세기)에 있으며, 세종 21년(1709) 정월에 李等이 개간하였으나, 현재는 간인본만 현전하고 있으며, 규장각에 1軸으로 소장되어 있다. 板은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고 상·하에는 造成記가 있으며, 가운데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규격은 가로 132cm 세로 183cm이다.

〈21〉『地圖』에 대한 도판 기록은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22〉『小學集說』에 대한 책판 기록은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明나라 程愈이 지은 『小學集說』은 朱子の 「小學」을 주해한 참고서로서 이 외에도 明나라 陳選의 『小學集注』· 『小學句讀』과 淸나라 高誘의 『小學纂注』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학』이 중시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인데, 유교의 윤리관을 체득하기 위한 아동의 수신서로서 널리 장려되었으며, 특히 향교나 서원, 서당 등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다루어졌다. 趙光祖, 金安國, 李滉 등도 『小學』의 가치와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金安國은 『小學』을 한글로 번역한 『小學諺解』를 발간하여 민간에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다. 朴在馨은 『小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우리나라 儒賢의 언행과 충신, 효자 등의 고사를 첨가하여 『海東小學』편집 간행하기도 하였다.

〈23〉『敬齋箴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나와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래 『敬齋箴』은 朱子가 張敬夫의 『主一箴』을 보고 ‘敬’에 대하여 편집한 것이나, 그 후 宋의 王柏이 『敬齋箴』을 圖式化하였으며 또 退溪 李滉이 『聖學十圖』 중에서 王柏의 『敬齋箴圖』를 그리고 해설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李象靖(1710~1781)이 주자의 『敬齋箴』과 유림의 說을 채집하고 또 經傳과 先儒들의 說에서 敬說을 모아 『警齋箴集說』로 엮어냈다.

〈24〉『三略』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래의 명칭은 『六韜三略』이다. 秦나라 黃石公이 지었다고 전하며, 중국 고대 兵學의 최고봉인 武經七書 중 두 번째 도서이다.

〈25〉『三略直解』에 대한 책판 기록은 『林園十六志』(179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26〉『焰硝新方』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래의 명칭은 『新傳煮硝方』이다. 焰硝 즉 화약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책으로서 譯官인 金指南(1654~?)이 지었다. 金指南의 기록에 따르면, 朝鮮 초기에는 화약 제조기술을 몰라서 중국에서 도입하려고 애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고심했고, 崇禎(1628~1644) 시대에 關西의 成根이란 이가 비로소 언어와 武庫에서 실험해 보고 完豐 李府院이 책으로 편찬해서 完城 崔相國(崔鳴吉)의 발문을 붙여 간행했으며, 다시 韓世龍이란 이가 일본인에게서 배워 온 것이 成根의 것보다 우수해서 대치했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金指南은 숙종 18년(1692) 역관으로서 燕行에 수행할 때 절사의 부사인 閔就道の 권유를 받고 중국에서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그 제조법을 배울 수 없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遼陽에서 한 사람을 만나 돈을 주고 배우다가 시간이 없어 그 대로 돌아왔다. 閔公의 건의에 힘입어서 이듬해(1693)에 金指南이 歲使의 일행

에 끼어 특별히 과전 되었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엄령이 내려지고 국방의 기밀을 누설한 죄로 여러 사람이 처형당할 정도였다. 기어코 첩보원을 얻어내서 거듭 거듭 방문하며 질문하곤 함으로써 완전히 숙달하고 돌아와 실험에도 성공했다. 閔公의 北遷으로 후원자를 잃었으나, 南九萬이 인정과 위촉을 받아 武庫에서 2년 동안 큰 성과를 올리고 전국의 군대와 병영에까지 보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제조법의 장점은 아무데서나 재료를 얻을 수 있고, 제품의 保存性이 강하며, 재료가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이고, 제조 기간이 짧은 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약의 제조법이 국제적인 기밀로 되어 있는 당시 상황과 그것을 알아 내기 위해 사절단의 수행원인 역관에게 특수 임무를 떠우는 조정의 노력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국방과학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7〉『馬醫』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志』(1653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본래 명칭은 『馬醫方』인 듯 하다. 1653년 책판에는 『馬醫』라 하였고, 이후 책판에는 『馬醫方』이라 하고 있다. 1413년 태종은 惠民局의 助教인 金敬珍 등 4인을 司僕寺에 속하게 하여 『馬醫方』을 익히도록 명하였고, 그 遷轉 출신은 繕工監의 權知直長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sup>146)</sup> 또한 1431년 세종은 이조에서 “제주 사람은 醫術이 정밀하지 못하여 3분의 병든 사람을 구료하기 어렵고, 또 敎諭는 1주년 뒤에 사고가 없으면 체임 시키므로, 바닷길에 오고가는 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벼슬을 받은 지 3, 4개월 후에야 부임하게 되어, 7-8개월 동안에 훈도의 임무를 다하기란 어렵습니다. 원컨대 수령과 교수관의 예에 의하여 30개월이 차거든 체임하기를 허락하고, 안무사가 그의 생도 교훈의 功課와 병자 구료의 숫자를 상고하여 포폄해서, 능한 자는 경직에 서용하게 하소서. 『馬醫方』도 역시 별도로 가르치고, 檢律의 체임 기한과 律文의 敎誨도 교유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하도록 하였다.”<sup>147)</sup> 이로 미루어 당시 조정에서 제주에 放牧하는 牛馬 등에 대하여 매우 특별하게 관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28〉『馬醫方』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耽羅誌』(19세기)

146) 『朝鮮王朝實錄』, 太宗 十三年 八月 六日 壬子 (條).

147) \_\_\_\_\_, 世宗 十三年 四月 十一日 乙巳 (條).

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1413년 태종은 惠民局의 助教인 金敬珍 등 4인을 司僕寺에 속하게 하여 「馬醫方」을 익히도록 명하였고, 그 遷轉 출신은 繕工監의 權知直長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

〈29〉『宣廟御筆大字草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知瀛錄』(1696년), 『古冊板有處攷』(177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으나, 제주목사 이익태가 1696년에 교생들의 요청에 따라 판각한 것으로, 선조 임금이 쓴 대자 초서이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宣廟御筆』은, 宣祖의 서체로서 1帖(21折 42面), 木板本, 규격 49.4×31.6cm, 四十幅 筆帖이다. 朝鮮紙 四切 크기에 大字로 써서 木板에 새긴 것을 印出한 것이다. 義昌君 珖이 쓴 跋文이 있어 그 刊行 경위를 알 수 있다. "宣廟께서 萬機의 政事を 하시는 餘暇로는 언제나 손에 붓을 놓지 않으시고 쓰시는 데 반드시 揮墨하시와 點汚를 남에게 보이지 않으시니 士大夫들이 모두 한번 보려 해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世上에 傳하지 못하였으나 저는 어려서 궁중에 있을 때 膝下에서 모시고 있으니 사랑하시와 宸筆을 주신 것이 적지 않았으나 여러 번 變故를 지나서 대부분은 遺失되고 겨우 若干만을 保存하였으나 시대가 오래가면 湮滅해서 전하지 못할까 우려하여 刊板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우리들 자손만의 寶物이 아니라 실로 우리나라 億萬年에 다같이 寶物이 될 것이다."고 하고 「崇禎三年 庚午(1630 년 夏六月上澣)에 기록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木板 陰刻本이다. 「戊戌 臘月廿七日」이란 日附가 있다.

〈30〉『宣廟御筆草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선조의 草書 서첩이다.

〈31〉『春種書類』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雪菴의 書體인 『春種帖』인 듯 하다.

〈32〉『春種帖』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雪菴의 書體인 『春種帖』인 듯 하다.

〈33〉『春種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雪菴의 書體인 『春種帖』인 듯 하다.

〈34〉『顏眞卿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안진경의 서체를 서판으로 판각한 것이나 현전본이 없어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顏眞卿帖』인 듯 하다.

〈35〉『顏眞卿帖』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안진경의 서체를 서판으로 판각한 것이나 현전본이 없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안진경(709~785)은 唐나라 서예가이다. 그의 글씨는 南朝 이래 유행해 내려온 王羲之의 典雅한 서체에 대한 반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남성적인 박력 속에 均齊美를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唐代 이후의 중국 書道를 지배하였다. 해서·행서·초서의 각 서체에 모두 능하였으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36〉『朱子筆敬齋箴』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37〉『石峰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石峰帖』인 듯 하다.

〈38〉『石峰帖』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석봉의 글을 판각한 것이다.

〈39〉『雪峰書』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雪峰帖』인 듯 하다.

〈40〉『雪峰帖』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

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 없다. 『雪峰書』인 듯하다. 雪峰은 姜栢年(1603~1681)의 호이다. 그의 본관은 진주, 자는 叔久, 호는 雪峰·閑溪·聽月軒, 시호는 文貞이다. 인조 5년(1627) 정시문과에 급제하였고, 1646년 부교리로 있을 때 姜嬪獄事가 일어나자 강빈의 억울함을 상소했다가 한때 삭직되기도 했다. 현종 1년(1660) 예조참판으로서 冬至副使가 되어 淸나라에 다녀왔으며 文名이 높았다. 문집에 『雪峰集』, 『閑溪謾錄』등이 있다. 書帖인 『雪峯遺筆』은 池運永(1852~1935)書, 1冊(16張), 木板本, 表紙書名은 雪峯書이다. 行書로 『岳陽樓記』를 쓴 것을 木板으로 板刻한 것이다. 처음 오언을시는 특별히 大字로 썼고 岳陽樓記의 뒤에는 “歲癸卯暮春下浣雪峰書, 甲辰 孟夏 臨瀛府 開刊”이라고 쓴 것을 보아 고종 7년(1870)이나 그 이듬해에 써서 發刊한 것이다. 筆者 池運永은 혹은 雲英이라고도 한다. 본은 忠州, 우리나라에서 종두를 처음 실시한 池錫永의 兄이다. 儒·佛·仙에 조예가 깊고, 詩·書·畵에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41〉『篆字 板』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篆千字文』인 듯하다.

〈42〉『篆千字文』에 대한 책판 기록은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篆書로 쓴 서첩이다. 고려대학교도서관에 申汝權가 쓴 목판본류가 있다.

〈43〉『太史公筆』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사마천이 지은 『史記』의 『太史公自序』의 내용인 듯하나 현전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44〉『太公事筆 板』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 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太史公筆』과 같은 板類인 듯 하다.

〈45〉『草書大字中字』에 대한 책판 기록은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이나 서판 내용을 알 수가 없다.



〈46〉『出師表』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濟州邑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이나 서판 내용을 알 수가 없다. 明나라의 명필인 祝允明(1460~1526)이가 쓴 출사표(楷書前後出師表)와 적벽부가 전한다.

〈47〉『捷解新語』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다. 제주목에서는 1699년(康熙 乙卯)에 朴世英에 의해 鑄字本을 復刻하여 10권 3책으로 개간하였는데, 庚辰本으로 불려지는 활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捷解新語』는 康遇聖(생물미상)이 임진왜란(1592년)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10년만에 귀국하여 1670년에 지은 일본어 교습서이다. 돌아와서는 일본어와 일본 풍속에 통달하여 倭學訓導가 되었고, 일본과의 통상외교임무를 수행하였다. 1670년(현종 11) 간행된 그의 저서 『捷解新語』10권은 1678년(숙종 4) 이후부터 譯科의 倭學 취재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748년(영조 24)에 譯官 崔鶴齡·崔樹仁이 개수한 『改修捷解新語』 12권, 12책 목판본이 있다. 이후 최학령이 다시 정정 간행(1781년)한 『重刊捷解新語』 12권, 12책이 있으며, 金健書가 개수한 『捷解新語文釋』 12권 있다.

〈48〉『謹齋先生集』에 대한 책판 기록은 1680년 제주목에서 개간되어 羅州로 목판을 옮겼다는 간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서지사항으로는 謹齋先生集, 安軸(1282~1348)<sup>148)</sup> 著, 木版本, 숙종 6년(1680)跋, 1冊이다. 四周雙邊, 半葉匡郭: 21.6×15.2 cm, 有界, 10行 19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32.2×20.6 cm이다. 跋: 崇禎紀元後庚申(1680)…慶運, 刊記: 庚申(1680)冬刊于濟州移藏板本於羅州라하

148) 安軸(1282~1348)의 본관 順興, 자는 當之, 호는 謹齋, 諡號는 文貞이다. 福州 興寧縣人으로 碩의 아들. 天性이 穎悟하고 力學하여 文에 능하였으며, 登第하여 金州司錄을 거쳐 史翰에 選補되었으며, 다시 司憲糾正에 제수되었다. 1324년(高麗 忠肅王 11)元에서 登科, 遼陽路蓋州判官을 제수 받았다. 本國에 와서는 成均樂正, 후에 累遷되어 右司儀大夫가 되었으며 忠惠王이 卽位하자 命을 받고 江原道를 存撫했다. 이 때에 지은 詩文集을 「關東瓦注」라 하는데 詞意精妙하고 忠君憂民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樂正에서 監察大夫까지 모든 館職을 지냈으며, 表, 箋, 詞 命이 거의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는 檢校評理로서 尙州牧에 있을 때 興寧에 계신 母親에게 盡孝했다. 忠穆王이 즉위하자 密直副使가 되었고 僉議贊成事, 監春秋館事를 지냈으며 李齊賢과 같이 閔漬가 既撰한 『編年綱目』을 增修했고, 또한 忠烈·忠宣·忠肅의 三朝實錄을 修編했다. 후에 興寧君에 封하여졌다. 경기체가인 『關東別曲』, 『竹溪別曲』을 남겨 문명을 날렸다.

여, 1680년 겨울 제주목에서 개간되어 나주로 옮겼다. 附錄으로는 三先生世稿(宗源, 純, 崇善)가 있다. 본서의 주 내용은 安軸의 詩文遺稿를 편집한 것으로 제1차로 外甥인 鄭良生이 1364년(高麗 恭愍王 13)에 刊行했고, 2차로 後孫 崇善이 世宗 27년(1445)에 補遺를 加하여 재간했던 것을, 제3차로 숙종 6년(1680)에 後孫 慶運이 全羅道防禦使로 재임 시 先祖 四代의 유고 및 傳, 碑碣文 등을 합쳐 濟州에서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謹齋先生集』은 “순흥안씨삼과종회에 의하면 安慶運은 安軸(6世)의 14대 후손으로 字는 善餘, 號는 感齋이며, 1683년 癸亥에 태어나 1749년 己巳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149)</sup> 그러므로 安慶運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謹齋先生集』에 쓰여진 庚申은 1680년이 아닌 174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謹齋先生集』은 1740년 庚申에 제주에서 간인하여 장판과 인본을 모두 전라도 나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sup>150)</sup>

〈49〉『密山世稿』에 대한 책판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19세기),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19세기), 『耽羅誌』(19세기)에 있으나 濟州牧藏本類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朴啓賢(1524~1580)이 지었다. 朴啓賢의 자는 君沃, 호 灌園, 시호 文莊. 중종 38년(1543) 진사가 된 후 명종 7년(1552) 식년문과 을과에 급제하였다. 滿浦鎭兵馬僉節制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中樞府知事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 선조 13년(1580) 병조판서·중추부지사를 지냈다.

149) <http://www.shahn3.com/3/17.pdf>

150) 윤봉택, 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제34집, 서지학회 (서울:2006. 9), p. 263~264.

## VI.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 양상

지금까지 고려시대 묘련사의 교장 간행 사실과 조선시대에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과 판본 그리고 현존본 등을 중심으로 제주지방의 출판물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책판·판본을 동양의 전통 분류법인 四分法에 따라,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를 고찰함에 있어, 먼저 15~19세기 까지 세기별로 사분법에 따라 분류한 후, 출판문화 양상을 분석하고자한다

### 1. 經部 文獻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개간된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1296년 제주 묘련사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이다. 그러나 이 불서는 현재 실전되어 판본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松廣寺와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曹溪山 松廣寺史庫』와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임란 이전,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가운데 經部에 속하는 책판에 대하여는 다른 기록이 없으며, 현전본을 중심으로 할 때, 태종 18년(1418) 3월 제주목에서 개간된 癸未字 번각본 『禮記淺見錄』<sup>151)</sup> 1종만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經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21종으로서 1435년 제주목의 1차 화재 이후에 개간된 책판들이다. 1677년 화재 이전에 개간된 經部の 책판류는 『書傳大文』, 『詩傳大文』, 『家禮』, 『孝經』, 『大學』, 『大學諺解』, 『中庸』, 『中庸諺解』, 『論語』, 『孟子』, 『三韻通考』, 『童蒙先習』, 『類合』, 『千字』, 『童子習』 등 15종이며,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諺解疑禮問解』, 『諺解喪禮備要』, 『大學』, 『中庸』, 『論語』, 『孟子』 등 6종과 제주향교에서 1695년에 개간된 『喪禮備要』1종 등 전체 7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책판류는 아래 <표 5>와 같다.

---

151)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板本(癸未字覆刻), 26卷, 1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永樂十六年(1418) 戊戌...河澹. 濟州.

〈표 5〉 經部(17세기 개간)

분류 판류		板 本	冊 板		비고 (계)
		現 傳	耽羅志	知瀛錄	
			1653년	1696년	
經部	書 類		書傳大文		1
	詩 類		詩傳大文		1
	禮 類	喪禮備要 (濟州鄉校 開刊) 1695년	家禮	諺解疑禮問解 諺解喪禮備要	3
	孝經類		孝經		1
	大學類		大學, 大學諺解	大學	3
	中庸類		中庸, 中庸諺解	中庸	3
	論語類		論語	論語	2
	孟子類		孟子	孟子	2
	小學類		三韻通考, 童蒙先習 類合, 千字, 童子習		5
	계	1	15	5	21

1677년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18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經部는 『禮記淺見錄』, 『三經四書大典』,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三韻通考』, 『增補三韻通考』,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千字』, 『千字文』, 『童蒙先習』, 『新增類合』 등 13종으로 조사되었다.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冊板目錄』 등에 수록된 經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24종이나 동일 명칭이 아닌 책판류는 16종으로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經部(18세기 개간)

분류 판류		板本	冊 板			비고 (계)
		現傳本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鑲板)	鑲板考	
			1776년 이전	1796년 이전	1796년	
經部	禮 類		喪禮備要	喪禮備要	喪禮備要	3(1)
			疑禮問解	疑禮問解	疑禮問解	3(1)
				疑禮問解續解		1(1)
			禮記淺見錄	禮記淺見錄	禮記淺見錄	3(1)
	大學類		大學諺解	三經四書大典		2(2)
	中庸類		中庸諺解			1(1)
	論語類		論語諺解			1(1)

	孟子類		孟子諺解			1(1)
	小學類		三韻通考	增補三韻通考	增補三韻通考	3(2)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千字板		千字文	3(3)
			童蒙先習		童蒙先習	2(1)
			新增類合			1(1)
	계	1	11	6	6	24 (16)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앞의 18세기의 經部와 대조하여 본 결과, 19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經部는 『大學』, 『中庸』, 『論語』, 『孟子』, 『婚禮笏記』 등 5종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經部 책판류의 복각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冊板目錄』 등에 수록된 經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43종이나 동일 명칭이 아닌 판류는 15종으로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經部(19세기 개간)

판류		분류	板本	冊 板				비고 (계)
			現傳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三邑誌	耽羅誌	
				1841년	19세기(전기)	(19세기)	(19세기)	
經部	禮類		喪禮備要	喪禮備要	喪禮備要	喪禮備要	喪禮備要	4(1)
			疑禮問解	疑禮問解	疑禮問解	疑禮問解	疑禮問解	4(1)
		婚禮笏記	禮記淺見錄	禮記淺見錄	禮記淺見錄	禮記淺見錄	禮記淺見錄	4(1)
	大學類		大學	大學諺解	大學	大學	大學	4(2)
	中庸類		中庸	中庸諺解	中庸	中庸	中庸	4(2)
	論語類		論語	論語諺解	論語	論語	論語	4(2)
	孟子類		孟子	孟子諺解	孟子	孟子	孟子	4(2)
	小學類		三韻通考	三韻通考	三韻通考	三韻通考	三韻通考	4(1)
			千字文		千字文	千字文	千字文	4(1)
			童蒙先習	童蒙先習	童蒙先習	童蒙先習	童蒙先習	4(1)
			新增類合	新增類合	新增類合	新增類合	新增類合	4(1)

	계		11	10	11	11	43 (15)
--	---	--	----	----	----	----	------------

## 2. 史部 文獻

임란 이전,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가운데 史部에 속하는 책판은 사료와 책판목록 그리고 현전본을 중심으로 할 때, 세종21년(1439)에 개간되었다는 刑獄詞訟類의 『檢屍狀式』<sup>152)</sup>이 있는데, 이는 사료로만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明宗 연간(1554년 이전)에 개간된 別史類의 『東國史畧』과 明宗 10년(1555)4월에 제주목사 金秀文이 중간한 이른바 嘉靖本<sup>153)</sup>으로 알려지고 있는 목판본 『牧民心鑑』등 전체 3종이 조사되었다.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史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4종으로서 1435년 제주목의 1차 화재 이후에 개간된 책판들이다. 1677년 화재 이전에 개간된 史部の 책판류는 『十九史略』, 『牧民心鑑』 등 2종이며,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화재 이후에 개간된 것은 『史略』 1종이었음이 조사되었고, 책판류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史部(17세기 개간)

분류 판류		板 本	冊 板		비고 (계)
		現 傳	耽羅志	知瀛錄	
			1653년	1696년	
史部	別史類		十九史略	史略	2(2)
	職官類		牧民心鑑		1(1)
	地理類	耽羅志	耽羅志		2(1)
	계	1	3	1	5(4)

152) 『朝鮮王朝實錄』, 世宗 二十一年 二月 六日 乙卯 (條) : 命 漢城府 刊行檢屍狀式 又傳旨各道觀察使及 濟州 安撫使 刊板摸印 頒諸道內各官.

153) 金成俊, 『동방학지』 제62호 (1988).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1677년 2차 화재로 인하여 책판이 전소되고 난 이후에 새로 개간되거나 복각된 것이다.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18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史部의 正史類로는 『三國誌』, 別史類는 『十九史略通考』, 編年類는 『通鑑』, 『通鑑節要』가 있었으며, 地理類는 『耽羅志』, 『板地圖』등 전체 6종이었으나, 別史類의 『史略』이 『知瀛錄』에 기록된 『史略』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또한 이 기록으로 보아 『耽羅志』가 복각되었는지도 자세하지가 않다.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冊板目錄』 등에 수록된 史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15종이나 동일 명칭이 아닌 판류는 7종으로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史部(18세기 개간)

판류	분 류	板本	冊 板			비 고 (계)
		現傳本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鑲板)	鑲板考	
			1776년 이전	1796년 이전	1796년	
史 部	正史類		三國誌	三國誌	三國志	3(1)
	別史類		史略(대정현.1)	十九史略通考	十九史略通考	3(2)
	編年類		通鑑	通鑑節要	通鑑節要	3(2)
	地理類			耽羅志	耽羅志	2(1)
			板地圖			1(1)
	계		4	4	4	12(7)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앞의 18세기의 史部와 대조하여 본 결과, 19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史部는 職官類의 『牧民心鑑』, 地理類의 『地圖』 등 2종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史部 책판류의 신간·복각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冊版庫 目錄」 등에 수록된 史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19종이나 동일 명칭이 아닌 판류는 6종으로 아래 <표10>과 같다.

〈표 10〉 史部(19세기 개간)

판류	분류	板本	冊 板				비고 (계)
		現傳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三邑誌	耽羅誌	
			1841년	19세기(전기)	(19세기)	(19세기)	
史部	正史類		三國誌	三國誌	三國誌	三國誌	4(1)
	別史類		史略	史略	史略	史略	4(1)
	編年類		通鑑	通鑑	通鑑	通鑑	4(1)
	職官類		牧民心鑑			牧民心鑑	2(1)
			耽羅誌			耽羅誌	2(1)
	地理類	耽羅地圖	耽羅地圖	地圖		耽羅地圖	4(1)
	계		6	4	3	6	19(6)

### 3. 子部 文獻

임란 이전,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가운데 子部에 속하는 책판은 사료와 책판목록 그리고 현전본을 중심으로 할 때, 명종년간(1554년 이전)에 개간된 藝術類의 『浣花流水』<sup>154)</sup>와 선조 7년(1524)에 개간된 藝術類의 『赤壁賦』가 <sup>155)</sup> 등 2종이다.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子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22종으로서 1435년 제주목의 1차 화재 이후에 개간된 책판들이다. 1677년 화재 이전에 개간된 子部 중 儒家類는 『性理大全書』<sup>156)</sup>, 『小學』, 『小學諺解』, 『正俗』, 『擊蒙要訣』 등 5종이며, 兵家類는 『吳子直解』<sup>157)</sup>, 『將鑑博議』, 『兵學指南』 등 3종, 醫家類는 『新編集成馬醫方』, 『新編牛醫方』<sup>158)</sup>, 『救急方』, 『經驗方』, 『馬牛方』 등 5종, 藝術類는 『春種』, 『藤王閣序』, 『草千字』, 『退溪書』, 『聽蟬書』, 『宣廟御筆大字草書』 등 5종

154) 魚叔權(朝鮮) 編, 『攷事撮要』, 影印本(筆寫本), (1995), p. 193.

155) 蘇軾(宋) 著 ; 趙孟頫(元) 書, 『赤壁賦』, 刊記 : 萬曆二年(1574)八月初七日濟州開刊.

156) 『性理大全書』, 胡廣(明)等, 受命編, 木版本, 1644년간(인조 22年) 70卷 35冊, 卷末 ; 州牧使…元肅羽[等].

157) 南權熙, 『古印刷文化』 8집 (2001), p. 232.

158) 趙浚(朝鮮) 等 撰集, 『新編集成馬醫方』, 1책, 木版本,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刊記 :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



으로, 임난 이전 2종 포함하여 전체 21종이다.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화재 이후에 개간된 子部 중 儒家類 『小學』, 藝術類 『宣廟御筆大字草書』 등 2종이었음이 조사되었고, 책판류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 11> 子部(17세기 개간)

분류 판류		板 本	冊 板		비고 (계)
		現 傳	耽羅志	知瀛錄	
			1653년	1696년	
子部	儒家類	性理大全書 (1644년)	小學, 小學諺解 正俗, 擊蒙要訣	小學	5(5)
	兵家類	吳子直解 (1640년)	將鑑博議, 兵學指南		3(3)
	醫家類	新編集成馬醫方 (1633년) 新編牛醫方	救急方 經驗方 馬牛方		5(5)
	藝術類		浣花流水(임난 이전) 赤壁賦(임난 이전) 春種, 藤王閣序, 草千字, 退溪書 聽蟬書	宣廟御筆 大字草書	8(8)
	계	4	16	2	22(21)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1677년 2차 화재로 인하여 책판이 전소되고 난 이후에 새로 개간되거나 복각된 것이다.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18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子部の 儒家類는 『小學諺解』, 『擊蒙要訣』, 『敬齋箴書』 등 3종, 兵家類는 『兵學指南』, 『三略』, 『三略直解』, 『炤硝新方』 등 4종이다. 醫家類는 『馬醫』 1종, 藝術類는 『春種書類』, 『顏眞卿書』, 『石峰書』, 『雪峰書』, 『篆字板』, 『太公事筆板』, 『草書大字中字』, 『出師表』 등 8종, 譯學類는 『捷解新語』 1종으로 전체 17종이다.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冊板目錄』 등에 수록된 子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25종이나 동일 명칭이 아닌 판류는 17종으로 아래 <표12>와 같다

〈표 12〉 子部(18세기 개간)

<div> <div>분류</div> <div>판류</div> </div>		板本	冊 板			비고
		現傳本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鑲板)	鑲板考	
			1776년 이전	1796년 이전	1796년	
	儒家類		小學諺解	小學集說	小學集說	3(1)
			擊蒙要訣	擊蒙要訣	擊蒙要訣	3(1)
			敬齊箴書			1(1)
子部	兵家類		兵學指南	兵學指南	兵學指南	3(1)
			三略	三略直解	三略	2(2)
			炤炤新方			1(1)
	醫家類		馬醫			1(1)
	藝術類		宣廟御筆草書 板 春種書類, 顔眞卿書 石峰書, 雪峰書 篆字板, 太公事筆 板 草書大字中字, 出師表			9(8)
	譯學類		捷解新語			1(1)
	계		17	4	4	25 (17)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앞의 18세기의 子부와 대조하여 본 결과, 19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子부는 醫家類의 『馬醫方』 1종이며, 藝術類의 『春種帖』, 『顔眞卿帖』, 『朱子筆敬齊箴』, 『石峰帖』, 『雪峰帖』, 『篆千字文』, 『千字』, 『出師表』 등 8종 등 전체 9종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子部 책판류의 신간·복각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耽羅誌草本』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濟州邑誌』, 『濟州島三邑誌』, 『耽羅誌』의 「冊板條」와 비교하여 볼 때, 『耽羅誌草本』을 轉寫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冊版庫 目錄」등에 수록된 子부에 속하는 책판류는 60종이나, 동일 명칭이 아닌 판류는 26종으로 책판목록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 13〉 子部(19세기 개간)

판류 분류		板本	冊 板				비고 (계)
		現傳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三邑誌	耽羅誌	
			1841년	19세기(전기)	(19세기)	(19세기)	
子 部	儒家類		小學	小學諺解	小學	小學	4(2)
			擊蒙要訣	擊蒙要訣	擊蒙要訣	擊蒙要訣	4(1)
				敬齊箴書			1(1)
	兵家類		兵學指南	兵學指南		兵學指南	3(1)
			三略	三略	三略	三畧	4(1)
			焰硝新方	焰硝新方	焰硝新方	焰硝新方	4(1)
	醫家類		馬醫方	馬醫		馬醫方	2(2)
	藝術類		宣廟御筆草書	宣廟御筆草書	宣廟御筆草書	宣廟御筆草書	4(1)
			春種帖	春種書	春種帖	春種帖	4(2)
			顏眞卿帖	顏眞卿書	顏眞卿帖	顏眞卿帖	4(2)
			朱子筆敬齊箴		朱子筆敬齊箴	朱子筆敬齊箴	3(1)
			石峰帖	石峯書	石峰帖	石峰帖	4(2)
			雪峰帖	雪峯書	雪峰帖	雪峯帖	4(2)
			篆千字文	千字	篆千字文	篆千字文	4(2)
			太史公筆	太公口筆		太史公筆	3(1)
				篆字			1(1)
				出師表			1(1)
				草書大字中字			1(1)
	譯學類		捷解新語	捷解新語	捷解新語	捷解新語	4(1)
	계		15	18	12	15	60 (26)

#### 4. 集部 文獻

임란 이전,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가운데 集部에 속하는 책판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集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7종으로서 1435년 제주목의 1차 화재 이후에 개간된 책판들이다. 1677년 화재 이전에 개간된 集部 중 總集類는 『唐詩絕句』, 『玉壺冰』, 『續靑丘風雅抄』 등 3종이며, 別集類는

『圃隱集』, 『冲庵集』, 『東溟集』 등 3종, 小說類는 『剪燈新話』 등 1종으로 전체 7종이다.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화재 이후에 개간된 集部 중 小說類 『剪燈新話』가 있었음이 조사되었고, 책판류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 14> 集部(17세기 개간)

분류 판류		板 本	冊 板		비고 (계)
		現 傳	耽羅志	知瀛錄	
			1653년	1696년	
集部	總集類		唐詩絕句 玉壺冰 續青丘風雅抄		3(3)
	別集類		圃隱集 冲庵集 東溟集		3(3)
	小說類		剪燈新話	剪燈新話	2(1)
	계		7	1	8(7)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1677년 2차 화재로 인하여 책판이 전소되고 난 이후에 새로 개간되거나 복각된 것이다. 화재 이후에 편찬된 『知瀛錄』을 근거로 할 때, 18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集部の 總集類는 『嶺海唱酬錄』<sup>159)</sup>과 제주목에서 개간되어 羅州牧으로 옮겨간 『謹齋先生集』<sup>160)</sup> 등 2종이며, 別集類는 『密山世稿』 1종 등 전체 3종이다.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冊板目錄』 등에 수록된 集部に 속하는 책판류는 전체 8종이나 동일 명칭이 아닌 판류는 4종으로 아래 <표15>와 같다.

<표 15> 集部(18세기 개간)

159) 『嶺海唱酬錄』,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濟州營, 肅宗27年(1701), 刊記 : 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 附錄: 濯白唱酬錄.

160) 『謹齋先生集』, 安軸(1282~1348) 著, 木版本, 숙종 6년(1680), 1冊, 刊記 : 庚申(1680)冬刊于濟州 移藏板本於羅州.

판류	분 류	板本	冊 板			비고 (계)
		現傳本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1776년 이전	1796년 이전	1796년	
集部	總集類	嶺海唱酬錄	嶺海唱酬錄		嶺海唱酬錄	3(1)
		謹齋先生集				1(1)
	別集類		密山世稿	密山世稿	密山世稿	3(1)
	小說類		剪燈新話			1(1)
	계	2	3	1	2	8(4)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앞의 18세기의 集部와 대조하여 본 결과, 19세기에 신간 또는 복각된 集部는 總集類의 『玉壺氷』 1종이며, 나머지 集部 책판류의 신간·복각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19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冊版庫 冊板」등에 수록된 集部에 속하는 책판류는 14종 중, 동일 명칭이 아닌 판류는 4종으로 책판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6〉 集部(19세기 개간)

판류	분 류	板本	冊 板				비고 (계)
		現傳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三邑誌	耽羅誌	
			1841년	19세기(전기)	(19세기)	(19세기)	
集部	總集類		玉壺氷			玉壺氷	2(1)
		現傳	嶺海唱酬錄	嶺海唱酬錄	嶺海唱酬錄	嶺海唱酬錄	4(1)
	別集類		密山世稿	密山世稿	密山世稿	密山世稿	4(1)
	小說類		剪燈新話	剪燈新話	剪燈新話	剪燈新話	4(1)
	계		4	3	3	4	14(4)

## VII.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과 板本類가 기록된 『冊板目錄』과 「冊版庫目錄」, 그리고 현존 책판과 간인본을 중심으로,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대하여 분석·고찰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11~13세기까지 제주지방은 元나라와 高麗國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元과 高麗에 공물로 궁궐건축·造船 등에 필요한 제주산 板材를 공급하는 전진기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 째, 이와 같은 풍부한 板材를 바탕으로 1296년 제주 묘련사에서 『金光明經文句』가 개간되면서, 제주지방의 판각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셋 째, 조선 건국과 함께 제주지방에서도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崇儒政策에 따라 향교와 서원이 건립되면서 지방자제들의 교육과, 醫療濟民, 우마 방목에 필요한 獸醫書,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빈번하는 왜침 방어를 위해 兵書가 간행되었고, 지방 자제들의 書學을 위한 書學書들이 많이 개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 째, 제주지방에서 개간된 책판 판각은 제주목에서 이뤄졌고, 치목·연판·판각 등도 제주인들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지방의 출판문화 수준이 매우 뛰어났음이 확인되었다.

다섯 째, 고려조 1296년에 제주 묘련사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 째, 제주지방에서 개간된 책판 사실을 기록한 문헌으로는 『曹溪山松廣寺史庫』 1종,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朝鮮王朝實錄』 등이며, 『冊板目錄』이 수록된 문헌은 『攷事撮要』 2종, 『古冊板有處攷』 35종,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15종, 『鏤板考』 16종이고, 「冊版庫 目錄」사실이 기록된 자료는 『耽羅志』 41종, 『知瀛錄』 10종, 『耽羅誌草本』 36종, 『濟州邑誌』 35종,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29종, 『耽羅誌』 36종,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 이며, 이를 통하여 동일 책판 명칭을 포함 256종의 책판목록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이를 비교한 결과 동일 명칭의 책판을 제외하고 유사한 책판류를 포함하면, 고려조 제주도에서 개

간된 판본이 1종,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유사 책판류 등 118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現傳하는 책판이 극히 낱개에 불과 하지만, 『孟子大全』 권6, 『孟子諺解』 권9, 『論語大全』 권17, 『三國演義』 권11, 『通□』 권19, 『疑禮問解』 권2, 판독미상 2종 등 현전하는 冊板 9종이 濟州牧藏本으로 조사되었다.

일곱 째, 임란 이전에 개간된 출판물은 현존본을 포함하여 『禮記淺見錄』, 『東國史畧』, 『牧民心鑑』, 『檢屍狀式』, 『赤壁賦』, 『浣花流水』 등 6종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선조 태종 18년(1418) 3월 제주목에서 『禮記淺見錄』이 가장 먼저 개간되었음이 밝혀졌다.

여덟 째, 1418년에 개간된 『禮記淺見錄』을 비롯하여 『赤壁賦』(1574), 『新編集成馬醫方』(1633), 『吳子直解』(1640), 『性理大全書』(1644), 『耽羅志』(1653), 『喪禮備要』(1695), 『嶺海唱酬錄』(1702),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1718), 『謹齋先生集』(1740), 『婚禮笏記』(1856) 등을 포함 11종의 간인본이 현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홉 째, 제주목에서 세종 17년(1435)과 숙종 3년(1677)에 발생한 두 차례 화재가 당시 제주목 관아 건물과 책판 등이 전부 소실될 만큼 大火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책판이 개간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조 제주목에서 책판이 개간된 시기를 조선개국~1435년, 1436년~1677년, 1678~1899년까지 3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동일종의 판본 개간 절대 年代를 시기별로 구분 추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주목에서 개간된 판본류를 시기별로 구분한 결과, 제1기 조선조 개국부터 1435년까지는 『禮記淺見錄』 1종이 개간되었다. 제2기 1436년부터 1677년까지는 『赤壁賦』 등 經部 15종, 史部 4종, 子部 20종, 集部 8종 등 47종이 개간되었다. 제3기 1678부터 1899년까지는 『諺解喪禮備要』 등 經部 23종, 史部 11종, 子部 31종, 集部 5종 등 70종이 개간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 1418년 『禮記淺見錄』이 처음 개간된 이후 19세기 말 까지 개간·복각을 포함하여 經部 39종, 史部 15종, 子部 51종, 集部 13종 등 118종의 책판이 개간되었음이 조사되었다.

열 째, 제주지방의 조선시대에 개간된 책판류를 四分法으로 분류하면서 출판문화 특성을 살펴본 결과, 동일 책판류를 제외한 經部에서 28종, 史部 14종, 子部

47종, 集部 10종 등 99종이었다. 板種 數로는 子部·經部·史部·集部 순으로 子部에서도 藝術類가 27종이 되고 있어, 당시 제주지방에서는 書學을 비롯한 藝術 문화 활동이 제주도로 流配된 선비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이뤄졌음이 조사되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개간된 판본류에 대하여는 그 양과 질에 비하여 육지부와 의 현격한 차이 때문인지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傳存本과 각종 사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유배지라는 절해고도에서 13세기 원의 지배 하에서도 『金光明經文句』가 개간되었고, 조선조 초 『禮記淺見錄』이 제주목에서 개간되었으며, 1677년(숙종 3년) 관아 대화재 이후에도 꾸준히 책판들이 개간된 사실은, 앞으로 제주도의 板本史를 비교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 〈참고 문헌〉

### 1. 원전자료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개인소장.

松廣寺, 『曹溪山松廣寺史庫』, 권4, 4책, 稿本, 1934년간, 송광사 소장.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單券, 1책, 稿本, 1938년간, 藏書閣 소장.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板本(癸未字覆刻), 1418년간,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蘇軾(宋) 著 ; 趙孟頫(元) 書, 『赤壁賦』, 木板本, 1574년간, 藏書閣所藏.

魚叔權(朝鮮) 編, 『攷事撮要』, 影印本(筆寫本), 부산 : 민족문화, 1995.

趙浚(朝鮮) 等 撰集, 『新編集成馬醫方』, 木版本, 1633년간,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金相憲, 『南槎錄』, 木版本, 규장각 소장.

『朝鮮王朝實錄』.

李源祚, 『耽羅志草本』, 草稿(影印本), 1841년간, 제주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編),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5), 제주: 경신인쇄사, 1989.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上·下), 서울 : 보경문화사, 1995.

李 增, 『南槎日錄』, 稿本, 1680년간, 개인소장.

李益泰, 『知瀛錄』, 筆寫本(影印本), 제주 : 濟州文化院, 1997.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嶺海唱酬錄』, 木版本, 1642년간, 奎章閣所藏.

李佑成 篇, 『古本 鷹鵠方 外 二種』,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0.

徐有渠(著); 李鍾萬(編); 洪命喜, 『鏤板考』, 영인본(필사본), 서울:大同出版社, 1941.

『濟州邑誌』, 筆寫本, 단권, 1책, 규장각 소장.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筆寫本, 규장각 소장.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편집), 『耽羅誌』, 影印本.

『光武三年五月日邑誌濟州邑誌』, 필사본, 1899년(광무3년 5월), 규장각 소장.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3.

## 2. 단행본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9輯-충청북도·제주도, 서울 : 旻成文化社, 1996.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 민음사, 2004.

西歸浦市,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 서울 : 大明企劃, 1998.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版目錄總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探求堂, 1974.

金致雨, 『故事撮要의 冊板目錄 研究』, 부산 : 도서출판 민족문화, 1983.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2001.

濟州市 ;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牧 地誌總攬』, 제주 : 세림원색인쇄사, 2002.

林東錫, 『中國學術綱論』, 서울 : 고려원, 1986.

전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 주 지식산업사, 2003.

辛良善,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서울 : 혜안, 1997.

李榮基,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前間恭作(著) ; 安春根(譯), 『韓國板本學』, 서울 : 범우사, 1985.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解題 1』, 서울 : 경인문화사, 2003.

李元鎮 畚 ; 김찬흡 등역, 『譯註耽羅志』, 서울 :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 3. 학술논문

金成俊, 「‘牧民心鑑’과‘居官要覽’의 比較研究」, 『동방학지』제62호, 서울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김무봉, 「조선후기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제23집, 2004. 1.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8집, 청주 :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藤田亮策, 「紙反古」,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 日本國 京城府 : 書物同好會 昭和十三年.

윤봉택, 「13세기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耽羅文化』 제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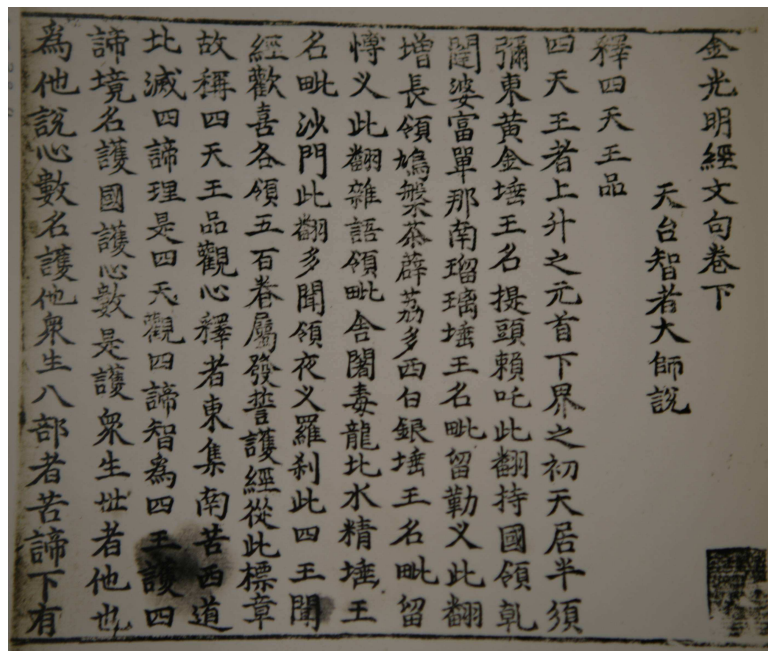
호, 서울 : 도서출판 보고사, 2006.  
윤봉택, 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書誌學研究』제34집,  
서지학회, 2006. 9.

#### 4.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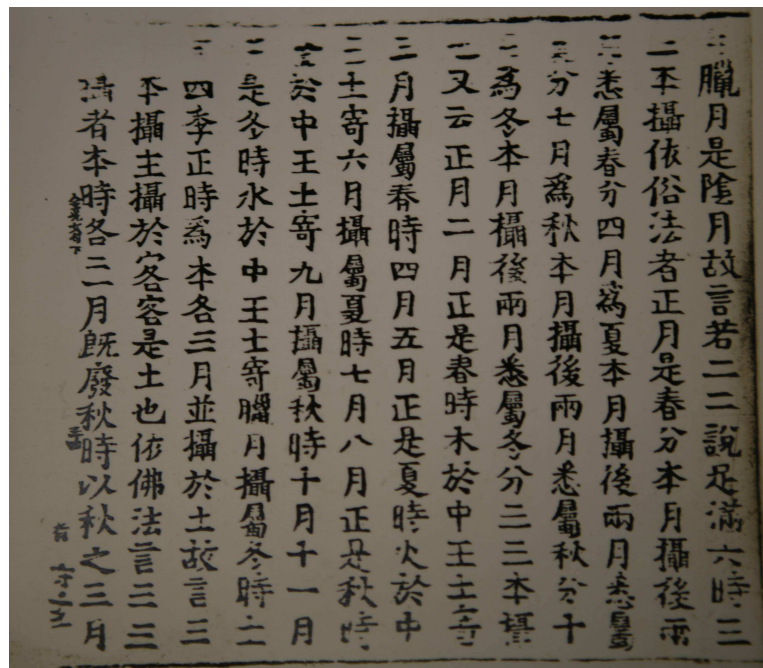
安美璟, 「朝鮮時代 千字文 刊印本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金致雨, 「조선조 전기 지방간본의 연구 - 책판목록 소재의 전존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5. 기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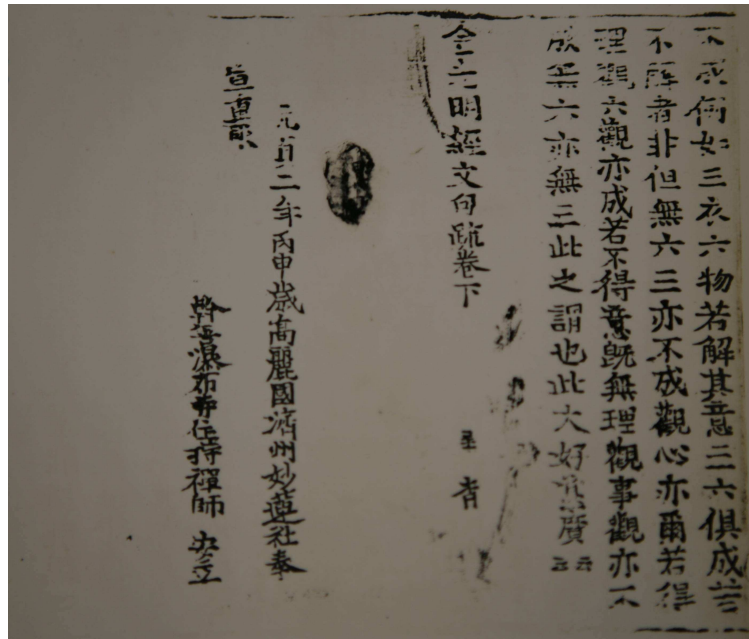
사이버유교박물관. 사상관. 유교경전. <http://www.yugyo.org/사이버유교박물관>.  
2006. 4. 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검색. 해제검색. <http://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2.jsp/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4. 4.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63464/NAVER>. 200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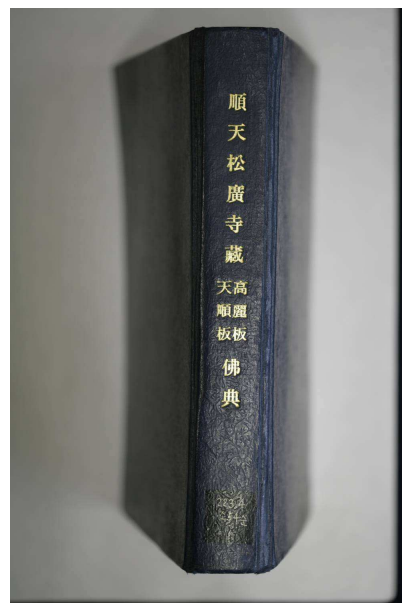
〈사 1〉 『금광명경문구』 권하, 권수제 1장(表)



〈사 2〉 『금광명경문구』 권하, 24장(裏)



〈사 3〉 『금광명경문구』 권하 권말제 31장(裏)



〈사 4〉 장서각 소장본



〈사 5〉 『미상』 (6장 후면)



〈사 6〉 『맹자대전』 (17장)





〈사 7〉 『맹자언해』



〈사 8〉 『미상』



〈사 9〉 『논어대전』 (권17, 12장)



〈사 10〉 『삼국지연의』 (권11, 68장)





〈사 11〉 『미상(通)』



〈사 12〉 『의례문해』 (권2, 23장)



〈사 13〉 『맹자언해』 (권9, 8장 후면, 마루널판으로 사용)



〈사 14〉 『삼국지연의』 (권11, 43장 후면, 마루널판으로 사용).

# A Study of Joseon Period's Publication Culture in Jeju

Yoon, Bong-Tae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ultural Properties)

(Directed by Professor, Kim, Dae-Hyun)

(C o - a d v i s e r : S o n g , I l - G i)

## ABSTRACT

Considering the Jeju(濟州) situations underdeveloped in the bibliographic research spheres,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printing/publication culture and heritage of Jeju region in the Joseon(朝鮮) period, mainly focusing on the existing woodblocks and printings, as well as the catalogue of woodblocks (etc., *chaekpanmokrok* 冊版目錄, *chaek -pangom-okrok* 冊版庫 目錄)

Due to the *Kumkoangmeongkeongmunku* (金光明經文句) as an example of patriotic scripture and the oldest woodblock printed at Jeju Myoreonsa(濟州妙蓮社) in the late Korea period, Jeju people can sustain their own identity and pride by such a printing cultural legacy.

With the advent of Joseon Dynasty putting Buddhism into a national

ideology, it was found out that some valuable books of diverse domains such as the veterinary, local defense against Japan invasion, learning and education for the Jeju youth, and so on were printed in Jeju. In particular, the printing culture level of Jeju region, at that time, seemed to be priceless and outstanding. This is because Jeju people could also print and complete the woodblocks in a form of technically wood trimming and printing sculpture.

The catalogue files of Jeju woodblocks were discovered, and also recorded significantly in *Jogyesansongkwangsasago* (曹溪山松廣寺史庫), *Sooncheonsong-kwangsajangkoreapancheonsoonpalbuljeon*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and *Jo-seonhwangjosilrok* (朝鮮王朝實錄), including *Gosachalyo* (攷事撮要), *Giyoun-grock* (知瀛錄), *Tamnaji* (耽羅志), *Jejueupji* (濟州邑誌), *Gochaekpanyouchogo* (古冊板有處攷), and so on, which have composed 256 woodblocks

Jeju's some woodblock printing/publication outcomes prior to Imjin War (year 1592-1598) against Japan in the Joseon include a typical case of *aegicheongyunrok* (禮記淺見錄), printed in the most early period, and furthermore *Dongkuksaryak* (東國史畧), *Gumsijangsik* (檢屍狀式), *Jeokbyukbu* (赤壁賦), and *Wanhwaryusoo* (浣花流水). The total number of such woodblocks remained 11 cases.

Despite of largescaled fire losing Jeju's woodblocks in Year 1435 and 1677, they were endlessly printed, thus extending into three periods between 1392-1435, between 1436-1677, and between 1678-1899. With regard to this period base, some significant woodblocks in Jeju location had been printed, thus containing 39 titles of *Gyungbu* (經部), 15 titles of *Sabu* (史部), 51 titles of *Jabu* (子部), 13 titles of *Jipbu* (集部), and totally recording 118 kinds of woodblocks in Jeju.

When I analyze the published woodblocks arranged via a quarter division method, there could exist 99 titles, which include 28 titles of *Gyungbu* (經部), 14 titles of *Sabu* (史部), 47 titles of *Jabu* (子部), 10 titles of *Jipbu* (集部). There, in particular, was 27 titles of *Jabu* (子部) which accounts

for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in Jeju region. The order of published proportion in the woodblocks is *Jabu*(子部), *Gyungbu*(經部), *Sabu*(史部), and *Jipbu*(集部). This means that some exiled scholars from the mainland might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nd education for young people, thus vitalizing diverse publication and printing enterprises in Jeju.

In comparison wit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the woodblocks in the printing/publication of the mainland, Jeju's ones may generate large differences and thus be alienated from the research obje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oses some limit by depending upon some historical materials left to the present.

Meanwhile, Jeju as an exiled island where some political victimizers used to be laid down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on comparatively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woodblocks to be continued in their publication and printing. This is because we are able to see the publication of *Kumkoangmeongkeongmunku* (金光明經文句), even under *Won* (元)'s colonial domination, to get *Yaegicheongyunrok* (禮記淺見錄)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sustain such a publication of woodblocks despite of grand fire against Jeju's loc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Year 1677.